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생애주기별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회복환경지각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E-MGB)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지속성장데이터사이언스학부

관광개발학전공

정 현 규

2023년 2월

생애주기별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회복환경지각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E-MGB)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용 복

정 헌 규

이 논문을 관광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정헌규의 관광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任和淳



위 원

鄭丞勳



위 원

南玆燮



위 원

姜永淳



위 원

崔容福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A Study of the Effect on Wellness Tourists'
Behavioral Intention by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during the Life Cycle Stages
: Focused on the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Heonkyu 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Yong-Bok Choi)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Tourism.

2022.12

This dissertation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6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8
1. 연구 방법 및 범위	8
2. 연구 구성	9
제2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웰니스관광	10
1. 웰니스	10
2. 웰니스관광	15
3. 웰니스관광 연구 동향	19
제2절 회복환경지각	24
1. 주의회복이론	24
2. 회복환경지각	27
3. 주의회복이론 관련 연구 동향	30
제3절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E-MGB)	36
1. 행동이론	36
2.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43
3.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54
4.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연구 동향	55
제4절 생애주기	64
1. 생애주기이론	64
2. 생애주기 단계 구분	65
제5절 시사점	74

제3장 연구 방법	77
제1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77
1. 연구 모형	77
2. 가설 설정	80
제2절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89
1. 조사 설계	89
2. 측정척도	90
3. 설문지 구성	95
4. 분석 방법	97
제4장 실증 분석	98
제1절 표본의 특성	98
1. 인구통계학적 특성	98
2. 웰니스관광 참여 특성	100
제2절 측정척도 평가	101
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구성요인	102
2. 회복환경지가 속성요인	104
제3절 측정모형 평가	106
1. 확인적 요인분석	106
2. 구조모델 적합도 분석	110
제4절 가설 검정	113
1. 가설 검정	113
2. 매개효과 분석	125
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비교	12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31
1. 요약	131
2. 시사점	134

제5장 연구 모형의 생애주기별 적용	136
제1절 생애주기 단계	136
제2절 생애주기별 연구 모형 비교분석	13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48
1. 요약	148
2. 시사점	150
제6장 결론	15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2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157
1. 연구의 의의	157
2. 시사점	158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163
참고문헌	165
설문지	192
Abstract	197

< 표 차례 >

<표 1-1> 연구의 구성 및 세부 항목	9
<표 2-1> 웰니스 정의	12
<표 2-2> 웰니스관광 정의	17
<표 2-3> 웰니스관광 관련 해외 주요 선행연구	21
<표 2-4> 웰니스관광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23
<표 2-5>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에 따른 회복환경 세부속성	29
<표 2-6> 주의회복이론 관련 해외 주요 선행연구	32
<표 2-7> 주의회복이론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35
<표 2-8>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	53
<표 2-9>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태도 확장)	61
<표 2-10>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열망 및 행동의도 확장)	62
<표 2-11>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기타 확장)	63
<표 2-12> 생애주기 단계 구분 해외 선행연구	68
<표 2-13> 생애주기 단계 구분 국내 선행연구	71
<표 2-14> 생애주기 단계 구분	73
<표 3-1> 연구조사 개요	90
<표 3-2>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측정 항목	92
<표 3-3> 회복환경지각 관련 측정 항목	94
<표 3-4> 설문지 구성	96
<표 3-5>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97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9
<표 4-2> 웰니스관광 참여 특성	100
<표 4-3>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임계치 범위	101

<표 4-4>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구성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03
<표 4-5>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05
<표 4-6> 구성요인 집중타당성과 내적 일관성 분석	107
<표 4-7> Fornell-Larcker 판별타당도 분석	109
<표 4-8>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판별타당도 분석	110
<표 4-9> 구성요인 간의 다중공선성(VIF) 분석	111
<표 4-10> 구조모형 적합성 분석	112
<표 4-11> 구조모형 가설 검정	114
<표 4-12> 구조모형 매개효과 분석	126
<표 4-13> MGB와 E-MGB에 대한 구조모형 모델적합도 비교	128
<표 4-14> MGB와 E-MGB에 대한 경로모델	130
<표 5-1> 생애주기 단계별 구분 세부 내용	138
<표 5-2> 순열(permutation)을 이용한 5개 집단의 경로계수 비교	139
<표 5-3>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별 경로계수 차이 분석	140
<표 5-4> 생애주기 단계별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차이	141
<표 5-5> 생애주기 단계별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차이	142
<표 5-6> 생애주기 단계별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차이	143
<표 5-7> 생애주기 단계별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차이	144
<표 5-8> 생애주기 단계별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차이	145
<표 5-9> 생애주기 2단계와 3단계 차이 분석	146

< 그림 차례 >

[그림 2-1] 확장된 웰니스 모델	14
[그림 2-2] Theory of reasoned action	38
[그림 2-3] Theory of planned behavior	41
[그림 2-4]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44
[그림 3-1] 연구모형	79
[그림 4-1] 구조모형 가설 검증	12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Now the cause of action is choice, and the cause of choice is desire and reasoning directed to some end.”

Aristotle(Nicomachean Ethics, 1139a 31)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위, 합리적 선택, 욕구, 그리고 목적지향성의 관계를 “행위는 합리적 선택에서 나오며 합리적 선택은 욕구와 목적지향적 이성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였다(강산진·김재홍·이창우, 2008). 이러한 설명을 오늘날의 행동이론에 비추어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동의도를 욕구와 목적지향성에 기반 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처럼 행동의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욕구와 목적지향성을 핵심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행동이론은 오늘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과 일치하며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의 다양한 행동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행동이론이다(Taylor, Bagozzi, & Gaither, 2005; Song, Lee, Kang, & Boo, 2012; Song, Lee, Reisinger, & Xu, 2017; 이후석, 2019).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 행동이론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요인인 행위자의 욕구를 이론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며 여러 가지 행동 요소와 행동의도의 연결을 시도한 이론이다(송학준·이충기, 2010; 유근준, 2014). 그리고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되었으며 그러한 분야 중 하나가 관광학 분야이다. 관광학 연구에 있어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광객의 행동연구는 전 세계적인 관광객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관광기구인 UNWTO(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따르면 국제관광객은 1990년 4억3,90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4억 6,500만 명을 기록하였다(UNWTO, 2020). 이는 지난 30년간 국제관광객이 3.3배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

제관광객의 평균 성장률은 4.9%였다. 특히 최근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성장률이 약 7%를 기록할 정도로 급격한 국제 관광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졌다(UNWTO, 2019). 이러한 지속적인 국제관광객수의 증가와 함께 관광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 또한 시도되었으며 특히 관광객과 관련하여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9년 발생한 Covid-19에 따른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하여 국제관광객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 국제관광객은 4억 600만 명을 기록하게 된다. 이어진 2021년에도 국제관광객은 회복되지 못하고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인 4억 2,900만 명을 기록하였다(UNWTO, 2022). 이러한 수치는 국제관광객수로 4억 1,000만 명을 기록한 1989년과 유사한 국제관광객 수준으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Covid-19의 유행은 결과적으로 국제관광시장을 3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Covid-19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ovid-19에 따른 관광시장의 위기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정승훈·양성수, 2021), 이러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관광시장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Covid-19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각광 받게 된 관광의 형태는 이른바 웰니스관광이다(맹해영, 2021). 웰니스관광은 최근 등장한 관광의 개념은 아니며 Covid-19 이전에도 이미 충분히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Covid-19 라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관광객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었으며 이러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광객들의 욕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으로 충족되어 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Covid-19 이후 웰니스관광은 더욱더 각광받는 관광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웰니스와 관련된 국제기구인 Global Wellness Institute는 2017년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지출 규모를 6,170억 달러로 추산하였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18). 이는 2019년 7,204억 달러로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 기간의 웰니스관광 성장률은 관광시장 전체 성장률인 5.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8.1%라고 추산하였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21). 이러한 웰니스관광의 성장은 확인된 바와 같이 관광시장 전체 성장률에 앞서는 것으로 Covid-19 이전 시기에 이미 관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웰니스관광 역시 큰 타격을 입고 2020년 기준 관광객 지출 4,357억 달러를 기록한다. 이는 전년대비 39.5% 감소한 수치로서 Covid-19 발생 직후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로 인하여 관광 자체가 불가능해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21).

이러한 웰니스관광은 웰니스에 대한 Dunn(1959)의 “High-Level Wellness for Man and Society”에서 현대적 의미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Dunn은 웰니스를 ‘인간을 몸, 정신, 마음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의 존재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웰빙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건강상태이자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 방법’이라고 정의 하였으며(Dunn, 1959), 이러한 그의 정의로부터 현대적 의미의 웰니스 개념은 연구되고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웰니스 개념은 이후 관광과 접목되어 관광활동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려는 관광객의 의도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형태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웰니스관광은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는 대표적인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맹해영, 2021). 특히 Covid-19에 따른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웰니스관광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확고한 관광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이 대표적인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관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이에 대한 관광객의 심리 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관광은 관광객이 적극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경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여유와 휴식 그리고 건강과 같은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관광에서도 이러한 여유와 휴식 그리고 건강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웰니스관광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관광객의 심리 변화는 웰니스관광이 활성화 되고 대표적인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광객의 심리 변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행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광연구에 있어서는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과 같은 기존의 행동이론을 관광객의 행동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유근준, 2014; 양은주·남민정, 2015; 이옥선, 2018). 그리고 이러한 관광객 행동 연구를 통하여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 이러한 관광객 행동에 대한 행동이론의 적용은 관광객의 관광 행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관광 행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따라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웰니스관광에서도 웰니스관광을 경험하는 관광객들의 행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기존의 행동이론에 대한 추가적인 요인 확장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이 다른 관광 행동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행동이론의 확장을 통하여 가능하며, 이러한 확장된 행동모델의 적용은 기존의 관광객 행동 연구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신영송·김효운·송학준, 2018; 박재형·이민석·이철원, 2019; 장원용·김진국, 2019; 윤준, 2020).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에는 최근 전세계 관광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인 Covid-19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말 시작된 Covid-19는 2020년과 2021년 약 2년간 전 세계에 국가 간 봉쇄조치 및 국가 내 활동제한과 같은 다양한 제한조치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켰다(최주철·김영미, 2020; 윤효진, 2022). 이러한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피로감을 동시에 일으키게 되었으며, 개인의 심리상태는 Covid-19의 감소 추세와 함께 제한 없는 활동에 대한 욕구 및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욕구와 관심은 관광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관광활동에 있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관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강과 안전 그리고 Covid-19로 부터의 회복은 웰니스관광의 주요 개념과 일맥상통하며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 주의회복이론의 회복환경과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의회복이론은 인간에게 자연이 주는 심리적이 회복 효과에 관한 이론 중 하나로 자연환경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는 Kaplan & Kaplan(1989)의 이론에서 시작되었다(Kaplan, 1995; 이승훈·현명호, 2003). 이는 지향적 주의와 비자발적 주의라는 개념을 통하여 회복환경과 회복경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회복환경에서 경험한 회복 결과를 회복경험이라 하고 이러한 회복경험에 대한 지각을 회복환경지각이라고 하여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과 같은 회복지각 요인을 제시하는 이론이다(Kaplan, 1995; Purcell, Peron, & Berto, 2001; 유윤희·연평식·신원섭, 2013; 김송이, 2020).

이처럼 Covid-19 이후 더욱 주목 받고 있는 관광 유형인 웰니스관광은 그동안 행동이론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이론적 접근이나 웰니스관광 고유의 특성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아닌 단순히 관광시장의 유행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학문적 체계 마련보다는 활용하기 쉬운 관광 슬로건으로서 일반에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웰니스관광은 그 고유의 특성이나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소모되기보다 체계적인 프레임 설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문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웰니스관광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관광객의 만족도 분석이나 관광지에 대한 분류와 같이 실용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져왔다(이충순·이상미, 2016; 하경희, 2019; 권해윤, 2020; 김지훈, 2020; 윤희진·박경열, 2021). 그러나 Covid-19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웰니스관광의 위상을 고려할 때 웰니스관광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관광객의 행동 연구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Covid-19 이후 웰니스관광이 더욱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객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행동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체계정립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광객 행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 과정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있어서 학문적 체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설정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목적

관광분야에 있어서 웰니스관광의 성장과 Covid-19 이후 더욱 확고해진 관광산업 내에서 웰니스관광의 위치를 고려할 때 웰니스관광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 이후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웰니스관광을 체험하는 관광객이 어떠한 인식과 사고를 통해서 웰니스관광을 체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체계정립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을 체험한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Covid-19 이후 웰니스관광에 있어서 학문적 체계화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학문적 체계 정립 그리고 웰니스관광을 체험한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우선 첫째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기존 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다양한 관광 유형의 하나로서 관광 트렌드에 대한 이해의 수준으로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수준의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웰니스관광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학문적 접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웰니스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이론적 기초 마련은 웰니스관광 행동에 대한 일반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행동이론으로서 목표지향적 행동 모델을 활용하여 웰니스관광 행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행동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기존 이론을 통하여 확인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에 대하여 모델 확장을 통해 웰니스관광 고유의 행동요인과 행동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의 행동이론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하여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행동이론의 확장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보다 적합한 행동모델의 도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특화된 확장 모델의 도출은 웰니스관광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보다 웰니스관광에 적합한 행동이론의 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 모델은 앞서 언급한 기존의 행동

이론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주의회복이론의 회복환경지각을 확장된 요인으로 추가하여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웰니스관광만의 특성을 학문적으로 확인하고 웰니스관광과 기존의 관광유형과의 실질적 차별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본 연구는 생애주기이론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생애주기별 관광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하여 심도 있고 실질적인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도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별, 세대별 관광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요즘의 관광 세대를 고려할 때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생애주기에 따라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은 웰니스관광을 최근의 관광 세대에 기반 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작된 인간의 관광 활동은 노년층의 시니어 관광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생애주기에 따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에 맞게 관광객에 대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끝으로, 앞서 제시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의될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생애주기이론을 통해 확인된 관광 체험자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까지 단순히 관광지 추천에 머물러 있거나 홍보수단 개발에 국한되어 있는 웰니스관광 정책에 대하여 이론적 접근에 기반 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궁극적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욕구 충족 및 관광 산업 활성화 그리고 웰니스 관광시장의 선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 목적으로서의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이론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확장 모델을 통한 웰니스관광 고유의 이론적 특성 확인과 생애주기에 따른 관광객 행동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안을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및 범위

웰니스관광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 및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기존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실증할 수 있는 통계학적 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다 깊이 있고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개념 이해와 이론 고찰을 위한 문헌 연구 및 통계학적 검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개념 이해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진행된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과 국내외 주요 학위논문들, 그리고 관련 서적 및 주요 통계자료, 그리고 각종 기관들의 정책 보고서 등이 활용되어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론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모형과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통계학 분석 기법들이 활용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은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함께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내용적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우선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범위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핵심 개념인 웰니스관광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이론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주의회복이론 그리고 생애주기이론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이어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연구 대상의 공간적 범위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웰니스관광을 체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대상에 대한 표본데이터 수집의 시간적 범위로서 본 연구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데이터의 수집 기간인 2022년 8월 7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2. 연구 구성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이론적 기반 마련과 확장 모델을 통한 웰니스 관광 고유의 이론적 특성 확인 및 생애주기에 따른 관광객 행동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안이라는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론 - 이론적 배경 - 연구방법 - 실증분석 - 생애주기별 적용 - 결론이라는 총 6단계의 항목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의 구성 및 세부 항목

구성 항목	세부 항목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배경 · 연구 방법 · 연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 연구 범위
이론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니스관광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환경지각 · 생애주기이론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모형 · 조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 설정 · 분석 방법
실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의 특성 · 측정모형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척도 평가 · 가설 검증
생애주기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단계 · 요약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연구 모형 비교 분석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요약 ·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및 시사점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웰니스관광

1. 웰니스

1) 정의

웰니스(wellness)라는 용어는 17세기 유럽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Erfurt-Cooper & Cooper, 2009), 당시에는 질병의 반의어 또는 좋은 상태나 건강한 상태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21). 이러한 웰니스를 현대적 의미로 처음 정의한 것은 Halbert Dunn이며 그는 그의 저서인 “High-Level Wellness for Man and Society”에서 웰니스를 ‘인간을 몸, 정신, 마음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의 존재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웰빙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건강상태이자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Dunn, 1959). 이러한 Dunn의 정의는 웰니스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rdell, 1977; Myers & Sweeney, 2004), Dunn의 이러한 웰니스에 대한 정의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웰니스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Dunn의 정의는 기존의 웰니스에 대한 개념인 건강한 상태를 단순히 몸에 국한 하지 않고 정신과 마음의 건강으로 확대하여 ‘특별히 건강상태’를 몸, 정신 그리고 마음으로 구체화 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웰니스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어진 환경이라는 개념을 웰니스의 정의에 포함 시켜 웰니스에 외부적 요소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웰니스에 대하여 전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Mueller & Kaufmann, 2001; Bushell & Sheldon, 2009; Georgiev & Vasileva, 2010; Miller & Foster, 2010; Kelly, 2012).

이후 Ardell(1977)은 Dunn의 정의를 바탕으로 웰니스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웰빙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일련의 핵심 원칙을 채택하려는 성향’이라고 정

의하였다. 이처럼 Ardell(1977)은 웰니스를 정의하며 웰빙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웰빙과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웰니스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웰니스에 대한 웰빙 개념의 활용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웰빙 개념을 통하여 웰니스를 설명하였다. 특히 Myers, Sweeney, & Witmer(2000)는 웰니스를 ‘인간과 자연 공동체 내에서 보다 완전하게 살기 위해 개인이 몸, 마음, 정신을 통합하는 최적의 건강 및 웰빙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여 웰빙 개념을 적용하여 웰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Travis(1984)는 ‘존재의 상태, 태도 및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웰니스를 정의하였으나, 이후 Travis & Ryan(2004)은 웰니스를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좀 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 노력이 표출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웰니스를 정의하였다. Travis & Ryan(2004)은 문제 해결이라는 웰니스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웰니스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영적 노력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웰니스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Corbin & Pangrazi(2001)는 웰니스를 ‘삶의 질과 행복감에 의해 예시되는 개인의 긍정적인 건강의 존재를 설명하는 다차원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Cohen & Bodeker(2008)는 웰니스에 대하여 ‘개인이 궁극의 건강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고, 끝으로 Voigt, Howat, & Brown(2010)는 웰니스를 ‘자신의 건강과 기분이 좋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한 결과로서 긍정적이고 심리적인 웰빙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웰니스에 대한 정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웰니스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Deesilatham, 2018). 이러한 다양한 웰니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이러한 웰니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각각의 정의들이 몇 가지 주요한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건강의 측면에서 웰니스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 혹은 웰빙에 이르는 과정을 핵심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앞서 제시된 주요 개념들이 전체론적이고 조화롭게 추구되고 있다는 특성도 있다. 이러한 웰니스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를 삶의 만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도록 하겠다.

〈표 2-1〉 웰니스 정의

연구자	정의
Dunn(1959)	웰니스는 사회적 환경, 문화, 영성과 의존적이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 정신으로 구성된 '사람'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웰빙 감각으로 구성된 특별한 건강 상태이다.
Ardell(1977)	웰니스는 높은 수준의 웰빙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일련의 핵심 원칙을 채택하려는 성향이다.
Travis(1984)	웰니스는 우리가 성취하고 다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의 상태, 태도, 그리고 진행 중인 과정이다.
Myers et al.(2000)	웰니스는 몸과 마음, 정신이 개인에 의해 통합되어 인간과 자연 공동체 안에서 더 온전히 사는 최적의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다.
Corbin & Pangrazi(2001)	웰니스는 삶의 질과 행복감에 의해 예시되는 개인의 긍정적인 건강의 존재를 설명하는 다차원적인 상태이다.
Travis & Ryan(2004)	웰니스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좀 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 노력이 표출된 것이다.
Cohen & Bodeker(2008)	웰니스는 개인이 궁극의 건강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Voigt et al.(2010)	웰니스는 자신의 건강과 기분이 좋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한 결과로서 긍정적이고 심리적인 웰빙 상태이다.
Deesilatham(2018)	웰니스는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해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이다.

출처: 연구자 재정리

2) 개념 및 모델

Dunn(1959)에 의해서 웰니스에 대한 현대적 정의가 처음 제시된 이후 웰니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웰니스의 주요 개념들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개념의 등장과 함께 여러 가지 웰니스 이론 및 웰니스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웰니스를 설명하기 위하여 Ardell(1977)은 자기 책임, 신체, 영양, 스트레스 관리, 환경

적 민감성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웰니스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웰니스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과 건강 유지에 있어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1970년대 미국의 웰니스 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Miller, 2005). Adams, Bezner, Garner, & Woodruff(1998)는 웰니스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웰니스를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Mueller & Kaufmann(2001)은 Ardell(1977)이 제안했던 웰니스 영역에 대하여 이를 확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관광분야로 발전시켰다. Mueller & Kaufmann(2001)은 Ardell(1977)의 자기 책임 개념을 웰니스에서 핵심개념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웰니스를 건강 영역, 신체 영역, 휴식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에 사회적 관계와 환경적 민감성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어온 웰니스는 개인의 건강습관 및 관행에 대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는 개인의 주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Voigt et al., 2010). 이러한 주관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웰니스를 측정하고 공통된 웰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Travis & Ryan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니스 연구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웰니스 연구자들은 다양한 웰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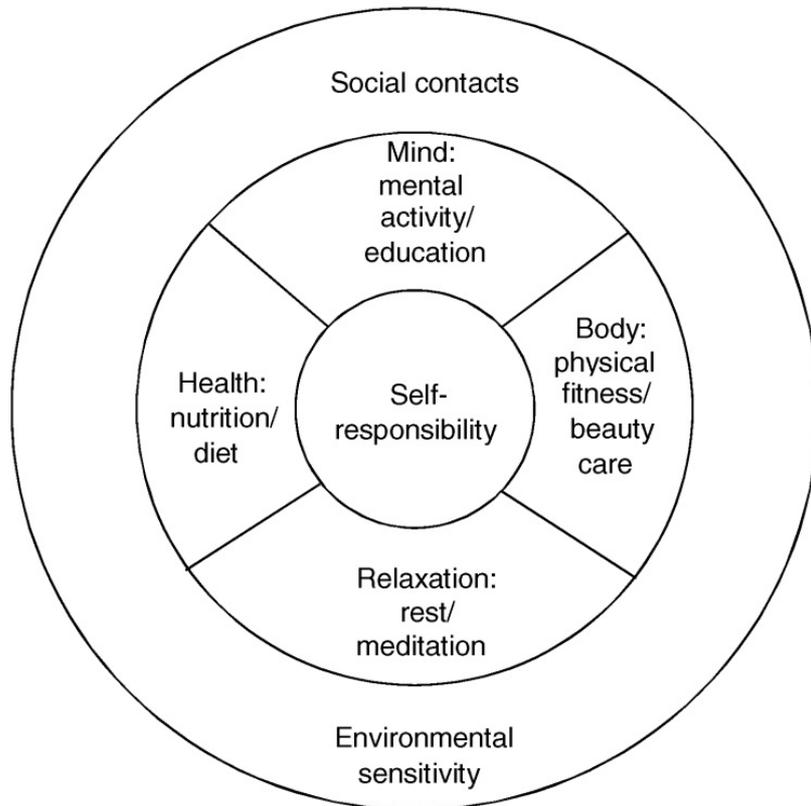
웰니스에서 자기 책임을 강조한 Ardell(1977)은 자기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을 영양 인식, 체력, 스트레스 관리 및 환경 민감성이 둘러싼 형태의 웰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Hettler(1980)는 사회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 신체적 웰니스, 지적 웰니스, 영적 웰니스, 직업적 웰니스로 웰니스에 대하여 6개의 웰니스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웰니스 구성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Hettler의 모델을 기반으로 Testwell Wellness Inventory (National Wellness Institute, 1983)가 개발된다. 이는 10개의 웰니스 척도를 통하여 생활양식 행동이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건강 위험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웰니스 측정 모델이다.

Myers, McCaulley, Quenk, & Hammer(1998)은 신체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 사회적 웰니스, 정신적 웰니스, 지적 웰니스로 구성된 Wheel of Wellness 개념을 기반으로 Wellness Evaluation of Lifestyle(WEL) 모델을 개발한다. WEL 모델은 세부적으로 가치감, 통제감, 현실적 신념, 감정적 인식 대처, 문제 해결 및 창의성, 유머 감각, 영양, 운동, 자기 관리, 스트레스 관리, 성 정체성 및 문화적 정체성 등의 항목을 활용하여 웰니스를 측정한다. 이러한 WEL 모델은 이후 보완을 거쳐 5F-Wel 인벤토리로 재구성된다(Myers &

Sweeney, 2004).

Mueller & Kauffman(2001)은 자기 책임, 마음, 몸, 건강, 이완, 사회적 접촉, 환경적 민감성을 활용하여 확장된 웰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확장된 웰니스 모델은 [그림 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델 중심에 자기 책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자기 책임 주변을 마음, 몸, 건강, 이완이 감싸고 이를 다시 사회적 접촉과 환경적 민감성이 감싸고 있는 구조이다.

[그림 2-1] 확장된 웰니스 모델



출처: Mueller & Kauffman(2001)

끝으로 대학생의 건강을 측정하기 도구로서 Hey, Calderon, & Carroll(2006)은 웰니스 개념을 활용하여 BMS-WBCI(Body-Mind-Spirit Wellness Behavior and Characteristic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BMS-WBCI는 신체, 마음, 정신이라는 3가지 척도 아래 44개 항목으로 구성된 모델로서 건강의 물리적, 지적, 영적, 감정적, 사회적, 정서적 및 직업적 영역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웰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은 웰니스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은 웰니스의 주요 개념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려 하거나, 각 개념들에 대한 측정항목 제시를 통하여 개인의 웰니스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웰니스에 대한 주요 개념 설명과 웰니스 모델 제시는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웰니스에 대한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웰니스관광

1) 정의

웰니스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해만큼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웰니스관광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이 웰니스, 건강, 의료, 스파 처럼 다양하며 이러한 용어들이 연구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데에서 기인한다(Vogit et al., 2010). 그 결과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연구자에 따라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Bertsch & Ostermann, 2011), 이는 웰니스관광에 대하여 건강 관광과 같은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하여 Mueller & Kauffman(2001)은 건강을 보존하거나 증진하는 것이 주요 동기인 사람들에게 의한 여행으로 인한 모든 관계와 현상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웰니스관광을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정의내린 것으로 다른 정의에 비하여 이해하기가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웰니스관광의 정의이다. 이와 유사하게 Carrera & Bridges(2006)는 웰니스관광을 개인의 마음과 몸의 안녕을 유지, 향상 또는 복원하기 위해 지역 환경 밖으로 하는 조직된 여행이라고 정의하였다.

Smith & Kelly(2006)는 웰니스관광을 신체, 정신 및 정신을 유지,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치료를 제공하는 관광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영적, 요가, 스파 및 종교 관광과 같은 특정 관광 활동을 전체론적 관점에서 웰니스관광의 개념으로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후 Chen, Prebensen, & Huan(2008)은 웰니스관광을 참가자의 몸, 마음, 정신을 젊어지게 하는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지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현상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관광 동기뿐만 아니라 관광 목적지를 웰니스관광의 주요 개념으로 포함시킨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는 웰니스관광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의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Bushell & Sheldon(2009)은 웰니스관광을 신체적 건강, 아름다움 또는 장수에 대한 추구 및 의식이나 영적 인식의 고양과 공동체, 자연 또는 신성한 신비와의 연결을 통합하는 전체론적 여행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웰니스 상품, 적절한 기반 시설 및 천연 자원을 갖춘 목적지에서의 다양한 관광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정의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Smith & Puczko(2008)는 웰니스관광을 유사 개념과의 관계에서 정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Smith & Puczko(2008)는 건강 관광을 다양한 웰니스 및 의료 관광 상품과 시설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이어서 웰니스관광을 전체론적,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의료 관광은 치료 및 수술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는 건강 관광에서 웰니스관광과 의료 관광의 다양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시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 설명으로 볼 수 있다.

Wray, Laing, & Voigt(2010)는 웰니스관광을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주된 동기로 하는 관광객에 의해 수행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경험을 통합한 긍정적이고 전체적인 건강 이해라고 정의를 하였다. 이는 웰니스관광에서 주요 웰니스 영역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웰니스를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 볼 수 있다. 이후 Voigt, Brown, & Howat(2011)는 웰니스관광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고,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안녕을 가능하게 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에서 적어도 하룻밤을 머무르는 사람들의 여행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계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이전의 웰니스 영역을 강조하였던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재정의 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와 웰니스 영역에 대한 주요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Hritz, Sidman, & D'Abundo(2014)는 웰니스관광을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지적 건강, 감정적 건강, 심리적 건강, 정신적 건강 중 하나 이상에 있는 건강을 위한 여행이라고 정의하여 웰니스관광 정의에서 웰니스 영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그 범위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며, 결국 이러한 차이들로 인하여 웰니스관광 개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Voigt et al., 2010). 이처럼 다양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웰니스관광 정의

연구자	정의
Mueller & Kaufmann(2001)	웰니스관광은 건강을 보존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주된 동기로 하는 사람들의 여행과 거주로 인한 모든 관계와 현상의 총합이다.
Carrera & Bridges(2006)	웰니스관광은 개인의 마음과 몸의 안녕을 유지, 향상 또는 복원하기 위해 지역 환경 밖으로 하는 조직된 여행이다.
Smith & Kelly(2006)	신체, 정신 및 정신을 유지,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치료를 제공하는 관광 유형이다.
Chen et al.(2008)	웰니스관광은 몸과 마음, 정신을 되살리는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지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현상이다.
Bushell & Sheldon(2009)	웰니스관광은 신체 건강, 아름다움 또는 장수에 대한 탐구와 의식 또는 영적 인식의 고조, 그리고 공동체, 자연 또는 신성한 신비와의 연결을 통합한 전체론적 여행이다.
Wray et al.(2010)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주된 동기로 하는 관광객에 의해 수행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경험을 통합한 긍정적이고 전체적인 건강 이해이다.
Voigt et al.(2011)	웰니스관광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고,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안녕을 가능하게 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에서 적어도 하룻밤을 머무르는 사람들의 여행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계의 총합이다.
Hritz et al.(2014)	웰니스관광은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지적 건강, 감정적 건강, 심리적 건강, 정신적 건강 중 하나 이상에 있는 건강을 위한 여행이다.

출처: 연구자 재정리

웰니스관광의 정의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웰니스관광은 개인의 웰니스 추구에 초점이 맞춰진 수요 지향적 관광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웰니스관광에서는 관광 목적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개념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의 기존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관광을 웰니스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웰니스 추구 활동이라고 정의하겠다.

2) 특성

Lounsbury & Hoopes(1986)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개념 연구를 통하여 휴가가 웰니스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휴식, 휴가 만족도, 일상탈출, 음식 및 숙박, 결혼 및 가족, 교육 성취(attainment) 간의 관계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이처럼 웰니스관광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연구자들은 웰니스관광의 개념 및 특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하나로 Steiner & Reisinger(2006)는 웰니스의 주요 특성으로서 개인의 진정성과 초월성을 꼽았으며, 이 2개의 특성을 웰니스관광의 로드맵을 위한 개념의 기초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Steiner & Reisinger(2006)는 기존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 특히 Mueller & Kaufmann(2001)의 웰니스관광 정의인 '건강을 보존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주된 동기로 하는 사람들의 여행과 거주로 인한 모든 관계와 현상의 총합'에 대하여 웰니스관광을 건강 회복과 증진에 집중하여 웰니스의 특성인 진정성과 초월성이 웰니스관광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과 함께 웰니스관광은 일상생활에서 대처할 수 없는 자아성찰 및 성장,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Steiner & Reisinger, 2006).

이러한 웰니스관광에서 웰니스적 가치가 강조되는 특성은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채동렬·감지혜(2016)는 웰니스관광에서 정신적·정서적 웰니스를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잘 보존된 자연에서 자연활동을 즐기며 그 자연이 보전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웰니스관광은 Voigt et al.(2011)이 정의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가능하게 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시설에서 적어도 하룻밤을 묵는 사람들에게 의한 여행'이라는 표현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특성을 갖는다. 그 결과 웰니스관광은 농촌관광, 한방관광, 템플스테이, 치유관광, 미용관광, 의료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활동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는 웰니스관광 개념의 모호함으로 이어지게 된다(유숙희, 2018).

이러한 웰니스관광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Global Wellness Institute(2018)는 웰니스관광을 특성에 따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Global Wellness Institute(2018)의 구분은 '건강한 삶(healthy living)', '회복과 휴식(rejuvenation & relaxation)', '의미와 관계(meaning & connection)', '진정한 경험(authentic experience)', '질병예방과 관리

(disease prevention & managemen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분화된 영역 구분처럼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관광이 웰니스관광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예시로 아웃도어 스포츠 및 모험 활동(Hall, 1992; Kulczycki & Lück, 2009; Sheldon & Bushell, 2009), 영성 및 종교관광(Smith & Kelly, 2006), 봉사관광(Devereux & Carnegie, 2006; Lean, 2009), 뉴에이지 관광(Pernecky & Johnston, 2006), 요가관광(Lehto, Brown, Chen, & Morrison, 2006; Frew & Ali-Knight, 2009)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처럼 웰니스관광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살펴본 결과, 웰니스관광은 웰니스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개념이 포함되어 주관적이며 다차원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웰니스관광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웰니스관광은 관광 유형에 대한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3. 웰니스관광 연구 동향

1) 해외 웰니스관광 선행연구

웰니스관광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념이 정립되고 관광 트렌드로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행과 함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도 해외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이 연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웰니스의 영적 요소에 대하여 연구한 Steiner & Reisinger(2006)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Steiner & Reisinger(2006)는 영적 상실, 자연과의 분리, 바쁜 일상으로부터 삶의 균형과 통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영적 웰니스로 구성된 웰니스관광을 제시하였다.

웰니스관광 중 요가관광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한 Lehto et al.(2006)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의 유행으로 요가 관광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웰니스와 요가관광의 실질적 연관성이 요가관광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소비자 참여 이론(consumer involvement theory)을 활용하여 요가 관광객의 동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신체 상태 강화', '정신적 웰빙', '부정적 감정 조절', '영성 추구' 등을 요가 관광객의 중요 동기로 제시하였다(Lehto et al., 2006).

웰니스관광을 전체론적 관점에서 정의 내린 Sheldon & Bushell(2009)은 웰니스관광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객 경험, 수요,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 결과로 웰니스 현상의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웰니스 연관 상품이 개발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웰니스관광 연구에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관광목적지에 대하여 Prideaux, Berbigier, & Thompson(2014)은 웰니스 관광목적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쟁력 확보는 관광객의 기대가 충족되거나 그 이상일 때 가능하고 하였다. 이러한 웰니스관광 연구에 대하여 Smith & Diekmann(2017)은 웰니스관광 연구에서 웰니스관광과 웰니스와의 관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웰니스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웰니스 관광객의 경험을 깊이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Longo, Coyne, & Joseph(2017)은 웰니스 측정 척도 개발 연구를 통하여 웰니스는 건강 및 예방과 일치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웰니스 측정을 위하여 척도로 자기 인식, 자기 가치, 개발, 자기 수용, 활력, 낙관, 행복, 목적, 연결, 평온, 참여, 역량, 일치, 의미 등 14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한편 웰니스관광과 대체의학과의 연계를 시도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Meera & Vinodan(2019)은 웰니스관광이 대체의학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의학은 웰니스의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연구를 통하여 웰니스를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개인적 웰니스 등 5개 요인으로 이에 따른 26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Covid-19 이후 Chhabra(2020)는 웰니스의 잠재적 치료와 힐링적 측면을 강조하여 웰니스관광이 관광객의 질병예방과 관광산업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웰니스관광 시스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Sonuç(2020)은 경영의 측면에서 단기적 이익추구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웰니스관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웰니스관광 경험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Dillette, Douglas, & Andrzejewski(2021)는 온라인상에 게시된 웰니스관광 경험에 대하여 프레임 워크 분석을 하여 신체적 웰니스, 정신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 환경적 웰니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웰니스관광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웰니스관광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일시적인 연구 흐름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해외 웰니스관광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웰니스관광 관련 해외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Steiner & Reisinger(2006)	영적 상실, 자연과의 분리, 바쁜 일상으로부터 삶의 균형과 통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영적 웰니스로 구성된 웰니스관광을 제시함
Lehto et al.(2006)	요가 관광객의 동기를 분석하여 '신체 상태 강화', '정신적 웰빙', '부정적 감정 조절', '영성 추구' 등을 요가 관광객의 중요 동기로 제시함
Sheldon & Bushell(2009)	웰니스관광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광객 경험, 수요, 행동 의도에 대하여 연구함
Prideaux et al.(2014)	웰니스관광 목적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Smith & Diekmann(2017)	웰니스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웰니스 관광객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
Longo et al.(2017)	웰니스 측정 척도 개발 연구를 통하여 14개 측정 항목을 제시함
Meera & Vinodan(2019)	웰니스관광이 대체의학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의학은 웰니스관광의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음
Sonuç(2020)	경제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웰니스관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Chhabra(2020)	Covid-19 이후 관광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 시스템 모형을 제시함
Dillette et al.(2021)	온라인 관광 사이트에 게시된 웰니스관광 경험을 프레임워크 분석을 통해 4가지 차원으로 연구함

출처: 연구자 재정리

2) 국내 웰니스관광 선행연구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오길창·이기중(2009)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가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웰빙과 웰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웰니스 리조트에서 제공되는 웰니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지숙(2013)은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의 건강 상태 변화 및 만족도, 재방문의사를 조사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진의·김남조(2016)는 웰니스관광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숲 치유프로그램에 있어서 웰니스적 가치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숲 치유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웰니스 가치와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치유프로그램에 있어서 웰니스 가치가 참가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치유관광객의 삶의 만족을 위해 치유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병현(2016)은 웰니스 관광객의 동기와 웰니스 관광지의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정책적 지원,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관광상품의 품질 관리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웰니스관광을 건강관리의 한 형태로 바라본 최일선(2017)은 웰니스관광이 신체적, 정신적 휴식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각광받고 있다고 하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웰니스관광을 신체, 마음, 정신 등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은아·김동훈(2018)은 치유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도심형 리조트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심형 리조트의 물리적 요소로서 공간계획과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리적 요소로써 관광객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태규(2019)는 주요 웰니스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설구축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대부분의 시설 구축수준은 양호하지만 활성화 및 활용전략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융복합적 웰니스 상품개발, 웰니스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 웰니스 시설에 대한 체계적 마케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관광 참여자의 웰니스 인식을 분석한 김성태·김영아·김진옥(2020)은 연구를 통하여 웰니스 인식이 높은 관광객일수록 농촌관광활동을 통해 얻는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 이외에도 웰니스관광의 개념 및 특성(유숙희·이훈, 2018), 상품개발 및 활성화 방안(김상운, 2019; 이정철, 2015; 오선숙, 2016), 측정도구 개발(유숙희, 2018), 웰니스 인식의 효과성 검증(허향진·홍성화, 2018), 웰니스관광 활동 세분화(문재홍, 2020), 웰니스관광 연구동향 분석(정헌규·최용복, 2022)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웰니스관광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오길창·이기종(2009)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에 있어서 관광객의 웰빙과 웰니스에 대한 인식을 연구함
한지숙(2013)	웰니스 프로그램 참가자의 건강 상태 변화 및 만족도, 재방문의사를 조사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이진의·김남조(2016)	숲 치유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숲 치유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웰니스 가치와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함
김병현(2016)	웰니스 관광객의 동기와 웰니스 관광지의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최일선(2017)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웰니스관광을 신체, 마음, 정신 등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오은아·김동훈(2018)	치유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도심형 리조트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유태규(2019)	주요 웰니스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설구축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김성태 외(2020)	웰니스 인식이 높은 관광객일수록 농촌관광 활동을 통해 얻는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확인함

출처: 연구자 재정리

제2절 회복환경지각

1. 주의회복이론

1) 주의회복(attention restoration)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인류의 생활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인간 삶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누적된 영향은 인간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Kaplan, 1992).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방어로서 인간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본인의 주의를 분산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적 노력의 결과로 인지적 피로가 극대화되고 주의를 소진되게 된다. 이렇게 소진된 주의를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위가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회복을 ‘주의회복(attention restoration)’이라고 한다(Kaplan & Kaplan, 1989; Kaplan, 1995; Bell, Greene, Fisher, & Baum, 2001).

주의회복에는 자연과 같은 회복환경(restorative environment)이 필요하며 이러한 회복환경에서의 주의회복효과에 대해 James, Burkhardt, Bowers, & Skrupskelis(1982)는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을 처음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의회복이론은 인간에게 자연과 같은 회복환경이 주는 심리적인 회복효과에 관한 이론으로서 환경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다(Kaplan & Kaplan, 1989; Ulrich, Simons, Losito, Fiorito, Miles, & Zelson, 1991; Kaplan, 1995; 이승훈·현명호, 2004).

주의회복이론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특정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지향적 주의(directed attention)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지향적 주의를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지향적 주위가 지속되면 심리적, 육체적 피로(fatigue)가 유발된다. 특히 지향적 주의를 인간이 도시환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지나치게 소진되고 도시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소진된 지향적 주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의 극대화로 이어진다(Bell et al., 2001).

이처럼 소진된 지향적 주의(directed attention fatigue)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향적 주의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향적 주의를 회복시켜 주는 환경을 '회복환경(restorative environment)'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회복 환경 내에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정신적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주의를 불수의적 주의(involuntary attention)라고 한다(Kaplan & Kaplan, 1989; Kaplan, 1995; Bell et al., 2001).

결론적으로 주의회복이란 인간이 외부자극에 노출되면 본인의 주의를 분산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면서 의도적인 형태로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향적 주의와 이러한 정신적 노력을 통해 소진된 인지적 피로를 낮추기 위해서 발생하는 불수의적 주의로 설명이 가능하다(Kaplan & Kaplan, 1989; Kaplan, 1995; Bell et al., 2001).

2) 회복환경(restorative environment)

주의회복이론을 통하여 Kaplan(1995)은 지속된 지향적 주의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향적 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지향적 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통하여 인지적 피로가 낮아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진된 지향적 주의가 회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회복환경이라고 한다(Kaplan, 1995; Hartig, 2004).

이러한 회복환경은 지향적 주의가 소진된 인간의 누적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의 회복을 촉진시킨다(Berto, 2005). 회복환경에서 인간은 누적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지향적 주의를 통해 발생한 정신적 피로가 회복환경에서 완화되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Cimprich, 1992). 결국 스트레스를 통해 소진된 지향적 주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연 등 회복환경 내에서 더 많은 노출이 필요하며, 이런 방법은 결국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Cimprich, 1998).

회복환경과 관련된 주요 이론으로는 크게 주의회복이론과 스트레스회복이론(Stress Recovery Theory : SRT)으로 구분된다. 주의회복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속된 지향적 주의로 인해 발생한 피로를 회복환경에서 불수의적 주의를 통하여 회복한다는 이론이며, 스트레스회복이란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에서 생리적 환기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혜택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다(Ulrich, 1983). Ulrich(1983)의 스트레스회복이론과 관련된 주장들은 기존의 정서적 회복에 관한 연구들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 것으로서, 특히 인간의 시각적 자극에 따른 회복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환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연환경에 대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복환경 연구들을 통하여 자연환경은 인간의 정신적 회복경험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owler, Buyung-Ali, Knight, & Pullin, 2010; Martens, Gutscher, & Bauer, 2011; Marselle, Irvine, & Warber, 2013; Richardson, Pearce, Mitchell, & Kingham, 2013; Korpela, Borodulin, Neuvonen, Paronen, & Tyrväinen, 2014). 또한 회복환경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나 치료환경에서도 회복환경을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atcliffe, Gatersleben, & Sowden, 2013; Eriksson & Wiklund-Gustin, 2014).

회복환경에서 느끼게 되는 회복경험은 피로를 감소시키는 중요 수단이며, 이러한 회복 경험은 특히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자연환경에서 회복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Ulrich, 1984; Frumkin, 2001; Hartig, Evans, Jamner, Davis, & Gärling, 2003). 그러나 인간이 회복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오직 자연환경으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연환경 이외의 환경에서도 다양한 상황과 활동을 통하여 피로를 회복할 수 있다(Kaplan, Kaplan, & Ryan, 1998).

이러한 회복환경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형태의 장(behavior setting)’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Thompson & Travlou, 2007). 형태의 장은 인간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회복경험을 위하여 어떠한 공간에 범위를 설정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그 범위 내에서 주의회복에 대한 회복효과가 발생한다는 개념이다(Moore & Cosco, 2007). 이는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관광객이 관광시설 내에서 회복환경에 대한 회복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의회복에 대한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된다(김무한, 2015).

이와 같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 역시 관광객에게 회복환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회복환경을 통하여 관광객은 회복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회복경험에 영향을 주는 잠재요인들은 회복 및 건강과 관련된 성격, 사회적 맥락, 회복의 필요성, 주거 자연환경 지역, 상황 요소 등 다양하며, 이러한 회복경험은 안정감, 자신감, 마음정리, 이완 등을 포함한다(Korpela, Ylén, Tyrväinen, & Silvennoinen, 2008; Korpela & Ylén, 2009).

2. 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이론은 회복환경 내에서 인간이 지각하는 감각 경험을 세부적으로 이론화 하고 구체화하고 있다(Kaplan, 1995). 그리고 이를 근거로 회복환경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 척도를 회복환경지각 척도(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PRS)라고 한다. 이러한 회복환경지각 척도는 주의회복의 세부속성을 척도화 한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척도로 ‘일탈성(being away)’, ‘매력성(fascination)’, ‘조화성(coherence)’, ‘적합성(compatibility)’, ‘규모(extent)’, ‘넓이감(scope)’, ‘이해용이성(legibility)’ 등이 있으며 각 속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탈성(being away)은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자연과 같은 회복환경 내에서 지각하게 되는 감정이다. 이러한 일탈성은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일상의 환경과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환경에서 일탈성은 평소와 뚜렷하게 분리된 환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Kaplan, Bardwell, & Slakter, 1993; Korpela & Hartig, 1996;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특히 Kaplan(1995)은 일탈성을 설명하며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지각되는 일탈성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느끼는 일탈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매력성(fascination)은 주의회복이론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회복환경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의미하며 이는 불수의적 주의를 유발해낼 정도로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환경이어야 함을 뜻한다. 즉 매력성은 회복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긍정적인 감각을 주는 공간에 대한 속성이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셋째, 조화성(coherence)은 회복환경에서 물리적인 요소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공간의 규모를 통해 인간이 회복환경에서 인지하는 공간의 여유와 조화를 지각하는 속성이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조화성은 회복환경 요소들 간의 연결성(connectedness)을 의미하기도 하며 넓이감(scop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일부 연구자는 규모와 같은 의미를 갖는 속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넷째, 적합성(compatibility)은 회복환경에서 주어진 기회 또는 행동에 대한 제약이 개인의 성향이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의미하는 속성이다. 이는 인간이 회복환경에서 이

루고자하는 회복경험이 회복환경의 조건들과 부합할수록 강화되는 속성으로서, 특정한 공간을 회복환경으로 설정하고 해당 공간에서 회복환경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아질수록 적합성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다섯째, 규모(extent)는 회복환경의 물리적 측면에서 나온 속성으로서, 물리적 환경에서 개인이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이거나 전체 공간 중 일부분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조화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속성으로 볼 수가 있다(Kaplan et al, 1993; Nordh, Evensen, & Skar, 2017).

여섯째, 넓이감(scope)은 회복환경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충분한 규모를 통해 인간이 회복환경에서 인지하는 여유를 지각하는 속성이다. 이는 조화성과 유사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화성의 일부로 이해되기도 한다(Purcell et al, 2001).

마지막으로 이해용이성(legibility)은 넓이감(scope)의 일부인 조화성을 측정해주는 요인으로 규모를 보완하고자 추가된 요인이다. 이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넓이감, 조화성, 규모를 보완하고자 제시된 속성이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환경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7가지 속성 요인은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조화성, 규모, 이해용이성, 넓이감이었다. 이 중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은 개별적이며 고유의 특성이 있는 회복환경 속성으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화성, 규모, 넓이감, 이해용이성은 연구자에 따라 유사한 개념 혹은 다른 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환경에 대한 대표적인 속성 요인들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자별 활용하는 회복환경 속성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에 따른 회복환경 세부속성

	일탈성 being away	매력성 fascination	조화성 coherence	적합성 compatibility	규모 extent	이해용이성 legibility	넓이감 scope
Kaplan et al. (1993)	○	○		○	○		
Korpela & Hartig (1996)	○	○	○	○			
Purcell et al. (2001)	○	○	○	○			○
Rosenbaum (2009)	○	○	○	○			
Pasini, Berto, Brondino, Hall, & Ortner (2014)	○	○	○				○
Nordh et al. (2017)	○	○		○	○		
유윤희 외 (2013)	○	○	○	○		○	
권현숙 · 함연경 · 김혜령 · 윤희연 (2017)	○	○	○				○
이혜린 · 이훈 (2018)	○	○	○	○		○	
한장현 (2019)	○	○	○	○			
김송이 (2020)	○	○	○	○		○	

출처: 연구자 재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주의회복이론의 개념과 회복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 행동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회복환경지각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복환경지각을 웰니스관광 체험자가 웰니스 관광지에서 지각하는 회복환경으로 정의하기로 하겠다. 또한 세부적인 회복환경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회복환경 세부 속성에는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을 활용하기로 하겠다. 이는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의 경우 회복환경을 설명하는 고유의 특성이 있는 세부속성임에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며 이해용이성의 경우 다른 유사한 속성인 규모, 넓이감이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 속성이 다른 유사한 속성들을 포괄하고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용이성을 본 연구의 세부 속성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3. 주의회복이론 관련 연구 동향

1) 주의회복이론 관련 해외 연구동향

주의회복이론과 관련한 연구는 이론이 확립된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회복환경지각 척도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 초반에는 장소에 대한 회복력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회복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연구는 박물관 방문객을 상대로 회복환경지각을 평가한 Kaplan et al.(1993)의 연구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어서 Korpela & Hartig(1996)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가지 장소(도시의 중앙광장, 우호적 장소, 불쾌한 장소)에 대한 회복환경지각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치 좋은 전망이 있는 곳, 녹지가 있는 곳, 여름별장과 같은 우호적 장소가 높은 회복환경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공간의 회복력에 대한 비교 연구는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Purcell et al.(2001)은 회복환경지각 척도를 이용하여 공업지대, 주택, 도시의 거리, 언덕, 호수에 대한 회복점수와 선호도 친숙성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결과 호수와 언덕의 회복점수가 다른 장소의 회복점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Laumann, Gärling, & Stormark(2001) 역시 회복환경지각 척도를 사용하여 도심, 해안, 공원, 눈 덮인 산, 숲에 대한 회복력을 측정하였는데 실험 결과 산의 회복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해

안의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rto(2005)는 회복환경에서 정신적 피로가 감소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회복환경에서 정신적 피로 회복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회복력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이처럼 주의회복이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의 단순 회복력 비교에서 다양한 연구 주제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회복환경에 대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장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Korpela, Ylén, Tyrväinen, & Silvennoinen(2010)의 연구에서 회복환경은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회복환경과 선호 장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회복환경을 시각적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연구도 시도되었는데 White, Smith, Humphryes, Pahl, Snelling, & Depledge(2010)는 수족관의 수조와 같은 블루스페이스가 회복환경으로서 주의회복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쇼핑몰에 소형 수족관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한 Windhager, Atzwanger, Bookstein, & Schaefer(2011)의 연구로 이어졌으며, 연구 결과 쇼핑몰에서 수족관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단시간 스트레스 회복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주의회복으로 쇼핑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각적인 회복환경과 함께 Ratcliffe et al.(2013)은 자연환경 내에서 청각적 자극이 회복환경으로 역할을 하며, 이는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새소리를 활용한 연구에서 새소리는 인간의 주의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회복환경에 대하여 회복환경에 머무는 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Korpela et al.(2014)은 자연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시간이 회복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활동 시간이 회복경험을 통하여 정서적 웰니스에 조절효과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회복환경이 치료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Eriksson & Wiklund-Gustin(2014)은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된 연구에서 수도권에서 치료중인 환자를 인터뷰하여 수도권의 자연환경이 회복환경으로 환자들의 치료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이루어진 주의회복이론 관련 선행연구는 회복환경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부터 회복환경 영향 요인과 시청각적 회복환경의 효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의회복이론이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이와 같

은 회복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 주의 회복이론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주의회복이론 관련 해외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Kaplan et al.(1993)	박물관 방문객과 비방문객을 상대로 회복환경지각을 비교하고 평가함
Korpela & Hartig(1996)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가지 장소(도시의 중앙광장, 우호적 장소, 불쾌한 장소)에 대한 회복환경지각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함
Herzog, Black, Fountaine, & Knotts(1997)	3가지 공간에 대한 회복환경 비교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높은 회복력을 지니고 있음 확인함
Purcell et al.(2001)	공업지대, 주택, 도시의 거리, 언덕, 호수에 대한 회복점수와 선호도 친숙성을 측정하여 호수와 언덕의 회복점수가 다른 장소에 비하여 높은 것을 확인함
Laumann et al.(2001)	도심, 해안, 공원, 눈 덮인 산, 숲에 대한 회복력을 측정하여 산의 회복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함
Berto(2005)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회복환경에서 정신적 피로 회복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확인함
Korpela et al.(2010)	회복환경이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통하여 회복환경과 선호 장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함
White et al.(2010)	블루스페이스가 회복환경으로서 주의회복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함
Windhager et al.(2011)	쇼핑몰에서 수족관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단시간 스트레스 회복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주의회복으로 쇼핑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함
Ratcliffe et al.(2013)	자연환경 내에서 청각적 자극이 회복환경으로 역할을 하며, 이는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음
Korpela et al.(2014)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시간이 회복경험을 통하여 정서적 웰니스에 조절효과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Eriksson & Wiklund-Gustin(2014)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된 연구에서 수도원의 자연환경이 회복환경으로 환자들의 치료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출처: 연구자 재정리

2) 주의회복이론 관련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의회복이론 관련 선행연구는 해외에서와 유사하게 다양한 공간의 회복환경을 회복환경지각 척도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서 유윤희 외(2013)는 도시 공원을 대상으로 도시 공원에 따른 회복력 차이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북한산국립공원의 회복환경지각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김정호·이선영·윤용한(2013)은 청계천을 대상으로 도심지 하천재생경관에 대한 회복환경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하천경관이 인공경관 보다 심리적 치유 및 안정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회복환경을 비교하는 연구 외에도 국내에서는 주의회복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회복환경에 따른 행동의도를 확인하는 연구였다. 이승훈·현명호(2003)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회복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회복환경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의회복이론을 활용한 자기결정 동기화모형 구축 연구를 수행한 이해린(2015)은 연구를 통하여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회복환경 경험이 자연 교류성과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진옥·김도영(2015)은 치유관광에서 숲 관광객의 주의회복 효과에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연 치유관광을 통하여 현대인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주의회복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긍정적 감정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김진옥·김남조·한승훈(2016)은 치유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회복환경과 만족도,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회복환경지각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보다 만족을 거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회복환경지각과 관련된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김재형(2016)은 회복환경지각과 회복탄력성, 여가만족, 심리적 웰빙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외 공간의 회복환경지각은 여가만족을 향상시키고, 회복환경지각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김해옥(2020)은 야외 레크리에이션과 회복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회복환경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야외 레크리에이션 경험 선호와 회복경험과의 관계에서 회복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송이(2020)는 도보 관광객을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이 회복경험, 도보관광객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회복환경지각이 회복경험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복경험도 도보관광 만족도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을 활용하여 치유관광객의 심리적 웰빙을 설명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회복환경지각이 회복경험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회복경험은 치유관광객의 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신겸·오한솔·설자연·안기완, 2022). 또한 윤선희·신창섭·홍종숙·정영미(2022)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과 주의회복, 그리고 여가생활만족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회복환경지각과 주의회복, 그리고 여가생활만족이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반서연·김미성·윤유식(2022)은 자전거 여행객의 회복환경지각이 치유효과와 만족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전거 여행을 통한 회복환경지각이 치유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주의회복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자연환경 및 회복환경 내에서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이승훈·현명호, 2004), 스트레스가 회복환경의 회복경험을 통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김진옥, 2018), 블루스페이스 회복환경지각이 주관적 웰빙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장현, 2019), 농촌관광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회복환경지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김성태 외, 2020), 회복환경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치유관광에 대한 개념모델 정립에 대한 연구(김진옥·이충기, 2017)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회복환경은 관광객의 만족도 혹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반복적으로 지속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의회복이론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주의회복이론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이승훈·현명호(2003)	회복환경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키는 것을 확인함
이승훈·현명호(2004)	회복환경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누적되는 부정적 영향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회복환경이 결국 일상생활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꾸준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유윤희 외(2013)	도시 공원을 대상으로 도시 공원에 따른 회복력 차이를 확인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의 회복환경지각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함
김정호 외(2013)	도심지 하천재생경관에 대한 회복환경 연구를 통하여 하천경관이 인공경관 보다 심리적 치유 및 안정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김진옥·김도영(2015)	자연 치유관광을 통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 높아지며 주의회복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중요한 요인임
이혜린(2015)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회복환경 경험이 자연 교류성과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김진옥 외(2016)	회복환경지각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보다 만족을 거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됨
김재형(2016)	야외 공간의 회복환경지각은 여가만족을 향상시키고, 회복환경지각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김진옥·이충기(2017)	자연기반 관광활동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인의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김진옥(2018)	지각된 스트레스는 치유회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회복환경은 회복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한장현(2019)	블루스페이스 회복환경지각이 주관적 웰빙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함
김성태 외(2020)	농촌관광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회복환경지각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연구함
김송이(2020)	회복환경지각이 회복경험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복경험도 도보관광 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
김해옥(2020)	야외 레크리에이션 경험 선호와 회복경험과의 관계에서 회복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강신겸 외(2022)	회복환경지각이 회복경험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회복경험은 치유관광객의 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윤선희 외(2022)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회복환경지각과 주의회복, 그리고 여가생활만족이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반서연 외(2022)	자전거 여행을 통한 회복환경지각이 치유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출처: 연구자 재정리

제3절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E-MGB)

1. 행동이론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수많은 행동이론들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고 연구되었다. 이러한 행동이론은 관광학 분야에서는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Song, You, Reisinger, Lee, & Lee, 2014).

이러한 수많은 이론 중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그리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심리학 이론이다(Zint, 2002; Lee, Song, Bendle, Kim, & Han, 2012; 이후석, 2019). 이러한 행동이론은 기존의 행동이론의 단점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새로운 행동이론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순으로 개발되었다(이후석, 2019; Song et al., 2017). 따라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역시 선행이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이론이며,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이론인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라는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백상열, 2022),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자원, 기술, 돈, 정보, 기회 등과 같은 행동에 대한 비의지적 요소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Kutner, 2002). 이러한 비의지적 요인으로 인한 합리적 행동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이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으로서 비의지적 행동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이론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행동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함께 비의지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를 요인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러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확장 이론이며, 이러한 확장을 통해 행동의도의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이론이다(이후석 · 오민재, 2016; 이충기 · 고성규 · 임성희, 2017; 최서연, 2017). 이리

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비의지적 요인의 도입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행동에 대한 인지적 요인만을 고려한 이론으로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Perugini & Bagozzi 2001; 임재필·이충기, 2016; 양승탁·이승곤·유진룡, 2018; Jung, Santella, Hermann, & Lawrence,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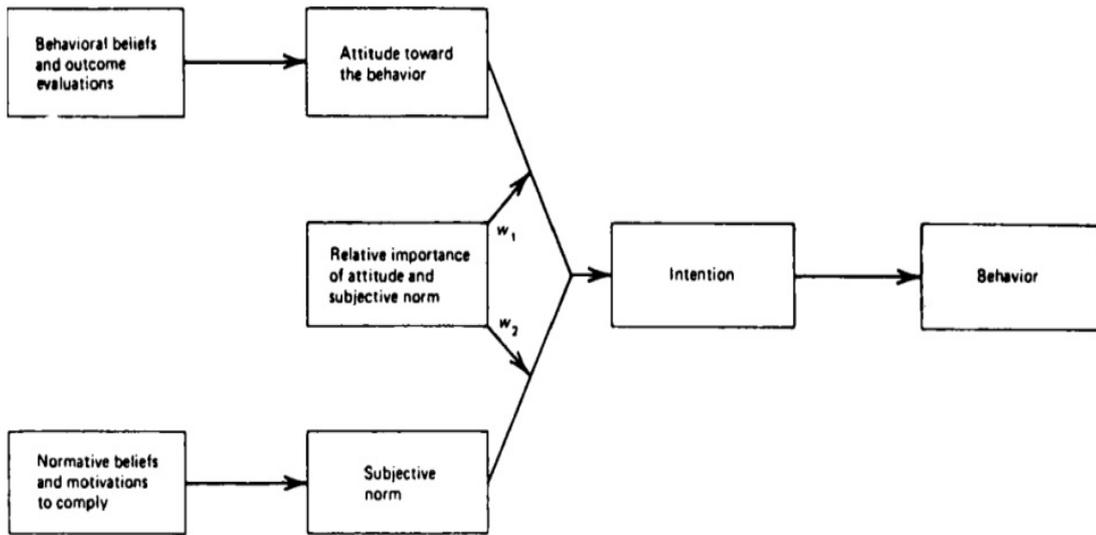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행동이론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Perugini & Bagozzi, 2001)로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행동이론에 감정적인 요인과 동기 요인을 추가하여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 계획된 행동이론의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에 추가적으로 감정적 요인인 예상정서를, 그리고 동기 요인인 열망을 이론에 포함시켜 행동모델을 제안하였다(Taylor et al., 2005; Song et al., 2012).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감정적 요인과 동기까지 함께 고려하는 행동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행동이론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관광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행동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행동모델이다.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정서적·인지적 요인을 추가한 다양한 형태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제시되고 있다(윤철민, 2014; 이후석, 2019; Lim, Lee, Lee, & Lee, 2014; Shiu, Hassan, Thomson, & Shaw, 2008). 이처럼 기존 행동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현재 행동 연구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행동이론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을 위하여 개별 행동이론에 대하여 이론 개발 순서에 맞춰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1) 합리적 행동이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면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행동이론의 개발로 이어져 왔다. (Fishbein, 1963). 초기의 행동이론에서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동의도는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순한 형태의 태도-행동이론이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주된 행동이론이었다(이후석·오민재, 2016). 그러나 이러한 태도-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너무 단순화하여 오직 개인의 태도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설명하려 한 결과, 충분한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Fishbein은 Ajzen과 함께 태도-행동이론에 주관적 규범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여 [그림 2-2]와 같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개발한다.

[그림 2-2] Theory of reasoned action



출처: Ajzen & Fishbein(1980)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행동의도(intention)에 의해 이루어지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되고 있다(김은희, 2007). 이는 기존의 태도-행동이론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태도만을 제시한 것에서 발전하여 주관적 규범을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가한 것으로 기존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확장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Ajzen & Fishbein, 1980).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태도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는 행동에 대한 신념(behavioral beliefs)과 결과에 대한 평가(outcome evaluations)로 측정할 수가 있다(Fishbein & Ajzen, 1975). 이러한 신념과 평가는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뜻한다(김문식, 2014; Fishbein & Ajzen, 1975).

이어서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 지지, 이해와 같은 의견을 뜻한다. 이러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과 순응 동기(motivation to comply)로 측정이 가능하다(Fishbein & Ajzen, 1975). 여기서 규범적인 신념은 행위자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과 같은 주변사람들이 보여주는 지지 혹은 반대와 같은 의견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그

리고 순응 동기는 앞서 주변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하여 형성된 규범적 신념이 행위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순응 동기는 결국 행위자의 행동이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오종철·장형섭, 2012; 최서연, 2017).

이처럼 합리적 행동이론은 특정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적 측면인 행동에 대한 개인의 평가, 즉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측면인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가지고 개인의 행동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태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이며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소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은 예측이 가능한데(Ajzen, 1991),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에서 지지를 받을수록 행동 의도가 확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Fishbein & Ajzen, 1975; 이학식·김영, 2000; 장문성, 2006; 이재신·김한나, 2008; 권미영, 2013; 이옥선, 2018).

이렇게 Ajzen & Fishbein(1980)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통하여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행동이론은 이후 사회심리학과 소비자학 등 행동 연구가 필요한 다양한 학분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의도 간의 관계가 다각적으로 확인되었다(Bagozzi, Baumgartner, & Yi, 1992; Sheppard, Hartwich, & Warshaw, 1988).

이처럼 합리적 행동이론은 기존의 태도-행동이론 보다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연구모형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에 활용되는 행동이론이 되었다(권선중·김교현, 2004). 그러나 합리적 행동이론에 대해서는 사회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양한 행동들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및 지각만으로 설명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윤설민, 2010). 그리고 모형이 간결하여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은 반대로 고려할 요인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가설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단점으로 작용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Sheppard et al., 1988).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Ajzen(1991)은 새로운 행동이론인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대체된다. 이와 같이 합리적 행동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론이었으며 그에 따라 행동 연구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Norman & Smith,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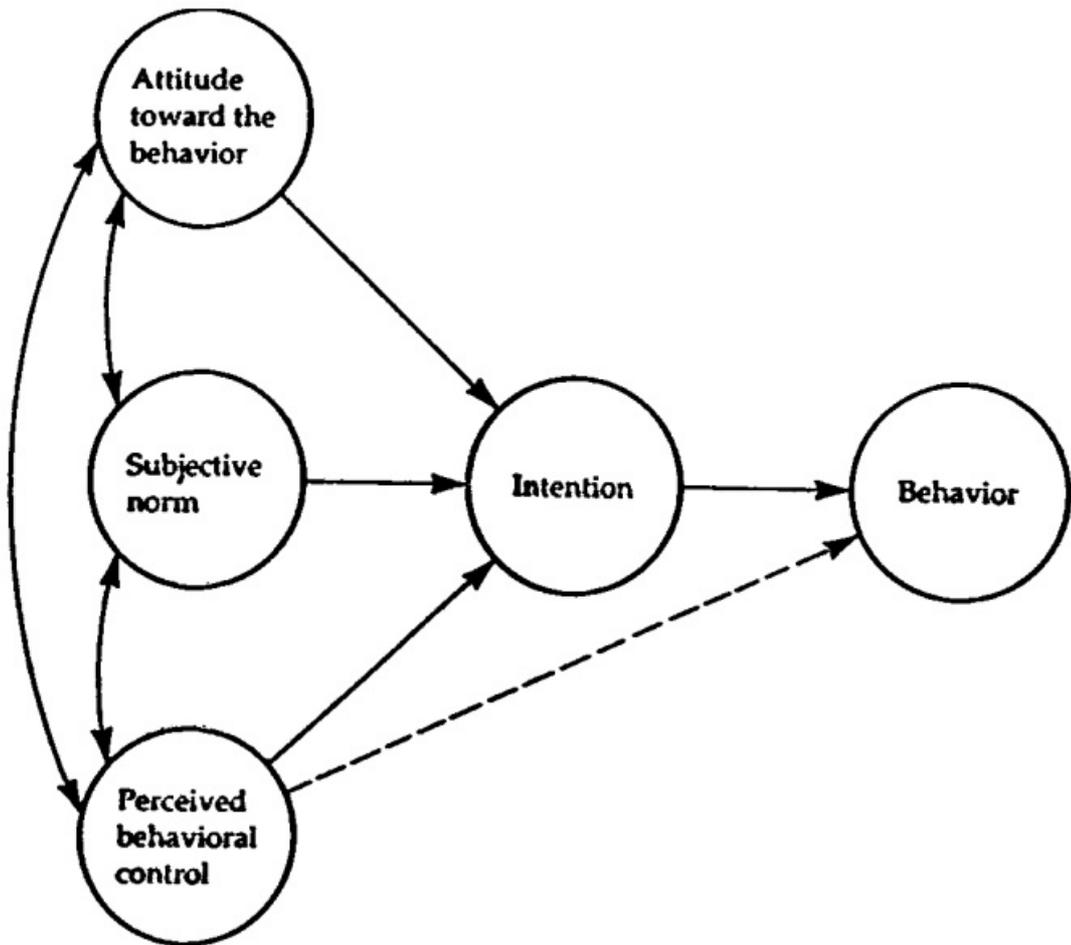
2) 계획된 행동이론

기존의 태도-행동이론을 보완한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선된 설명력과 모형의 간결함으로 인하여 행동연구에서 널리 활용된 행동이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개인적 측면의 행동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측면의 주관적 규범은 모두 행위자의 신념이나 지각,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 현상 속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인간의 행동들이 발생하고 합리적 행동이론은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Kutner, 2002). 다시 말해 태도나 주관적 규범과 같이 신념이나 지각, 의지와 관련된 요소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나 어떠한 행동들은 자원, 금전, 시간 또는 기회와 같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Kutner, 2002).

이러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한 Ajzen(1991)은 비의지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새로운 요인으로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장한 이론으로서(East, 1993; Mowen & Minor, 1998; 이승곤·양승탁·한지훈, 2012), 두 이론은 모두 개인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선행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의 경우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제시된 선행요인에 추가적으로 비의지적 요인인 지각된 행동통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이처럼 계획된 행동이론은 비의지적 통제요인을 행동이론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행동이론과 차이가 있다(임재필, 2018; Han, Lee, & Lee, 2011).

이처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 행동으로 구성된 합리적 행동이론의 행동모형에 지각된 행동통제를 새로운 선행요인으로 추가하여 기존의 행동이론을 확장하였다.

[그림 2-3] Theory of planned behavior



출처: Ajzen(1991)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을 실행하려고 할 때 행위자가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미리 예상을 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행동이 쉬울 것인가 혹은 어려울 것인가를 판단하는 개인의 인지 정도라고도 할 수 있다(Ajzen, 1991). 예를 들면 개인이 등산을 계획하고 내일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일기예보에서 내일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하여 등산계획을 취소한 경우, 폭우라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개인이 이를 인지하고 행동하지 않은 결과에 이른 것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남민정, 2013). 그러나 등산에 대한 신념이 매우 확고하여 행동의도가 매우 강한 개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통

제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가게 될 것이다. 이 경우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동의도가 행동으로 발전된 상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다시 설명하면 개인이 하고자 하는 신념이 높아지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의도가 높아지고 실제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Terry & O'Leary, 1995; 한덕웅·이민규, 2001; 박희량·한덕웅, 2006).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의 역할은 개인이 특정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할 때, 방해물이나 장애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충동, 의지, 능력, 기술 등의 내부적인 요소와 자원, 기회, 시간, 돈, 타인의 도움 등의 외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남민정, 2013; 최서연, 2017).

이와 같이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함으로써 계획된 행동이론은 외부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상황에도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행동이론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Cheng, Lam & Hsu, 2006).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나 주관적 규범과 달리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매개하거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이 행동을 할 때 행동을 정확히 인지하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Ajzen, 1991; 이선아·박명화, 2010).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누적됨에 따라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보다 개인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더 유용한 이론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Zint, 2002; 송학준·이충기, 2010; 정지심·한희섭, 2015; 이옥선, 2018).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현실세계를 잘 반영해주어 사회심리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행동 및 의사결정 예측에 접목되어 왔다(Lee, 2005; Lam & Hsu, 2006; Nasco, Toledo, & Mykytyn, 2008; 윤설민, 2014).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관광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의 관광 활동 참여 및 관광지 선택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은 관광객의 특정 관광 활동에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관광 활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를 통하여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설명하고 관광 활동에 이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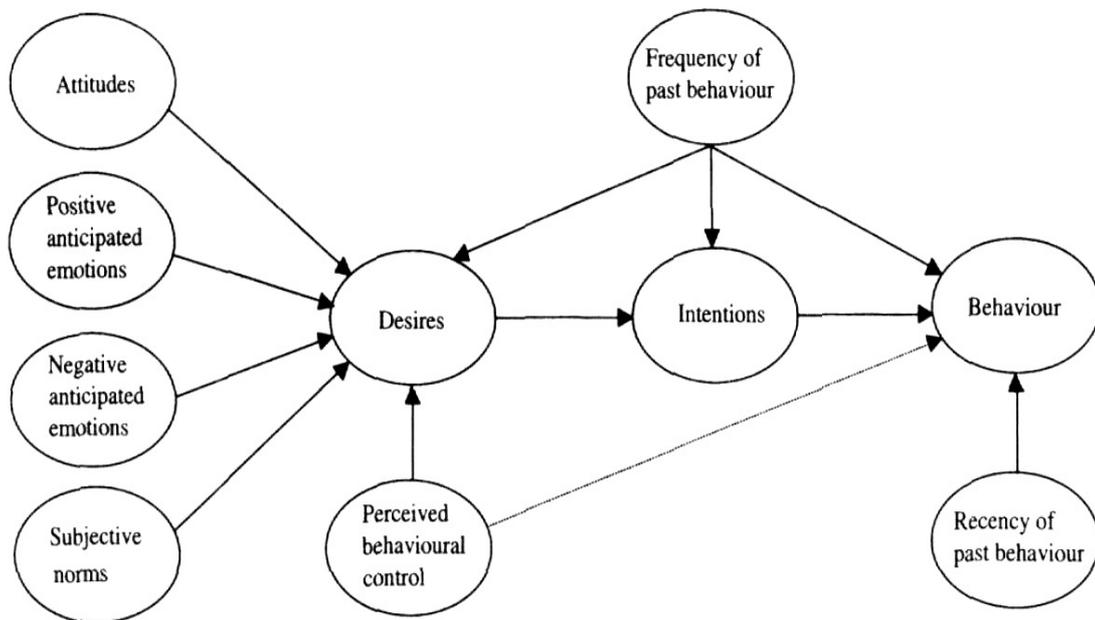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비의지적인 상황을 추가하여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으며 학자들에 의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Lam & Hsu, 2004; 김정자, 2007).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복잡해져가는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계획된 행동이론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핵심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요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모두 행위에 대한 인지적 요소로서, 이로 인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남민정, 2013; 최서연, 2017). 이에 계획된 행동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의도에서 구성개념 간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요인을 고려하는 수정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안되어 왔다(Conner & Armitage, 1998; Armitage & Conner, 2001; Perugini & Bagozzi, 2001; Sheeran, 2002; Pierro, Mannetti, & Livi, 2003; 이영진, 2009; 김보미·노정희, 2012).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Perugini & Bagozzi(2001)는 동기적 요소인 열망(desire), 감정적인 요소인 예상정서(anticipated emotion), 경험적 요소인 과거행동의 빈도와 최신성(frequency and recency of past behavior)을 합리적 행동이론에 추가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을 개발하였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개인의 동기를 고려하여 열망이라는 매개변수를 행동모형에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계획된 행동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든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Bagozzi, 1992).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태도-행동이론,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순으로 발전되어온 행동이론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대표적인 사회적 심리학 이론으로 우수한 예측력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 받아왔다(Taylor et al., 2005; Song et al., 2012; Song et al., 2017; 이후석, 2019).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그림 2-4]와 같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된 구성 요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위의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존의 구성 요인에 열망,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과거행동 빈도, 과거행동의 최

신성을 추가적인 변수로 포함 시켰다(Perugini & Bagozzi, 2001; 이충기 외, 2017; 이옥선, 2018). 특히 새로 포함된 열망의 경우는 선행요인과 행위의도 사이에 위치하여 선행요인이 열망을 통하여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기존 행동이론과의 가장 큰 차이로 볼 수가 있다(송학준·이충기, 2010; 유근준, 2014).

[그림 2-4]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출처: Perugini & Bagozzi(200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의 구성요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와 새롭게 추가된 구성요인인 열망,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과거행동 빈도, 과거행동의 최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망은 개인이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할 때 행동이나 행동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강렬한 감정 상태로 정의되며(Perugini & Bagozzi, 2004), 선행요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과거행동 빈도와 행동의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열망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설명력을 높이고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Perugini & Bagozzi, 2001, 2004; Lee et al.,

2012; 유근준, 2014).

예상정서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행동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적 감정이며(Perugini & Bagozzi, 2001; Carrus, Passafaro, & Bonnes, 2008),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로 다시 구분된다. 여기서 긍정적 예상정서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며 부정적 예상정서는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여 행동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상정서 개념은 계획된 행동이론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개념으로 이를 통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행동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Leone, Perugini, & Ercolani, 2004; Wood & Moreau, 2006; Farag & Lyons, 2007; Taylor, 2007; 송학준·이충기, 2010; 양은주, 2014; 김성우, 2017).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이러한 감정적 요소와 함께 과거행동을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거행동은 과거행동 빈도와 과거행동의 최신성으로 행동모형에 포함 된다(Perugini & Bagozzi, 2004; Song et al., 2012). 과거행동 빈도란 대상행위를 실행한 빈도를 의미하며 보통 지난 1년간의 실행 횟수로 측정을 하며, 과거행동의 최신성은 최근 특정시점으로 한정하여 대상행동을 실행한 빈도를 의미한다(Leone et al., 2004). 이러한 과거행동 빈도는 열망, 행동의도, 행동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과거행동의 최신성은 행동실행에 영향을 미친다(Perugini & Bagozzi, 2001; 송학준·이충기, 2010; 이예진, 2017). 이러한 과거행동에 대한 개념은 그동안 행동이론이 간과하고 있었던 행동에 있어서의 반복적인 습관을 행동모형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처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의 계획된 행동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던 감정적인 부분과 과거행동 개념을 행동모형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이러한 선행 요인들의 매개 역할을 하는 핵심 변수로 동기적인 요소인 열망을 설정하여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크게 향상시켰다(Lee et al., 2012; Song et al., 2012; 윤설민, 2014).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 이론의 인지적 요인과 함께 감정적 요인과 동기적 요인 그리고 과거행동까지 행동모형에 포함시켜 개인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다양한 요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새로운 개념들을 추가로 결합해 확장모형 또는 수정모형 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Perugini & Conner, 2000; Sukoco, 2011; 이예진·윤지환, 2017; 양승탁, 2018; 이 후석, 2019).

2)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구성요인

(1) 태도

일상생활에서 태도는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행동연구의 중심이 되는 심리학에서의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일관되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learned predisposi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Allport, Clark, & Pettigrew, 1954; Fishbein & Ajzen, 1975).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안한 Ajzen & Fishbein(1980)은 태도를 고객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일관된 반응경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Olson & Zanna(1993)는 경험에 의해 획득된 심정 준비상태로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 지각된 느낌이나 선호도 그리고 여가활동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의 개념으로서 특정 대상에 대한 호의와 비호감의 정도를 평가한 후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의 하나로 정의되기도 한다(Bagozzi, Gurhan-Chnli, & Priester, 2002).

또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신념들의 집합체로 이해되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고동우, 2000). 문경호(2010)는 태도란 특정한 사람, 사물 등에 대한 태도이고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감정적 측면을 말하며, 한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고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학습되는 특정 사물에 대하여 미리 형성하고 있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창준(2011)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실용적 태도와 쾌락적 태도(Taylor, 2007; Hwang & Ok, 2012; 양은주, 2014)로 구분하거나, 정서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Dunn, Mohr, Wilson, & Wittern, 2011; 김민수·한진욱, 2012)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태도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웰니스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하도록 하겠다.

(2) 예상정서

인간은 사고 작용을 통하여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Triandis, 1977; Pligt & De Vries, 1998).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예상정서는 행동의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Conner & Armitage, 1998). 행동이론에서 태도가 개인의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상정서는 행동 자체가 아닌 행동을 통해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Bagozzi et al., 2002). 이러한 예상정서는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주며 그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주장되어 왔다(Perugini & Bagozzi, 2001).

예상정서는 감정적 반응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감정을 긍정적 예상정서로, 부정적인 기대 감정을 부정적 예상정서로 구분한다(Song & Lee, 2010). 이러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며(Oatley & Johnson-Laird, 1987), 특히 긍정적 예상정서는 행동이라는 목표에 대하여 계획을 지속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고, 부정적 예상정서는 실행하려는 행동 계획에 문제가 생겨 의도에 따라 바라는 목표가 이루지 못할 경우에 예상되는 감정이다(양은주, 2014).

Perugini & Bagozzi(2001)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설명하며 이러한 예상정서가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서요인은 기존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고려되지 않은 요소로서 행동이론에 설명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상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상정서를 개인이 웰니스관광 활동에 앞서서 예상하게 되는 웰니스관광 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감정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3) 주관적 규범

행동이론에서 태도가 개인적 측면의 요인이라고 할 경우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측면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행동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하게 되는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이러한 주관적 규범에 대하여 Bagozzi et al.(2002)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란 주변사람들의 사회적 영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처럼 행동을 이해하는데 개인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규범은 의미가 있다(Triandis,

1989; 오종철, 2007; Yang & Jolly, 2009),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Ajzen & Fishbein(1980)은 개인에게 중요한 인물 즉 가족, 친구 등과 같이 주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들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이 행동에 호의적 태도를 보이면 행동가능성이 증가하고 반대로 행동에 비호의적 태도를 보이면 행동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구체적으로 규범적 신념과 준수 동기로 구분된다. 규범적 신념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념에 따라 개인이 영향을 받는 일련의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준수 동기는 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개인 스스로의 바램이나 의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주관적 규범의 세부요소가 강할수록 행동의 가능성은 높아진다(Bagozzi et al., 2002; 남민정 · 양은주, 2016).

이러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주관적 규범은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한 행위자의 지각 또는 이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의도로 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규범을 웰니스관광 활동에 대하여 주변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4)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기가 용이하고, 자기 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수준으로 행동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울지에 대한 개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된다(Ajzen, 2001). Ajzen(1991)은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를 행동이론에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의 행동통제의 장애 또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동을 취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최은정, 2010).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장애가 적고 더 많은 기회가 인식되어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거나 어렵다고 가정하는 수준을 의미한다고도 한다(한덕용 · 이민규, 2001; 김명소 · 김금미 · 한영석, 2004).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통제성과 자아 효능감으로 구분된다. 통제성은 통제감 또는 지각된 통제로 불리며 기회, 시간과 같은 외적인 요소와 관련된 지각된 행동통제를 의미한다. 반면에 자아 효능감은 자신감 또는 지각된 어려움으로 표현되며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력, 기술과 같은 내적 요인과 관련된 지각된 행동통제를 의미한다(Taylor & Todd, 1995; Trafimow, Sheeran, Conner, & Finlay, 2002; Hagger & Chatzisarantis, 2005;

Taylor, 2007; Dunn et al., 2011).

이와 같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를 웰니스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5) 열망

열망은 개인이 특정 대상을 갈망하거나 어떠한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Taylor et al., 2005). 이러한 열망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인적 동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열망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Perugini & Bagozzi, 2004). 이러한 열망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동기 요소로 추가된 구성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Perugini & Bagozzi, 2001).

이와 같이 열망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있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 의사결정과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또한 열망은 기존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기적인 요인으로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이해된다(Perugini & Bagozzi, 2001; Kim, Yoon, & Kim, 2012; 한을경,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열망을 웰니스관광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의 동기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6)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한 뒤 이를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신념이자 의지라고 정의된다(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 Zeithaml, 2000). 이러한 행동의도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개발한 Ajzen(1991)은 연구를 통하여 행동의도는 신념이나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가능성이며, 개인의 태도와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주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특정 행동은 행동의 원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 행동의도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실현된다고 하며 이러한 행동의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라고 하였다(Ajzen, 2002).

이처럼 행동의도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식적인 결정 또는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동기의 수준으로 간주된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는 개인이 행동한다고 지각하는 계획의 강도를 말하며, 이러한 행동의도가 높을수록 행동의 실행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행동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만큼 충분한 변화 요인이 없는 경우 행동의도가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한다(Ajzen, 2002).

즉, 특정 행동을 하려는 개인의 의지나 신념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관련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계획적이고 확고한 행동의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행동의도 없이 하는 행위가 없음을 의미한다(Ajzen, 1991).

이러한 행동의도를 관광객에게 적용하면, 관광객이 특정 관광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관광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극을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광 활동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를 관광객의 행동의도라고 할 수 있다(Boulding, Kalra, Staelin, & Zeithaml, 1993).

즉 관광객은 어떠한 관광 경험으로 인하여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에 재방문, 불평, 추천과 같은 미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관광객의 신념 또는 의지를 행동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도는 그 연구 분야와 대상에 따라서 재방문 의도, 재구매 의사, 재이용의도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최규환·여호근, 2009; 오다빈, 2016). 관광객의 행동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관광객의 행동의도는 재방문 의도, 긍정적 추천, 방문 의사, 목적지 추천의사 등으로 구성이 된다(Bigne, Sanchez, & Sanchez, 2001; Wang & Hsu, 2010).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웰니스관광 활동 참여를 통하여 만들어진 개인의 태도나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웰니스관광에 대해 실행의지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연구 동향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열망이라는 매개요인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의 태도, 주관적 규범에서 행동의도로 바로 연결되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화된 행동모델에 대하여 수많은 선행연구가 실제 행동모델에서 선행요인이 열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검정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예상정서와 열망의 관계에 대하여 Bagozzi & Dholakia(2006)는 모터사이클 동호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모두 열망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ylor(2007) 역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독립적으로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요인인 예상정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추가된 독립변수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진경미·이형룡(2015)은 항공사 브랜드 앱에 대한 이용자 행동 연구에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모두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유근준(2014)은 제주 세계지질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의 의사 결정 과정에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관광객의 예상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지현·송정명·전익기(2013)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객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객의 태도, 예상정서,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안현균·최대혁(2015)은 연구를 통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태도 등 선행요인들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열망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유진·박진우(2015)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면세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이용하고자 하는 열망은 증가하고 자신의 주변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달할 경우 또한 열망이 증가한다고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패키지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양은주·남민정(2015)은 태도, 예상정서,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각된 행동 통제의 경우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검정하였다. 후츠(2016)는 음식관광에 대한 행동의도 연구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태도와 같은 선행요인이 열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재필·이충기(2016)는 스쿠버다이버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연구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및 부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현우(2018)는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영향을 주고 다시 열망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연구 중에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설명력을 기존 행동이론과 비교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충기 외(2017)는 승마체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할 경우 추정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14.2%, 계획된 행동이론의 경우 34.3%로 나왔으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할 경우 60.1%의 설명력이 확인되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행동모델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이와 함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조절변수를 적용하려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이옥선(2018)은 나 혼자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행동의도 연구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여행객의 행동의도를 설명하였고 더불어 조절초점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Han, Kim, & Lee(2018)는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여 열망과 행동의도 사이에 조절 변수로 문제인식, 정서적 몰입 등을 적용하여 행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정서적 몰입의 수준이 높을 때 열망의 매개효과가 최대화되는 것을 확인하여 정서적 몰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끝으로 Choi & Park(2017)은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룹을 설정하여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하고 비교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행동의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열망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행동이론의 설명력을 높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Bagozzi & Dholakia(2006)	모터사이클 동호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모두 열망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Taylor(2007)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독립적으로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함
강지현 외(2013)	스포츠 관광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관광객의 태도, 예상정서,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유근준(2014)	제주 세계지질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상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함
최유진·박진우(2015)	면세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이용하고자 하는 열망은 증가하고 주변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달할 경우 열망이 증가함을 확인함
진경미·이형룡(2015)	항공사 브랜드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모두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
안현균·최대혁(2015)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태도 등 선행요인들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열망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실증함
양은주·남민정(2015)	국내 패키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도, 예상정서,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후츠(2016)	음식관광에 대한 연구에서 태도와 같은 선행요인이 열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망이 행동의도에 영향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임재필·이충기(2016)	스쿠버다이버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이충기 외(2017)	승마체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추정결과 설명력이 60.1%로 다른 행동이론 보다 높은 점을 확인함
Choi & Park(2017)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적용에 성별에 따른 행동의도의 차이를 확인함
이옥선(2018)	나 혼자 여행의 행동연구에서 조절초점을 조절변수로 활용함
Han et al.(2018)	열망과 행동의도 사이에 정서적 몰입이 조절변수로서 조절효과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김현우(2018)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영향을 주고 다시 열망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출처: 연구자 재정리

3.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동이론들이 제시되고 보완되어 왔다. 특히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이러한 행동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론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들 행동이론 역시 기존의 행동이론을 보완·수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Perugini & Bagozzi, 2001; Zint, 2002). 이러한 행동이론은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우수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회구조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행동이론들의 효능에 대한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Taylor, Ishida, & Wallace, 2009; Han, Hsu, & Sheu, 2010; 윤설민·신창열·이충기, 2014).

특히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행동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 요인들 간의 관계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이론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Oh & Hsu, 2001). 이러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별 연구에 부합하는 개념 요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행동모델을 확장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즉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외부 변수를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모델들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된 행동이론을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E-MGB: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Perugini & Bagozzi, 2001).

이러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행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세부적인 추가 변수를 행동모델에 도입하여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보다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윤설민, 2014). 특히,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요인들을 발굴하여 추가함으로써 선행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최은정, 2010). 이러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적용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추가된 선행요인은 사전지식(동려민·강성규·이정자, 2013; 정지심·한희섭, 2015; 김희진·김인신, 2016; 신영송 외, 2018; 장원용·김진국, 2019), 지각된 가치(Song et al., 2012; 유주·노정희, 2016; 김성우, 2017), 서비스의

품질(양은주·조민호, 2015; 정희경·윤해진, 2016)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행동모델의 확장을 통하여 행동연구에 있어서 보다 설명력 높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관광 연구에 있어서도 관광객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광객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윤설민 외, 2014). 관광연구는 관광 목적, 관광 형태, 관광 목적지 등에 따라 다양한 관광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관광유형에 따라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의사결정과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 행동에 대한 연구는 관광객의 만족도와 방문의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임화순·남운섭, 2017), 세분화된 개별 관광유형에 대한 관광객 행동연구에는 관광유형에 맞는 확장된 행동모델을 활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김성우, 2017; 이승훈·박정숙, 2017; 양승탁 외, 2018; Lee, Lee, Han, Park & Lee, 2019; 윤준, 2020). 이에 최근 관광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웰니스관광에 대해서도 웰니스관광 체험자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행동이론을 적용하기보다 웰니스관광의 개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요인을 추가한 확장된 형태의 행동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웰니스관광이 가지고 있는 다른 관광 유형과 차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웰니스관광의 특성을 행동모델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복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핵심요인인 열망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회복과 관련된 지각요인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검증된 행동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행동모델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기본적인 연구모형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웰니스관광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회복환경지각을 추가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최종적인 연구모형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해서는 제3장 연구방법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4.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연구 동향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새로운 선행요인을 추가하여 행동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려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행동모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은 이러한 추가된 선행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추가 요인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장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의 구성 요인 중 태도, 열망, 행동의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행동모형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태도에 대하여 선행요인을 추가하여 행동모델을 확장한 연구는 남민정(2013)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행동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추가요인은 지각된 비용과 지각된 위험요인으로 모두 지각과 관련된 변수이며 태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연구모형이 제시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Park, Lee, & Peters(2017)은 인지된 혜택을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여 습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행동연구를 진행하였고, Song et al.(2014)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태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여 한방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미지를 태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연구모형은 Song et al.(2014)의 연구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승훈·박정숙(2017)의 문화관광 축제 참여자를 상대로 한 연구와 박재형 외(2019)의 등산 활동 참가자의 등산용품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기를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확장 모델도 있다. 고재윤·송학준·유은이(2014)는 구매동기를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추가하여 와인 구매에 대한 행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양승탁 외(2018)는 참여 동기를 활용하여 종교관광 참여자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또한 신영송 외(2018)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외식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 동기를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사전지식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Lee, Bruwer, & Song(2017)은 와인관광에 대한 연구에서 경험과 관광 참여를 태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처럼 체험이나 참여와 관련된 요소를 추가요인으로 제시한 연구는 김희진·김인신(2016)이 참여제약을 적용하여 컨벤션 참가자의 행동을 설명한 경우와 윤준(2020)의 마리나 요트 탑승객의 태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체험요인을 추가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태도에 대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추가된 선행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양은주·조민호(2015)는 미용관광에 참여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행동연구를 통하여 의료서비스품질과 관광서비스품질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기존 행동모델을 확장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서비스품질과 관광서비스품질 모

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정희경·윤해진(2016)의 연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희경·윤해진(2016)은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재구매 의도를 연구하며 서비스품질이 태도와 예상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서비스 품질이 태도와 예상정서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진옥·조한건(2020)은 슬로시티 관광객의 가치가 관광객의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슬로시티 관광객의 가치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행동모델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관광객의 가치가 슬로시티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상운(2021)은 저비용항공사 선택속성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국내 저비용항공사 승객의 항공사 선택속성, 열망, 행동의도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항공사 선택속성이 관광객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부정적 예상정서와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제시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확장을 시도한 연구와 함께 많은 연구가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추가요인을 제시하여 행동모델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경우 추가요인이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경우와 열망에만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행동의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동모형을 제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우선 열망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추가한 연구는 한을경(2014)의 레스토랑 소셜커머스의 상거래 요인과 사회적 상호교류 요인이 열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확장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한을경(2014)은 구체적으로 신뢰, 정보적 도움, 정서적 도움을 열망에 영향을 주는 추가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신뢰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eng & Choi(2016)는 진정성을 추가 요인으로 하여 확장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연구결과 느린 관광에 있어서 진정성은 열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행동의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가 요인을 제시한 경우는 유주·노정희(2016)가 중국인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윤설민(2014)이 메가이벤트 연구에서 애착심을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추가요인으로 제시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윤설민(2014)의 연구에서 애착심은 행동의도 뿐만 아니라 태도에서 영향을 주는 추가요인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애착심

은 태도와 행동의도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민환·이충기(2020)는 Covid-19에 대하여 Covid-19에 대한 정보가 여행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Covid-19 정보, 위험인식, 비약물조치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인식과 비약물적 조치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영향을 주는 추가요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제시되는 추가 요인으로는 사전지식(동려민 외, 2013; 정지심·한희섭, 2015; 장원용·김진국, 2019), 인식(Lee et al., 2012; Kim, Hart, Lee, & Kim, 2016; 이예진·윤지환, 2017; Lee et al., 2019), 지각된 가치(Song et al., 2012; 김성우, 2017) 등이 주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책임감 있는 도박 전략(Song, Lee, Norman, & Han, 2011), 온라인 구전(이은지·현성협, 2015), 관광비자 면제 기대(Song et al., 2017), 관여도(이지연·이숙영·김봉석, 2017), 학업적 자기효능감(최규환·여호근, 2018) 등이 있다.

동려민 외(2013)는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전지식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제시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사전지식은 열망과 행동의도 중에서 열망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심·한희섭(2015)은 명품구매에 있어서 사전지식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분석결과 사전지식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원용·김진국(2019)은 프로야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전지식이 관람객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전지식은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망과 행동의도에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중에는 개인의 인식과 관련된 추가요인을 제시하는 연구도 상당수 확인이 가능하다. 신종플루 확산시 관광객의 해외여행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한 Lee et al.(2012)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이러한 관광객의 행동을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인식과 신종플루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를 추가 요인으로 제시하여 열망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비약물적 중재만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6)은 기후변화가 잠재적인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객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중 매체 효과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여 행동모델을 확장하였다. 또한 이예진·윤지환(2017)은 공유숙박에 대한 연구에서 플랫폼 위험과 호스트 위험을 열망과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추가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에 따르면 호스트 위험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 미치고 플랫폼 위험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Lee et al.(2019)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인식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안전인식은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가치를 통하여 열망과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려는 연구도 있다. Song et al.(2012)은 보령머드축제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행동연구에서 환경문제 및 지각된 가치가 열망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고, 연구 결과 환경문제와 지각된 가치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관광 참여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김성우(2017)는 정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성된 지각된 가치를 활용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가치는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행요인이 행동모델 확장을 위해 활용되었는데, Song et al.(2011)은 도박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행동의도를 분석하며 책임감 있는 도박 전략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인 성형관광객에 대한 연구에서 이은지·현성협(2015)은 온라인 구전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2017)은 관광비자 면제에 대한 기대가 중국인 관광객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지연 외(2017)는 전시회 참관객에 대한 행동연구에서 전시회에 대한 관여도를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인으로 제시하여 행동모델을 확장하였고, 최규환·여호근(2018)은 관광분야 진로준비행동 융합모델 개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추가요인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경중·이철원·김민정(2021)은 Covid-19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Covid-19 상황에서 캠핑 참여의도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팬데믹

시대의 캠핑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Covid-19에 대한 위험지각을 목표지향적 행동 모델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추가된 요인인 위험지각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확장은 새로운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기도 하는데 임재필(2018)은 스쿠버 다이빙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행동연구에서 여가계약협상모형을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협상을 추가요인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확장하였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협상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하지 않고 열망과 행동의도의 매개변수로 협상을 추가한 점이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관광객에 있어서 협상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옥선·양소희(2022)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하여 나홀로 여행자의 행동의도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수정한다. 이러한 행동모델 수정은 일반적인 연구와 달리 새로운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 중 열망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된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를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여 행동모델을 수정한다. 이러한 행동모델의 수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주관적 규범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렇듯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확장 모델 구상에는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추가요인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여기에서 제시되는 추가요인이 영향을 주는 기존 요인도 특정 요인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하여 설정되고 있었다. 물론 기존 요인은 주로 태도, 열망, 행동의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예상정서를 영향을 받는 기존 요인으로 설정한 연구(정희경·윤해진, 2016)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존 요인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기존 요인에 추가 요인을 확장한 복합적인 요인 제시의 경우(신영송 외, 2018)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연구자가 파악한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연구모델의 수정과 확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추가되는 요인 및 확장되는 기존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2-9>, <표 2-10>, <표 2-11>과 같다.

〈표 2-9〉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태도 확장)

연구자	추가 요인	주요 내용
남민정(2013)	지각된 비용 지각된 위험요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퀵서비스 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연구에서 지각된 비용과 지각된 위험요인을 연구모형에 제시함
고재윤 외(2014)	구매 동기	와인구매동기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추가 요인으로 확장하였으며 구매 동기중 지식과 사교, 즐거움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Song et al.(2014)	이미지 인식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태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여 한방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행동을 설명함
양은주·조민호(2015)	서비스 품질	미용관광에 참여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품질과 관광서비스품질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 의료서비스품질과 관광서비스품질 모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Lee et al.(2017)	경험 관광 참여	와인관광에 대한 연구에서 경험과 관광 참여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이승훈·박정숙(2017)	이미지 일치	문화관광 축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미지 일치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
Park et al.(2017)	인지된 혜택	습지방문객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된 혜택을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함
양승탁 외(2018)	참여 동기	종교관광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동기 중 영성과 축원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박재형 외(2019)	브랜드 이미지	등산 활동 참가자의 등산용품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윤준(2020)	체험요소	마리나 요트 탑승객의 태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체험요인을 추가함
김진옥·조한건(2020)	관광객의 가치	관광객의 가치가 슬로시티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결정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안상윤(2021)	저비용항공사 선택속성	항공사 선택속성이 관광객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출처: 연구자 재정리

〈표 2-10〉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열망 및 행동의도 확장)

연구자	추가요인	확장요인	주요 내용
한을경(2014)	상거래 요인, 상호교류 요인	열망	레스토랑 소셜커머스의 연구에서 신뢰만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Meng & Choi(2016)	진정성		느린 관광에 있어서 진정성은 열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됨
유주·노정희(2016)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중국인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
고민환·이충기(2020)	Covid-19에 대한 정보		위험인식과 비약물적 조치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Song et al.(2011)	책임감 있는 도박 전략	열망, 행동의도	도박장 관광객 연구에서 책임감 있는 도박 전략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
Lee et al.(2012)	인식, 비약물적중재		신종플루 인식과 비약물적중재 중 비약물적중재만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
Song et al.(2012)	환경문제, 지각된 가치		보령머드축제 관광객에 대한 환경문제와 지각된 가치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동려민 외(2013)	사전지식		골프장 이용객 연구에서 사전지식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
정지심·한희섭(2015)	사전지식		명품구매에 있어서 사전지식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이은지·현성협(2015)	온라인 구전		중국인 성형관광객 연구에서 온라인 구전이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Kim et al.(2016)	대중매체효과, 기후변화인식		기후변화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대중매체 효과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행동모델을 확장함
Song et al.(2017)	비자면제기대		관광비자 면제에 대한 기대가 중국인 관광객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함
이지연 외(2017)	관여도		전시회 참관객 연구에서 전시회 관여도를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인으로 제시함
김성우(2017)	지각된 가치		해양관광에서 지각된 가치가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이예진·윤지환(2017)	플랫폼위험, 호스트위험	공유숙박연구에서 호스트위험은 열망에, 플랫폼 위험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최규환·여호근(2018)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	
장원용·김진국(2019)	사전지식	프로야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전지식이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	
Lee et al.(2019)	안전인식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객 연구에서 안전인식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함	
이경중 외(2021)	Covid-19 위험지각	위험지각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출처: 연구자 재정리

〈표 2-11〉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기타 확장)

연구자	추가요인	확장요인	주요 내용
윤설민(2014)	애착심	태도, 행동의도	메가이벤트 연구에서 애착심을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애착심은 태도와 행동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정희경 · 윤혜진(2016)	서비스 품질	태도, 예상정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재구매 의도를 연구하며 서비스품질이 태도와 예상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연구결과 서비스 품질이 태도와 예상정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김희진 · 김인신(2016)	참여 제약	태도	컨벤션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컨벤션 참여제약을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전지식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컨벤션 참여제약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사전지식이 열망과 행동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사전지식	열망, 행동의도	
임재필(2018)	협상 (매개변수 역할)	열망, 행동의도	스쿠버 다이빙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협상을 열망과 행동의도의 매개변수로 제시하여 행동모델을 확장하였으며 연구 결과 협상이 열망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신영송 외(2018)	이용동기	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한 외식정보 탐색 행동 연구에서 이용동기를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전지식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이용동기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사전지식이 열망과 행동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사전지식	열망, 행동의도	
이옥선 · 양소희(2022)	열망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인	행동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를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주관적 규범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출처: 연구자 재정리

제4절 생애주기

1. 생애주기이론

생애주기(Life Cycle)는 자연과학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가족생활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미혼, 결혼, 출산, 육아, 노후의 단계별 시간적 연속을 의미하는 개념이다(박혜경, 1984; 유영주, 1984). 이러한 생애주기는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 출산을 통하여 가족이 확대되고 발전하다가, 자녀의 결혼에 따른 분가로 인하여 가족이 축소되고, 그 이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 가족이라는 생애주기를 마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애주기는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라고도 한다(유영주, 1984; 이다은·서원석, 2017).

가족생애주기는 Rowntree(1903)가 개인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가족에도 주기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그 이후인 1930년대부터 비로소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 생애주기는 단계의 분류 기준이나 수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이 생겨나서 부부가 사망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다. 1960년대 사회적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전통적 형태의 생애주기 모형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Glick & Parke(1965)가 결혼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부 모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겪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구분 짓는 가족생애주기 단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전환점으로 하여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유력한 이론적 도구로 새로운 가족생애주기이론은 자리 잡게 되었다(이현송, 1996).

이러한 가족생애주기가 이론적 도구로 자리 잡게 된 이후 Wells & Gubar(1966)와 같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전통적인 형태의 생애주기 모형은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Glick & Parke(1965)는 가족 내에서 각 단계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추가하여 기존의 생애주기 기간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 후 Trost(1974)는 생애주기이론들이 무자녀 부부나 한부모 가구를 설명하기 힘들고 자녀의 나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여성의 역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Norton(1974)과 Glick(1977)은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의 출산 시기의 변화로 인하여 생애주기의 단계별 기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영하여 생애주기이론

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무자녀 가구, 미혼 가구, 한부모 가구 등 기존의 가족형태에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가족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형태의 가구구조에 전통적인 생애주기 모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Updating”, “Improving”, “Revising”, “Modernizing”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정된 형태의 가족생애주기 모형을 제시하였다(Glick, 1977; Murphy & Staples, 1979; Gilly & Enis, 1982; Bristor & Qualls, 1984).

이러한 수정된 모형은 현대적 생애주기 모형이라고 불려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대적 생애주기 모형에는 대표적으로 Murphy-Stapless(1979) 모형과 Gily-Enis(1982) 모형 두 가지가 있다. Murphy-Stapless(1979) 모형은 전통적인 생애주기와 유사하게 시간의 흐름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구 구조를 추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Gily-Enis(1982) 모형은 다양한 가구 형태와 시간의 흐름을 복합적 적용하여 생애주기 단계를 구성해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최홍철, 2014; 박혜련, 2020).

이러한 생애주기의 단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이 변동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기준은 자녀의 연령(Lansing & Morgan, 1955; Lansing & Kish, 1957; Rodgers, 1960), 자녀의 교육 상태(Kirkpatrick, Cowles, & Tough, 1934; Bigelow, 1942), 부모와 자녀의 연령(Wells & Gubar, 1966; Duvall, 1971) 등 다양하며 연구자에 따라 이러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3단계에서 24단계까지 생애주기 단계를 분류하고 있다(최홍철, 2014; 심재우·이호병, 2017; 김지혜·최현자·나종연, 2018; 박혜련, 2020)

2. 생애주기 단계 구분

생애주기의 구분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생애주기이론에서 구분하는 대표적인 생애주기 단계 구분은 생애주기이론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던 1930년대부터 살펴볼 수 있다. 연구 초기에는 생애주기를 가족구성원을 기준으로 하여 신혼부부, 한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 한명 이상의 독립한 자녀가 있는 부부, 노년부부로 구분하여 총 4단계의 생애주기를 제시한 경우(Sorokin, Zimmerman, & Galpin, 1931)와 자녀들의 교육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형성기, 출산 및 학령기전, 초등학교기, 중고등학교기,

대학생기, 복귀기, 은퇴기로 구분하여 총 7단계의 가족생애주기를 제시한 경우(Bigelow, 1942)가 있었다. Glick(1947)은 기존의 생애주기이론이 대부분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첫째 자녀와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7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부부의 결혼, 첫째자녀출산, 막내자녀출산, 첫째자녀결혼, 막내자녀결혼, 남편 또는 아내의 사망, 남아 있는 배우자의 사망이 그 구분이다.

이후 Lansing & Kish(1957)는 기존의 가족 연령 중심의 생애주기 구분을 비판하고 개인이 속한 생애주기 단계의 고려를 강조하며 9단계의 생애주기이론을 제시한다. 이는 독신전기, 무자녀 젊은 부부,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자녀가 있는 노년층 기혼가구, 자녀가 없는 노년층 기혼가구, 노년층 독신가구, 생애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그리고 기타 미확인으로 구분된다.

이어서 Wells & Gubar(1966)는 Full Nest와 Empty Nest 개념을 활용하여 고용상태와 가족 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를 9단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독신단계, 무자녀 신혼부부, 막내 자녀 6세 미만 가구(Full Nest I), 막내자녀가 6세 이상인 가구(Full Nest II), 미독립 자녀와 사는 중년 이상의 부부(Full Nest III),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은퇴전 부부(Empty Nest I), 자녀가 독립한 은퇴이후 부부(Empty Nest II), 은퇴전 독신, 은퇴이후의 독신 등이다.

Duvall(1971)은 가족생애주기 구분에 부모와 자녀의 연령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총 8단계로 생애주기를 구분하였다. Duvall(1971)의 구분은 독신단계, 무자녀 부부, 첫째 자녀 30개월 미만인 가구, 첫째 자녀 2.5세-6세인 가구, 첫째 자녀 6-13세 가구, 첫째 자녀 독립이후부터 막내자녀가 독립 전 가구, 막내자녀 독립이후부터 가구주 은퇴 전 가구, 은퇴이후부터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기까지의 가구로 나누어진다.

이후 연구자들은 생애주기이론을 연구 분야 및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는데 Murphy & Staples(1979)는 생애주기를 젊은 미혼가구, 자녀가 없는 젊은 기혼가구, 자녀가 있는 젊은 기혼가구, 자녀가 있는 중년 기혼가구, 부양자녀가 없는 중년 기혼가구, 노년의 기혼가구, 기혼이 아닌 노년가구로 구분하여 7단계 생애주기 구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소비생활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Wepfer, Brauchli, Jenny, Hämmig, & Bauer(2015)는 가족생애주기를 자녀가 없는 가구,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초등학교생자녀가 있는 가구, 1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동거 자녀가 없는 가구로 나누어 총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끝으로 Neuliger & Rado(2017)는 총 7단계로 생애주기를 구분하였다. 이는 자녀가 없는 미혼 혹은 기혼가구,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동거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노년가구, 자녀가 없는 중년가구,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65세 이상의 노년독신가구로 분류된다.

이러한 생애주기 단계 구분은 생애주기이론 초창기부터 진행되어온 연구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국내에서는 유영주(1984)가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유영주(1984)가 제시한 생애주기 구분은 형성기(결혼에서부터 첫 자녀 출산까지 약 1년간인 23세에서 24세까지), 자녀출산 및 양육기(첫 자녀 출산에서 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인 24세에서 30세까지), 자녀 교육기(첫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인 30세에서 42세까지), 자녀성년기(첫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직, 군입대, 가사에 협조하는 시기인 42세에서 48세까지) 자녀결혼기(첫 자녀 결혼부터 막내자녀 결혼까지인 48세에서 57세까지), 노년기(막내자녀 결혼이후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이 사망하는 시기인 57세 이후)로 나누어진다.

이와 함께 박혜경(1984)은 생애주기를 자녀의 교육상태, 결혼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총 7단계의 생애주기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자녀출산전 부부만의 가정, 첫 자녀가 유아이거나 미취학인 가정,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가정, 첫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 첫 자녀가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가정, 첫 자녀의 교육이 끝나고 아직 기혼자녀가 없는 가정, 첫 자녀의 교육이 끝나고 기혼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생애주기이론이 체계화됨에 따라 연구 분야와 목적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안종수(1995)는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생애주기를 미혼, 신혼기가정, 청년기가정, 장년기가정, 노년기가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5단계 가족생애주기를 제시하였다. 김민정·이희숙(2010)는 유영주(1984)의 구분을 수정하여 형성기, 자녀양육기, 초중고교육기, 대학교육기, 자녀독립기, 노년기로 총 6단계의 생애주기 단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계 재무구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진석·박성훈(2012)은 여가생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생애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구분은 맞벌이가구, 맞벌이 외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 50대 가구, 60대 가구로 나누어진다.

〈표 2-12〉 생애주기 단계 구분 해외 선행연구

연구자	단계 수	세부 구분
Sorokin et al.(1931)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 자녀가 한명 이상 독립 부부 - 한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 - 노년부부
Bigelow(1942)	7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기 - 초등학교기 - 대학생기 - 은퇴기 - 출산 및 학령기전 - 중고등학교기 - 복귀기
Glick(1947)	7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의 결혼 - 막내자녀출산 - 막내자녀결혼 - 남아 있는 배우자의 사망 - 첫째자녀출산 - 첫째자녀결혼 - 남편 또는 아내의 사망
Lansing & Kish(1957)	9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 전기 -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자녀가 있는 노년층 기혼가구 - 노년층 독신가구 - 기타 미확인부류 - 무자녀 젊은 부부 -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자녀가 없는 노년층 기혼가구 - 생애주기 상 분류되지 않는 가구
Wells & Gubar (1966)	9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단계 - 막내자녀 6세 미만(Full Nest I) - 미독립 자녀 부부(Full Nest III) - 자녀가 독립한 은퇴이후 부부 (Empty Nest II) - 은퇴이후의 독신 - 무자녀 신혼부부 - 막내자녀 6세 이상(Full Nest II) - 자녀가 독립한 부부 (Empty Nest I) - 은퇴전 독신
Duvall(1971)	8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 단계 - 첫째 자녀 30개월 미만의 부부 - 첫째 자녀 6-13세 가구 - 막내자녀 독립이후부터 가구주 은퇴까지의 중년가구 - 무자녀 부부 - 첫째 자녀가 6세 이하인 가구 - 막내자녀가 독립 전 가구 - 은퇴이후부터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기
Murphy & Staples(1979)	7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미혼가구 - 자녀가 있는 젊은 기혼가구 - 부양자녀가 없는 중년 기혼가구 - 기혼이 아닌 노년가구로 구분 - 자녀가 없는 젊은 기혼가구 - 자녀가 있는 중년 기혼가구 - 노년의 기혼가구
Wepfer et al. (2015)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없는 가구 - 초등학생자녀가 있는 가구 - 동거 자녀가 없는 가구 -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 1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Neuliger & Rado (2017)	7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없는 미혼 혹은 기혼가구 -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 동거자녀 없는 65세 이상 가구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65세 이상의 노년독신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 자녀가 없는 중년가구

출처: 연구자 재정리

이어서 장윤정(2015)은 생애주기를 독신가구,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초등학생자녀가 있는 가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부부가구 및 성인자녀가 있는 가구로 총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가족의 여가활동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였다.

조아라(2015)는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참여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생애주기를 가족생애주기와 독신생애주기로 구분하였으며 가족생애주기는 형성기, 확장기, 유지기, 수축기, 고령기, 초고령기, 한부모, 해체기로 구분하여 8단계로 가족생애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독신생애주기는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고령기로 나누어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및 사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황은애·황미진(2015)은 가족생애주기이론을 연구에 활용하였는데 이는 1인 독신가구, 다인 독신가구, 부부가족, 자녀학령전기, 자녀학령기, 자녀독립전기, 자녀독립기, 은퇴기로 총 8단계로 구분된 가족생애주기 단계를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소비생활 차이에 대하여 연구한 김영두(2018)는 가족생애주기를 7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은 독신기, 부부가족기, 자녀학령전기, 자녀학령기, 자녀독립전기, 자녀독립기 그리고 은퇴기로 구분된다.

장윤정·김홍렬(2017)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구 유형을 독신 가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학령아동이 있는 가구, 그리고 성인자녀가 있거나 독립한 가구로 4단계로 구분하고 거주 여가 환경과 여가이동 목적지 선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그리고 성인 자녀가 있거나 독립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여가를 위하여 주거지 이외의 지역으로 여가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손희주·남궁미(2018)는 주거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 연령에 따라 가족생애주기를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손희주·남궁미(2018)의 4단계 분류는 가구진입기, 가구형성 및 확대기, 가구축소기, 가구해체기로 구분된다.

이숙영(2020)은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청소년기,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내용, 강사, 지원, 제반서비스 등에서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송완구(2020)는 가족생애주기 관점에서 농어촌 민박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농어촌 민박 경험자를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5단계 구분은 자녀의 유무와 첫째 자녀의 재학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미혼신혼기, 미취학초등기, 중고등기, 대학기, 성년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 연구 결과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농어촌민박 이용경험, 이용의향 그리고 이미지와 선택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최근 연구에서 박혜련(2020)은 가족생애주기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무자녀미혼가구(자녀가 없는 미혼 가구), 자녀학령전기(만 0~5세의 동거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학령기(만 6~18세 이하의 동거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성인기(만 19세 이상의 동거자녀가 있는 가구), 부부가구 및 자녀독립기(동거자녀가 없는 부부가구 및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은퇴기 연령의 부부가구)로 나누어진다.

이윤경(2021)은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연령기준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현재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정책, 제도 등의 연령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기준은 12세 이하였고, 청년은 35세 이하, 노인은 70세 이상이었다. 여기서 청년의 연령기준은 청년기본법의 기준과 유사한 것이었으며, 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18세 미만)의 기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노인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65세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균섭·진은애(2022)는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선택이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생애주기 이론을 도입하여 생애주기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애주기 단계는 청년기, 중장년기, 고령기로 3단계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생애주기 단계별 구분을 통하여 주거선택요인과 같은 변수가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내에서 진행된 생애주기 단계구분은 생애주기이론이 적용되는 다양한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되고 변형되어 활용된 생애주기 단계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주요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생애주기 단계 구분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단계 수	세부 구분
유영주(1984)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기 - 자녀 교육기 - 자녀결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성년기 - 노년기
박혜경(1984)	7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출산전 부모만의 가정 -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가정 - 첫 자녀가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가정 - 첫 자녀의 교육이 끝나고 기혼자녀가 있는 가정 - 첫 자녀가 유아이거나 미취학인 가정 - 첫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 - 첫 자녀의 교육이 끝나고 아직 기혼자녀가 없는 가정
안중수(1995)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 - 청년기가정 - 노년기가정 - 신혼기가정 - 장년기가정
김민정·이희숙(2010)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기 - 초중고교육기 - 자녀독립기 - 자녀양육기 - 대학교육기 - 노년기
박진석·박성훈(2012)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가구 - 30대 가구 - 50대 가구 - 맞벌이 외 가구 - 40대 가구 - 60대 가구
장윤정(2015)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가구 - 초등학생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가구 및 성인자녀가 있는 가구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황은애·황미진(2015)	8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독신가구 - 부부가족 - 자녀학령기 - 자녀독립기 - 다인 독신가구 - 자녀학령전기 - 자녀독립전기 - 은퇴기
김영두(2018)	7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기 - 자녀학령전기 - 자녀독립전기 - 은퇴기 - 부부가족기 - 자녀학령기 - 자녀독립기
손희주·남궁미(2018)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진입기 - 가구축소기 - 가구형성 및 확대기 - 가구해체기
박혜련(2020)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자녀미혼가구 - 자녀학령기 - 부부가구 및 자녀독립기 - 자녀학령전기 - 자녀성인기
이숙영(2020)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 성인중기 - 성인전기 - 성인후기
송완구(2020)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신혼기 - 중고등기 - 성년기 - 미취학초등기 - 대학기
안균섭·진은애(2022)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 - 고령기 - 중장년기

출처: 연구자 재정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애주기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웰니스 관광 체험자에 대한 생애주기이론의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애주기 이론의 적용은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가족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형성된 집단 간에 웰니스관광 의사결정과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족생애주기는 가구의 유형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에 대한 관심사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관광에 대한 참여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애주기 이론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장윤정·김홍렬, 2017).

이러한 생애주기의 구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시대 및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는 전형적인 4인 가구 대신 1인 및 2인 가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령사회의 진전은 고령층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조아라, 2015). 이러한 생애주기에 대한 특성에 기반 하여 생애주기 단계의 구분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독신가구의 증가에 따라 독신가구를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조아라, 2015; 장윤정, 2015; 황은애·황미진, 2015). 즉 생애주기 단계 구분의 시작은 미혼가구와 기혼가구의 구분에서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의 구분에 따라 생애주기의 첫 단계는 미혼 독신 가구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기혼가구의 구분은 자녀의 유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기혼 가구 중 자녀가 없는 2인 가구가 증가하였으며(조아라, 2015), 이에 따라 기혼가구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박혜경, 1984; 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박혜련, 2020). 이에 따라 독신가구 이후로 고려해야 할 생애주기 단계는 자녀가 없는 기혼 가구로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혼의 유무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생애주기 단계는 이제 자녀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자녀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첫째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있음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박혜경, 1984; 장윤정, 2015; 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박혜련, 2020; 송완구, 2020). 특히 자녀의 학령기 구분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생애주기 단계가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자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은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자녀의 학령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장윤정, 2015), 이를 단순화하여 학령전기, 학령기로 단순화하여 구분하

는 경우도 있다(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또한 미취학초등기, 중등기, 대학기, 성년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송완구, 2020).

본 연구에서는 장운정(2015)과 송완구(2020)의 구분을 수정하여 미취학아동기와 초등학생의 경우를 하나의 단계로 구분하고 중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하나의 단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 단계를 나누었다. 즉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자녀의 학령기에 따라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와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구분하였다.

끝으로 생애주기 단계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년기 또는 은퇴기를 생애주기 단계의 마지막으로 설정하고 있다(유영주, 1984; 안종수, 1995; 김민정·이희숙, 2010; 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마지막 생애주기 단계의 구분은 은퇴의 유무에 따라 은퇴자로 생애주기를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에 대한 생애주기 이론의 적용을 위하여 본 연구는 생애주기 단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결혼유무, 자녀유무, 자녀의 학령기, 은퇴 유무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첫 단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독신자, 자녀가 없는 기혼자,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 중고등학생 자녀 또는 성인자녀가 있는 기혼자, 그리고 은퇴자이다. 이러한 구분은 본 연구가 웰니스관광 체험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임을 감안하여 구분 시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명시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기준은 박혜경(1984)을 참고하여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된 생애주기를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생애주기 단계 구분

생애주기 단계	세부 내용
독신자	20세 이상 성인 중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없는 기혼자	20세 이상 성인 중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	20세 이상 성인 중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으며 자녀 중 첫째가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인 경우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	20세 이상 성인 중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으며 자녀 중 첫째가 중고등학생 이거나 성인인 경우
은퇴자	20세 이상 성인 중 은퇴한 경우

제5절 시사점

지금까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본 웰니스관광, 회복환경지각,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생애주기이론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개념들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념들과 그 안의 이론 및 연구모형은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되고 검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이론들은 연구에 따라 다양한 다른 개념 및 이론들과 연계되기도 하며 그 폭을 넓혀왔다.

웰니스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된 웰니스관광의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 범위와 정의가 다양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지만(Vogit et al., 2010), 웰니스관광이 개인의 웰니스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광이라는 공통점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관광 목적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광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관광을 웰니스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웰니스 추구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회복환경지각은 의도적으로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향적 주의와 인지적 피로를 낮추기 위한 불수의적 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 주의회복 개념에 대한 고찰로부터 이해가 시작되는 개념이었다(Kaplan & Kaplan, 1989; Kaplan, 1995; Bell et al., 2001).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은 회복환경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조화성, 규모, 이해용이성, 넓이감 등의 주요 속성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회복환경지각을 활용한 연구들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이러한 속성요인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세부적인 회복환경 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회복환경 세부 속성으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이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행동이론으로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된 구성 요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위의도가 행동모델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존의 구성 요인에 열망,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과거행동 빈도, 과거행동의 최신성을 추가적인 변수로 포함시켜 개발한 행동모델이다(이옥선, 2018; 이충기 외, 2017; Perugini & Bagozzi, 2001).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선행요인과 행동의도 사이에

열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선행요인이 열망을 통하여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행동모델로서 이러한 점이 기존의 행동이론과의 가장 큰 차이로 생각할 수가 있다(송학준·이충기, 2010; 유근준, 2014). 여기에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개별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행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세부적인 추가 변수를 행동모델에 도입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수정·확장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보다 높은 설명력 보여주고 있다(윤설민, 2014).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 관광객의 관광 활동 참여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확인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추가적인 개념으로 회복환경지각을 포함시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수정·확장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생애주기는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가족생활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미혼, 결혼, 출산, 육아, 노후의 단계별 시간적 연속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유영주, 1984), 가족과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가족생애주기라고도 한다(이다은·서원석, 2017, 유영주, 1984). 이러한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와 함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단계구분을 탄생시켰다. 특히 여가 활동, 소비자 행동 등과 같은 개별 연구에서 연구 주제 및 환경에 맞게 생애주기 단계를 새로 구성하여 단계별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생애주기이론을 활용하고자 하며 가족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에 활용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우선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주요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연구되어 오던 주요 개념들, 웰니스관광, 회복환경지각,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생애주기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하나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확인한 주요 개념들의 의미상·개념상의 연계 가능성과 선행연구를 통한 확인된 실제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론들 간의 결합 및 확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보다 구체성 있는 연구모형 설정 및 측정변수 확인이 가능하였다.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행동연구에 있어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이었으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상황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은 연구모형이었다. 따라서 행동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상황에 맞게 행동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행동모델을 연구 주제와 상황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구체화에는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연구모형 및 측정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모형 및 이를 위한 측정변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및 연구모형에 대한 구체화를 도출해냈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조사 설계 및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을 추가요인으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생애주기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확인한 기존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의(Mueller & Kaufmann, 2001; Carrera & Bridges, 2006; Voigt et al., 2011)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을 ‘웰니스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웰니스 추구 활동’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행동이론으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사용되는 주요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열망, 행동의도이다. 여기서 태도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Bagozzi et al., 2002; Taylor, 2007; Hwang & Ok, 2012; 양은주,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웰니스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한 행위자의 지각 또는 이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의도로 볼 수가 있다(Bagozzi et al., 2002; 남민정·양은주,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웰니스관광 활동에 대하여 주변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의 신념’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예상정서는 열망에 미치는 정서요인을 의미하며 연구에서는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

정적 예상정서로 나누어 활용된다(Perugini & Bagozzi, 2001; Song & Lee, 2010; 양은주,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상정서를 ‘개인이 웰니스관광 활동에 앞서서 예상하게 되는 웰니스관광 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감정’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기가 용이하고, 자기 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수준으로 행동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울지에 대한 개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Ajzen, 2001; Taylor & Todd, 1995; Trafimow et al., 2002; Hagger & Chatzisarantis, 2005; Dunn et al., 2011; Taylor,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를 ‘웰니스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과거행동의 빈도는 대상 행동을 실행한 빈도를 의미한다(Perugini & Bagozzi, 2001; 송학준·이충기, 2010; 이예진,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행동의 빈도를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웰니스관광 횟수’로 조작적 정의하고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열망은 기존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기적인 요인으로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이다(Perugini & Bagozzi, 2001; Kim et al., 2012; 한을경,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망을 ‘웰니스관광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의 동기’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끝으로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는 의지를 의미하며, 행동연구에서는 재방문 의도, 추천의사, 재구매 의사, 재이용의도 등 다양하게 방식으로 활용되었다(Bigne et al., 2001; 최규환·여호근, 2009; Wang & Hsu, 2010; 오다빈,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웰니스관광 활동 참여를 통하여 만들어진 관광객의 태도나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웰니스관광에 대해 실행의지’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별 구성요인의 측정 척도를 추출하였다(Perugini & Bagozzi, 2001; 최규환·여호근, 2009; 송학준·이충기, 2010; Kim et al., 2012; 양은주, 2014; 한을경, 2014; 오다빈, 2016; 이예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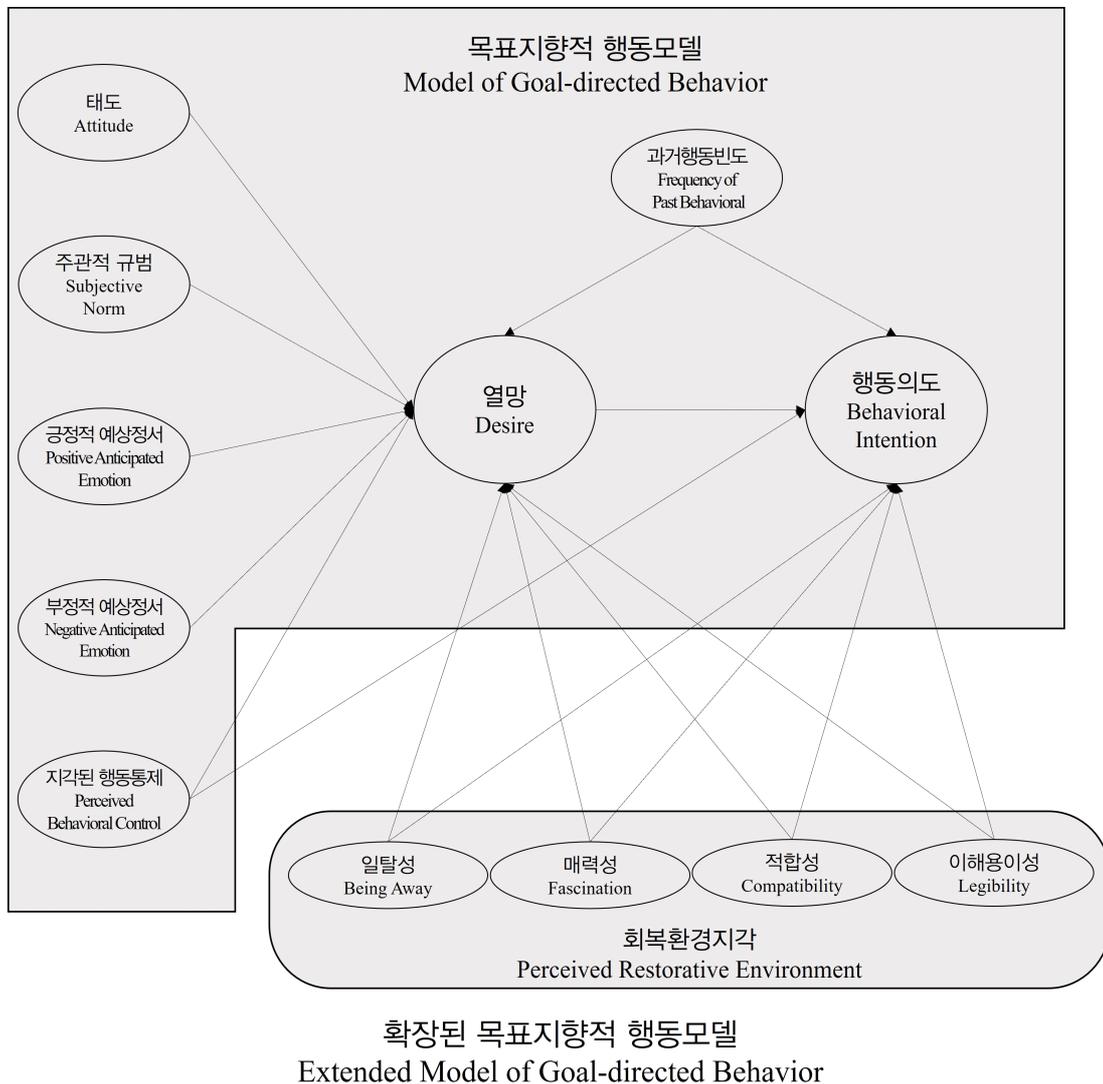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 관광지에서의 회복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회복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회복환경지각 척도(Purcell et al., 2001; 이승훈·현명호, 2003; Ivarsson & Hagerhall, 2008; Korpela et al., 2010; 유윤희 외, 2013)를 활용했으며, 회복환경 지각을 ‘웰니스 관광지 환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회복환경’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회복경험척도를 추출하였다(김진옥, 2018; Kaplan et al., 1993; Korpela et al., 2014; Korpela et al., 2008; Korpela & Ylén, 2009; Ouellette,

Kaplan, & Kaplan, 2005).

끝으로 생애주기이론에 따라 웰니스 관광객의 가족 생애주기를 20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 자녀가 없는 기혼자,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자,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 그리고 은퇴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된 가족 생애주기에 따라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회복환경지각이 주는 영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은 크게 웰니스 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에 대한 가설,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 그리고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차이검정에 대한 가설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 설정 중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회복환경지각에 대한 가설은 대가설을 설정하고 세부 요인에 대한 세부 가설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 중 선행요인으로 구분되는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의 빈도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설정한 가설이다. Perugini & Bagozzi(2001)가 제시하였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따라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가설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다.

H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대가설에 대하여 세부 구성요인의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태도는 열망에 의해 행동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송학준·이충기, 2010; 이예진·윤지환, 2017; Bagozzi & Dholakia, 2006; Perugini & Bagozzi, 2004). 이은지·현성협(2015)은 중국인 성형관광객의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태도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Song et al.(2014)은 한방 축제 방문자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태도는 축제 방문자의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정지심·한희섭(2015)은 관광객의 명품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태도가 구매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태도를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태도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어서 주관적 규범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관적 규범은 Ajzen & Fishbein(1980)의 설명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태도에 대한 인식으로 행동의도가 강해지는 요인이다. 이러한 주관적 규범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을 통하여 행동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설정되어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동려민 외(2013)는 퍼블릭 골프장 이용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이 골프장 이용객의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송학준·이충기(2010)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지심·한희섭(2015)은 관광객의 명품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주관적 규범이 구매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주관적 규범을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2 주관적 규범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기존의 행동이론이 감정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감정요인인 예상정서를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Perugini & Bagozzi, 2001). 이러한 예상정서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이다.

이러한 예상정서와 관련하여 양승탁 외(2018)는 종교관광객의 동기와 행동구조를 분석하여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은지·현성협(2015)은 중국인 성형관광객의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정하였으며, 이예진·윤지환

(2017)은 공유숙박 잠재적 이용자의 행동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를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3 긍정적 예상정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부정적 예상정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행동을 위한 자원과 기회가 있을 때 생기는 능력을 의미한다(Ajzen, 1991; Zint, 2002).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Carrus et al., 2008;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양승탁 외(2018)는 종교관광객의 동기와 행동구조를 분석하며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ee et al.(2017)은 와인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승훈·박정숙(2017)은 문화관광 축제 방문객의 행동의도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지각된 행동통제를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5 지각된 행동통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지각된 행동통제는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행동에 대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과거행동의 빈도와 과거행동의 최신성이 있으며 이중 과거행동의 빈도는 비교적 긴 시간으로 1년 정도의 시간동안 이루어진 행동의 횟수를 나타내며, 이러한 과거행동의 빈도는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인으로 설명되어 진다(Leone et al., 2004).

이러한 과거행동의 빈도와 관련하여 정지심·한희섭(2015)은 관광객의 명품구매 의사결

정과정에서 과거행동의 빈도가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려민 외(2013)는 퍼블릭 골프장 이용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과거행동의 빈도가 골프장 이용객의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과거행동 빈도를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7 과거행동의 빈도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8 과거행동의 빈도는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에 대한 가설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확장을 위하여 추가로 설정된 요인에 대한 가설이다. 회복환경지각은 회복환경 내에서 인간이 지각하는 감각 경험을 세부적으로 이론화 하고 구체화하는 주의회복이론에 기반하고 있다(Kaplan, 1995).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은 주의회복의 세부속성을 척도화 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을 추가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H2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대가설에 대하여 세부 구성요인의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 일탈성은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자연과 같은 회복환경 내에서 지각하게 되는 감정이다. 이러한 일탈성은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일상의 환경과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Kaplan et al., 1993; Korpela & Hartig, 1996;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특히 Kaplan(1995)은 일탈성을 설명하며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지각되는 일탈성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느끼는 일탈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탈성에 대하여 반서연 외(2022)는 자전거 여행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탈성이 인지적 치유효과와 정서적 치유효과를 통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송이(2020)는 도보관광객의 도보관광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탈성이 회복경험을 통하여 도보관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 중 일탈성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1-1 일탈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2 일탈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 매력성은 회복환경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의미하며 회복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긍정적인 감각을 주는 공간에 대한 속성을 의미한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매력성과 관련하여 한장현(2019)은 아쿠아리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회복환경지각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매력성이 주관적 웰빙을 매개로 하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hen(2021)은 중국 산수 실경공연을 관람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이 공연의 몰입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매력성이 작품 평가 및 몰입을 매개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 중 매력성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2-1 매력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2 매력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 적합성은 회복환경에서 주어진 기회 또는 행동에 대한 제약이 개인의 성향이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의미하는 속성으로서, 특정한 공간을 회복환경으로 설정하고 해당 공간에서 회복환경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아질수록 적합성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매력성과 관련하여 한장현(2019)은 아쿠아리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회복환경지각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적합성이 주관적 웰빙을 매개로 하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서연 외(2022)는 자전거 여행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적합성이 사회적 치유효과, 인지적 치유효과 및 정서적 치유효과를 통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 중 적합성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3-1 적합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2 적합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 이해용이성은 조화성을 측정해주는 요인으로서 회복환경에서 물리적인 요소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넓이감, 조화성, 규모를 보완하고자 제시된 속성이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이러한 이해용이성에 대하여 김송이(2020)는 도보관광객의 도보관광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해용이성이 회복경험을 통하여 도보관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 중 이해용이성을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4-1 이해용이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2 이해용이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열망과 행동의도의 관계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은 추가 요인으로 인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행동모델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이다. 이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인 열망과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로서, 앞서 설정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가설과 확장된 추가 요인인 회복환경지각과 관련된 가설을 바탕으로 열망이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은 행동의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Carrus et al., 2008;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이러한 열망은 동기가 부여된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평가와 이유가 동기로 변환된 것으로 정의되며,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요인과 행동의도 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Perugini & Bagozzi, 2001).

이러한 열망과 행동의도의 관계에 대하여 윤설민(2014)은 지역주민의 메가이벤트 방문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열망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희진·김인신(2016)은 컨벤션 참가자의 참여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열망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안상윤(2021)은 저비용항공사 승객의 항공사 선택 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열망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진옥·조한건(2020)은 슬로시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재방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열망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고민환·이충기(2020)는 Covid-19에 대한 정보와 여행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열망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웰니스관광에 대한 참여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차이

연구모형에 대한 생애주기별 차이분석에 대한 가설은 지금까지 설정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자체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에 대하여 생애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생애주기 단계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설정된 가설이다.

생애주기이론은 자연과학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가족생활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미혼, 결혼, 출산, 육아, 노후의 단계별 시간적 연속을 의미하는 개념이다(박혜경, 1984; 유영주, 1984). 이러한 생애주기 단계를 활용하여 단계별 차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생애주기 단계를 바탕으로 장운정·김홍렬(2017)은 거주 여가 환경과 여가이동 목적지 선택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여가이동 목적지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애주기 단계는 4단계로 구분되어서 비교되었다. 이숙영(2020)은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단계를 청소년기,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을 통한 연구결과에서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내용, 강사, 지원, 제반서비스 등에서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애주기이론을 적용하여 송완구(2020)는 가족생애주기 관점에서 농어촌 민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애주기 단계는 농어촌 민박 경험자를 대상으로 총 5단계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른 연구 결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농어촌민박 이용경험, 이용의향 그리고 이미지와 선택속성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박혜련(2020)은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생애주기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무자녀미혼가구(자녀가 없는 미혼 가구), 자녀학령전기(만 0~5세의 동거 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학령기(만 6~18세 이하의 동거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성인기(만 19세 이상의 동거자녀가 있는 가구), 부부가구 및 자녀독립기(동거자녀가 없는 부부가구 및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은퇴기 연령의 부부가구)로 나누어진다. 연구결과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안균섭·진은애(2022)는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선택이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생애주기 단계를 청년기, 중장년기, 고령기로 3단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주거선택 요인과 같은 변수가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이론에 따라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5단계 생애주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차이검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의 차이를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이 각각 어떻게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웰니스관광 체험자는 생애주기 단계별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2절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기반 마련 및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데이터 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한 1차 데이터 획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측정척도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자가 스스로 설문지를 이해하고 해당하는 항목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다음 항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이며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웰니스관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인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보다 정확한 표본 수집을 위하여 조사대상 일반인의 국적은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연령도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조사 대상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본 조사 이전에 진행한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문지상의 오류나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렇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진행된 예비조사는 2022년 8월 8일부터 2022년 8월 10일 까지 총 3일간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을 통하여 수집된 30개의 예비표본을 검토·분석하여 설문내용 및 설문지 형식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본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조건에 맞는 조사 대상자가 설문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하는 항목에 온라인을 통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진 본 조사는 2022년 8월 16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을 거쳐 수집된 표본은 총 430개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2개의 표본을 제외하고 총 428개의 표본을 확보하여 이를 최종 연구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조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조사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목적	웰니스관광 참가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실증분석 자료수집
조사 대상	제주도에서 웰니스관광을 경험한 적이 있는 20세 이상 내국인
조사 기간	예비조사: 2022.08.08 ~ 08.10(총 3일간) 본 조사: 2020.08.16 ~ 08.20(총 5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 예비조사: 오프라인 현장 조사 - 본 조사: 온라인 조사
수집 표본	예비조사: 30개 본 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430개의 표본 중 2개를 제외한 총 428개의 표본 수집

2. 측정척도

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구성요인

본 연구에 사용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열망, 행동의도이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요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측정척도가 구성되었다.

태도의 측정척도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웰니스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감정의 상태'를 바탕으로, Taylor(2007), Dunn et al.(2011), Hwang & Ok(2012), Han et al.(2010), 김민수·한진욱(2012), 양은주(2014), 고재윤 외(2014), 윤설민(2014), 이예진·윤지환(2017), 이충기 외(2017), 이후석(2019)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의 측정척도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웰니스관광 활동에 대하여 주변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의 신념'에 기반 하여, Verlegh & Candel(1999), Shin & Kim(2008), Dunn et al.,(2011), 남민정(2013), 양은주(2014), 한을경(2014), 이충기 외(2017), 이후석(2019)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상정서의 측정척도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개인이 웰니스관광 활동에 앞서서 예상하게 되는 웰니스관광 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Bagozzi & Lee(1999), Perugini & Bagozzi(2001), Leone et al.(2004), Bagozzi & Dholakia(2006), Taylor(2007), 양은주·조민호(2015), 유근준(2014), 진경미·이형룡(2015)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의 측정척도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웰니스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개인의 신념'의 의미에 따라, Perugini & Bagozzi(2001), Trafimow et al.(2002), Hagger & Chatzisarantis(2005), Dunn et al.(2011), Taylor(2007), 한을경(2014), 정지심·한희섭(2015)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과거행동 빈도의 측정척도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웰니스관광 횟수'에 따라 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등간척도(① 0회, ② 1회~2회, ③ 3회~4회, ④ 5회~6회, ⑤ 7회 이상)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열망의 측정척도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웰니스관광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의 동기를 바탕으로, Taylor et al.(2005), Perugini & Bagozzi(2001), Perugini & Bagozzi(2004), Davis(1984), 한을경(2014)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행동의도의 측정척도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웰니스관광 활동 참여를 통하여 만들어진 관광객의 태도나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웰니스관광에 대해 실행의지'에 따라, Engel, Blackwell, & Miniard(2000), Zeithaml et al.(1996), Ajzen & Fishbein(1975), Zeithaml(2000), 박은숙·이재섭(2011), 김희정·김시중(2012), 곽춘려·이희승(2013), 이선경·윤세남(2014)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측정척도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측정 항목

구성	측정 항목	선행연구	척도	
태도 ATT	att_1	웰니스관광은 기분 좋다.	Ajzen & Fishbein(1975), Davis(1984), Zeithaml et al.(1996), Verlegh & Candel(1999), Bagozzi & Lee(1999), Engle et al.(2000), Zeithaml(2000), Perugini & Bagozzi(2001), Trafimow et al.(2002), Leone et al.(2004), Perugini & Bagozzi(2004), Hagger & Chatzisarantis(2005), Taylor et al.(2005), Bagozzi & Dholakia(2006), Taylor(2007), Shin & Kim(2008), Dunn et al.(2011), Hwang & Ok(2012), Han et al.(2016), 박은숙·이재섭(2011), 김민수·한진욱(2012), 김희정·김시중(2012), 광춘려·이희승(2013), 남민정(2013), 양은주(2014), 한을경(2014), 고재윤 외(2014), 윤철민(2014), 이선경·윤세남(2014), 양은주·조민호(2014), 유근준(2014), 진경미·이형룡(2015), 정지심·한희선(2015), 김성우(2016), 이예진·윤지환(2017), 이충기 외(2017), 주종현·윤미라(2017), 이후석(2019), 윤준(2020)	리커트 5점 척도
	att_2	웰니스관광은 흥미롭다.		
	att_3	웰니스관광은 즐겁다.		
	att_4	웰니스관광은 유익하다.		
	att_5	웰니스관광에 대해 긍정적이다.		
주관적 규범 SN	sn_1	내가 웰니스관광을 가면 주변에서 나를 이해할 것이다.		
	sn_2	내가 웰니스관광을 계획할 때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sn_3	주변사람들은 나를 위해 나에게 웰니스관광을 권유할 것이다.		
예상정서 AE	pae_1	웰니스관광을 하면 기쁠 것이다.		
	pae_2	웰니스관광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pae_3	웰니스관광을 하면 만족할 것이다.		
	nae_1	웰니스관광을 못하면 슬플 것이다.		
	nae_2	웰니스관광을 못하면 불행할 것이다.		
	nae_3	웰니스관광을 못하면 실망할 것이다.		
목표 지향적 행동 모델	pb_1	웰니스관광을 할지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다.		
	지각된 행동 통제 PBC	pb_2	언제든 웰니스관광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pb_3	웰니스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pb_4	웰니스관광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열망 DES	des_1	가까운 미래에 웰니스관광을 하고 싶다.		
	des_2	가까운 미래에 웰니스관광 하는 것을 희망한다.		
	des_3	가까운 미래에 웰니스관광 하는 것을 매우 열망한다.		
행동 의도 INT	int_1	웰니스관광을 다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int_2	계속적으로 웰니스관광을 할 것이다.		
	int_3	주변사람에게 웰니스관광을 긍정적으로 말 할 것이다.		
과거행동 빈도 FPB	fpb	지난 1년간 웰니스관광을 총 몇 회 하셨습니까.	등간 척도	

2)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웰니스관광 체험자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회복이론의 회복환경지각을 추가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은 속성요인을 통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회복환경지각에 활용되어온 대표적인 속성요인은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조화성, 규모, 이해용이성, 넓이감이며 이러한 속성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자별 속성요인 활용 내용은 <표 2-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복환경지각에 대하여 본 연구는 ‘웰니스 관광지 환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회복환경’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또한 7가지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 중에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을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으로 정하였다. 이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의 경우 회복환경을 설명하는 고유의 특성이 있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이어서 본 연구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해용이성의 경우 다른 유사한 속성인 규모, 넓이감, 조화성이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 속성이 다른 유사한 속성들을 포괄하고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용이성을 본 연구의 세부 속성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측정 항목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Kaplan et al.(1993), Korpela & Hartig(1996), Purcell et al.(2001), Korpela et al.(2010), Ouellette et al.(2005), Ivarsson & Hagerhall(2008), Rosenbaum(2009), Korpela et al.(2008), Korpela & Ylén(2009), Korpela et al.(2014), Pasini et al.(2014), Nordh et al.(2017), 이승훈·현명호(2003), 유윤희 외(2013), 권현숙 외(2017), 이혜린·이훈(2018), 한장현(2019), 김송이(2020)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과 관련된 14개의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개별 측정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에 대한 측정척도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회복환경지각 관련 측정 항목

구성	측정 항목	선행연구	척도	
회복환경지각 PRE	pre_1	웰니스 관광지에 있으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		리커트 5점 척도
	pre_2	웰니스 관광지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잊고 어디론가 떠난 기분이 든다.		
	pre_3	웰니스 관광지는 일상에서 지친 머리를 쉬게 한다.		
	pre_4	웰니스 관광지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Kaplan et al.(1993), Korpela & Hartig(1996), Purcellet al.(2001), Korpela et al.(2001), Ouellette et al.(2005), Ivarsson & Hagerhall(2008), Rosenbaum(2009), Korpela et al.(2008), Korpela & Ylén(2009), Korpela et al.(2014), Pasini et al.(2014), Nordh et al.(2017), 이승훈·현명호(2003), 이승훈(2011), 유윤희 외(2013), 권현숙 외(2017), 김진옥·이충기(2017), 김진옥(2018), 이해린·이훈(2018), 한장현(2019), 김송이(2020)	
	pre_5	웰니스 관광지는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pre_6	웰니스 관광지는 탐색하고 발견하고 싶은 것이 많다.		
	pre_7	웰니스 관광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pre_8	웰니스 관광지에 있는 것은 내 성격이나 취향에 맞다.		
	pre_9	웰니스 관광지에 있으면 이곳과 하나가 되는 기분이다.		
	pre_10	웰니스 관광지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pre_11	웰니스 관광지에서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pre_12	웰니스 관광지는 길 찾기가 쉽다.		
	pre_13	웰니스 관광지는 구성이 알기 쉽게 되어있다.		
	pre_14	웰니스 관광지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실증 분석에 사용되는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요 개념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회복환경지각에 대한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세부 구성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해서는 구성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열망, 행동의도가 확인되었으며 회복환경지각에서는 속성요인으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인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9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한 항목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구성요인 6개 항목과 회복환경지각 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 7개의 구성요인이 있으나 과거행동 빈도 항목은 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일반사항 항목에 포함시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회복환경지각의 경우 속성요인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과 관련된 7개 항목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설문지에서 2번부터 8번까지에 배치가 되었다.

이어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 참여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사항에 관한 항목이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설문지 1번에 배치되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인 과거행동 빈도 항목이 함께 포함되었다. 이러한 과거행동 빈도 문항 외에 일반사항에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관광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동반자, 동행인 수에 대한 문항이 명목척도로 측정될 수 있도록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설문지의 마지막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항목 7개가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직업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목척도로 설문문항이 작성되어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총 9개의 항목 5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설문지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설문지 구성

구성개념	문항수	설문 문항	선행 연구	측정방법	
목표 지향적 행동 모델	태도 ATT	5	2-1 ~ 2-5	Ajzen & Fishbein(1975), Davis(1984), Zeithaml et al.(1996), Verlegh & Candel(1999), Bagozzi & Lee(1999), Engle et al.(2000), Zeithaml(2000), Perugini & Bagozzi(2001), Trafimow et al.(2002), Leone et al.(2004), Perugini & Bagozzi(2004), Hagger & Chatzisarantis(2005), Taylor et al.(2005), Bagozzi & Dholakia(2006), Taylor(2007), Shin & Kim(2008), Dunn et al.(2011), Hwang & Ok(2012), Han et al.(2016), 박은숙·이재섭(2011), 김민수·한진욱(2012), 김희정·김시중(2012), 광춘려·이희승(2013), 남민정(2013), 양은주(2014), 한을경(2014), 고재운 외(2014), 윤설민(2014), 이선경·윤세남(2014), 양은주·조민호(2014), 유근준(2014), 진경미·이형룡(2015), 정지심·한희선(2015), 김성우(2016), 이예진·윤지환(2017), 이충기 외(2017), 이후석(2019), 윤준(2020)	리커트 5점 척도
	주관적 규범 SN	3	3-1 ~ 3-3		
	예상정서 AE	6	4-1 ~ 4-6		
	지각된 행동통제 PBC	4	5-1 ~ 5-4		
	열망 DES	3	6-1 ~ 6-3		
	행동의도 INT	3	7-1 ~ 7-3		
회복환경지각 PRE	14	8-1 ~ 8-14	Kaplan et al.(1993), Korpela & Hartig(1996), Purcellet al.(2001), Korpela et al.(2010), Ouellette et al.(2005), Ivarsson & Hagerhall(2008), Rosenbaum(2009), Korpela et al.(2008), Korpela & Ylén(2009), Korpela et al.(2014), Pasini et al.(2014), Nordh et al.(2017), 이승훈·현명호(2003), 유윤희 외(2013), 권현숙 외(2017), 김진욱·이충기(2017), 김진욱(2018), 이혜린·이훈(2018), 한장현(2019), 김송이(2020)		
일반사항	3	1-1 ~ 1-3	-	명목적도 등간척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7	9-1 ~ 9-7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에 대한 실증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와 SmartPLS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술적 통계로서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고 표본의 웰니스관광 참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적합도분석(model f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표본 및 연구모형에 대한 검정을 마치고 가설 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통하여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끝으로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계수 쌍대비교를 통한 순열검정(permut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분석도구를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분석도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	SPSS 24
표본의 웰니스관광 참여 형태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	SPSS 24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PSS 24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	SPSS 24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martPLS 4
구조모형의 타당성 검증	모델적합도분석 model fit analysis	SmartPLS 4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martPLS 4
생애주기 단계별 차이 검증	경로계수 순열검정 permutation test	SmartPLS 4

제4장 실증 분석

제1절 표본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85명(43.2%), 여성 243명(56.8%)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3%정도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은 108명(25.2%)이었고, 기혼은 320명(74.8%)이었다. 상대적으로 20대 이상의 관광활동 소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이어서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혼자 중에서는 자녀 없음이 89명(20.8%) 미성년 자녀 있음이 95명(22.2%) 성년 자녀 있음이 136명(31.8%)이었다. 이는 가족생애주기 단계구분을 위하여 자녀에 관한 사항을 설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성인자녀를 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48명(11.2%), 30대가 128명(29.9%), 40대가 105명(24.5%), 50대가 40명(9.3%), 60대 이상이 107명(25.1%)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상대적으로 50대와 20대의 숫자가 낮게 나타났으며 30대의 숫자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은퇴자가 다수 포함되어 60대 이상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어서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0명(7.0%), 전문대학 재학/졸업이 48명(11.2%), 대학교 재학/졸업이 273명(63.8%), 대학원 재학/졸업이 77명(18.0%)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졸업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무직이 156명(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은퇴자의 숫자가 106명(24.8%)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가 125명(2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117명(2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웰니스관광에 주로 참여하는 관광객의 특성은 기혼인 30대 사무직 회사원으로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인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85	43.2
	여성	243	56.8
연령	20대	48	11.2
	30대	128	29.9
	40대	105	24.5
	50대	40	9.3
	60대 이상	107	25.1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	미혼	108	25.2
	기혼(자녀 없음)	89	20.8
	기혼(자녀 있음/미성년 자녀)	95	22.2
	기혼(자녀 있음/성년 자녀)	136	31.8
직업	학생	11	2.6
	주부	43	10.0
	사무직	156	36.4
	생산/기술직	15	3.5
	판매/서비스직	23	5.4
	교육/연구직	24	5.6
	전문직	28	6.5
	무직(은퇴)	106	24.8
	기타(농수산업/자영업/무직 등)	22	5.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7.0
	전문대학 재학/졸업	48	11.2
	대학교 재학/졸업	273	63.8
	대학원 재학/졸업	77	18.0
소득 수준 (월, 가구 기준)	200만원 미만	27	6.3
	200만원 ~ 400만원 미만	117	27.3
	400만원 ~ 600만원 미만	125	29.2
	600만원 ~ 800만원 미만	91	21.3
	800만원 ~ 1000만원 미만	42	9.8
	1,000만원 이상	26	6.1

2. 웰니스관광 참여 특성

웰니스관광에 대한 참여 특성은 <표 4-2>와 같다. 가장 최근 참여한 웰니스관광을 기준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웰니스관광 참여 특성은 우선 동반자의 유형에서 혼자 15명(3.5%), 가족이나 친척과 간 경우가 292명(68.2%), 연인과 함께한 경우가 35명(8.2%), 친구나 동료와 함께한 경우가 78명(18.2%), 동호회와 같은 모임에서 간 경우가 7명(1.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웰니스관광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함께 웰니스관광에 참여한 인원수의 경우는 혼자서 참여한 경우가 15명(3.5%), 2명이 173명(40.4%), 3명이 93명(21.7%), 4명이 76명(17.8%), 5명 이상이 71명(16.6%)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근 1년간 웰니스관광 경험횟수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최근 1년간에는 간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8명(13.6%), 1회에서 2회라고 답한 경우가 227명(53.0%), 3회에서 4회라고 답한 경우가 104명(24.3%), 5회에서 6회라고 답한 경우가 21명(4.9%), 7회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18명(4.2%)으로 나타났다.

<표 4-2> 웰니스관광 참여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동반자 유형	혼자	15	3.5
	가족/친척	292	68.2
	연인	35	8.2
	친구/동료	78	18.2
	모임(동호회, 종교 활동 등)	7	1.6
	기타	1	0.2
참여 인원수	1명	15	3.5
	2명	173	40.4
	3명	93	21.7
	4명	76	17.8
	5명 이상	71	16.6
최근 횟수(1년 이내)	0회(지난 1년간은 없음)	58	13.6
	1회 ~ 2회	227	53.0
	3회 ~ 4회	104	24.3
	5회 ~ 6회	21	4.9
	7회 이상	18	4.2

제2절 측정척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측정척도에 대한 검정으로 개별 요인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측정척도의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검정하였으며,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주성분 분석과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분석 기준은 KMO(Kaiser-Meyer-Olkin), 구형성(sphericity), 공통성(communality),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을 적용하여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신뢰도 분석에서는 개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들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α)을 활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측정척도의 평가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 7가지 중 단일 측정항목으로 구성된 과거행동 빈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요인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에 대하여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4가지 속성요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는 종합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서 측정항목 검정에 활용되는 각종 측정값은 <표 4-3>과 같은 임계치 범위를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4-3>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임계치 범위

구분	KMO Kaiser-Meyer-Olkin	구형성 sphericity	공통성 Communality	요인적재값 Factor loading	신뢰도 Cronbach' α
임계치	$\geq .50$	$p < .05$	$\geq .40$	$\geq .40$	$\geq .60$

출처: 이충기(2017)

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구성요인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에 대한 측정변수는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Perugini & Bagozzi, 2004; Taylor, 2007; Han et al., 2010; 남민정, 2013; 양은주, 2014; 한을경, 2014; 윤설민, 2014; 유근준, 2014; 김성우, 2016; 이후석, 2019; 윤준, 2020)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도출하였다. 이러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 중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변수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성과 요인적재값이 0.4 이하인 변수들을 제거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측정변수가 독립변수에 맞게 구분되었으며 공통성과 요인적재값이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지각된 행동통제의 측정변수 2개가 제거되었다.

이어서 독립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독립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0.696에서 0.869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독립변수들의 크론바하 알파값의 기준치인 0.6을 상회하는 수치로서 독립변수들의 신뢰도가 모두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매개변수인 열망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측정변수들의 공통성과 요인적재값이 모두 기준치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신뢰도에서도 크론바하 알파값이 0.880으로 확인되어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행동의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측정변수들이 공통성과 요인적재값에서 기준치 이상의 값을 기록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값 역시 0.824로 기준치 이상을 기록하여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구성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 factor	측정 변수 variables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	공통성 communality	고유값 eigenvalue	분산 variance	크론바알파값 Cronbach' a
태도 Attitude	att_2	.789	.697	2.886	18.040	.828
	att_3	.758	.676			
	att_4	.736	.626			
	att_5	.605	.503			
	att_1	.603	.638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	sn_2	.879	.817	2.137	13.359	.807
	sn_3	.799	.747			
	sn_1	.680	.669			
긍정적 예상정서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pae_3	.813	.769	2.604	16.272	.869
	pae_2	.800	.798			
	pae_1	.784	.764			
부정적 예상정서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nae_2	.908	.833	2.420	15.124	.868
	nae_3	.868	.765			
	nae_1	.863	.780			
지각된 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_3	.870	.770	1.567	9.793	.696
	pbc_4	.857	.761			
KMO=.86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3212.781, p<.000						
열망 Desire	des_2	.929	.864	2.502	83.398	.880
	des_1	.915	.837			
	des_3	.895	.801			
KMO=.74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808.709, p<.000						
행동의도 Intention	int_2	.892	.796	2.220	74.013	.824
	int_1	.850	.723			
	int_3	.837	.701			
KMO=.70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477.427, p<.000						

2.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

회복환경지각의 측정변수는 선행연구(Kaplan et al., 1993; Purcell et al., 2001; Rosenbaum, 2009; Korpela & Ylén, 2009; Korpela et al., 2014; 유윤희 외, 2013; 김진옥, 2018; 이혜린·이훈, 2018; 한장현, 2019; 김송이, 2020)에서 확인된 속성요인 중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적용되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에 해당하는 측정변수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측정변수들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선택된 14개의 측정변수중 공통성과 요인적재값에서 기준치인 0.4를 만족시키지 못한 측정변수를 제거하였다.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한 측정변수를 제거한 후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측정요인들은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이러한 회복환경지각 요인분석은 KMO는 0.920, 구형성은 $p < .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속성요인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일탈성 0.749, 매력성 0.761, 적합성 0.867, 이해용이성 0.799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신뢰도 확인의 기준치인 0.6을 만족하는 값을 보였다. 이는 회복환경지각의 각 속성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이처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 및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택된 측정변수들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러한 측정변수들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측정에 적합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이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델적합도분석 그리고 가설 검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표 4-5〉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 factor	측정 변수 variables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	공통성 communality	고유값 eigenvalue	분산 variance	크론바하알파값 cronbach' a
적합성 Compatibility	pre_7	.789	.730	3.017	23.209	.867
	pre_11	.722	.688			
	pre_8	.697	.605			
	pre_10	.564	.616			
	pre_9	.531	.604			
이해용이성 Legibility	pre_13	.882	.800	2.394	18.414	.799
	pre_12	.804	.697			
	pre_14	.780	.666			
매력성 Fascination	pre_5	.714	.714	1.888	14.521	.761
	pre_6	.708	.748			
일탈성 Being Away	pre_2	.802	.771	1.816	13.969	.749
	pre_3	.655	.715			
	pre_1	.641	.762			
KMO=.92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606.503, p<.000						

제3절 측정모형 평가

1.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델링은 크게 CB-SEM(Covariance 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PLS-SEM(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구분된다. CB-SEM은 공분산기반 구조방정식으로 엄격한 분포가정 및 모수적 기법의 적용을 특성으로 하며 PLS-SEM은 분포가정이 없는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는 특성이 있다(신건권, 2018). 이러한 PLS-SEM은 적용 가능한 지표에 있어서도 형성적 지표 모델은 물론 반영적 지표와 형성적 지표가 혼합된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최근 여러 학문 영역에서 각광받고 있다(Monecke & Leisch, 2012).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분포 가정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PLS-SEM(Hair, Sarstedt, Matthews, & Ringle, 2016)을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PLS-SEM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성요인의 집중타당성 분석과 내적 일관성 그리고 판별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구성요인의 집중타당성 분석은 동일한 구성요인을 서로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적재치(Outer Loadings)의 적합성과 각 요인의 표준화된 외부적재치의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써 측정변수들의 설명력을 합산한 값을 의미하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집중타당성의 수용기준은 외부적재치의 경우 0.7 이상인 경우 해당 측정변수를 유지할 수 있고 0.4미만인 경우는 측정변수를 제거하고 0.4와 0.7사이의 경우 합성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의 변화를 보고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단한다(Hair, Ringle, & Sarstedt, 2011). 이어서 평균분산추출의 경우 0.5이상이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의 경우 측정변수의 외부적재치는 0.733에서 0.928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0.7이상으로서 제거되는 측정변수 없이 모든 측정변수가 유지되었다. 이어서 평균분산추출의 경우 모든 구성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이 0.597에서 0.834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용기준인 0.5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으로 모든 구성요인이 바람직한 수준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의 집중타당도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구성요인 집중타당성과 내적 일관성 분석

요인 Factor	측정변수 variables	외부적채치 outer loading	합성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태도 Attitude	att_1	.785	.832	.597
	att_2	.803		
	att_3	.802		
	att_4	.737		
	att_5	.733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	sn_1	.836	.814	.721
	sn_2	.852		
	sn_3	.859		
긍정적 예상정서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pae_1	.878	.873	.793
	pae_2	.913		
	pae_3	.880		
부정적 예상정서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nae_1	.912	.920	.787
	nae_2	.883		
	nae_3	.866		
지각된 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_3	.833	.745	.765
	pb_4	.914		
일탈성 Being Away	pre_1	.791	.753	.668
	pre_2	.834		
	pre_3	.826		
매력성 Fascination	pre_5	.901	.763	.808
	pre_6	.898		
적합성 Compatibility	pre_7	.828	.869	.642
	pre_8	.770		
	pre_9	.774		
	pre_10	.787		
	pre_11	.845		
이해용이성 Legibility	pre_12	.855	.812	.717
	pre_13	.872		
	pre_14	.812		
열망 Desire	des_1	.913	.900	.834
	des_2	.928		
	des_3	.898		
행동의도 Intention	int_1	.861	.827	.740
	int_2	.888		
	int_3	.830		

이어서 구성요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측정변수들의 일관성 정도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합성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를 분석하였다. 합성신뢰도는 그 수용기준이 0.7 이상인 경우 바람직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Nunnally & Bernstein, 1994). 본 연구에서 각 구성요인의 합성신뢰도는 0.745에서 0.920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두 바람직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의 기준인 0.7이상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구성요인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적 일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이어서 구성요인의 판별타당성은 구성요인과 구성요인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Fornell-Larcker 판별타당도 분석과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판별타당도 분석이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Fornell-Larcker 판별타당도 분석은 각 구성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이 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값보다 커야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본 연구의 구성요인의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에서 보면 각각의 구성요인의 가장 위에 위치한 수치는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균분산추출의 아래에 있는 값들은 다른 구성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판별타당도의 평가 기준인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이 구성요인의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값보다 커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 4-7>에서 각 구성요인의 가장 위에 위치한 수치가 아래에 있는 수치들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표 4-7>을 다시 살펴보면 모든 구성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이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본 연구의 모든 구성요인이 판별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7〉 Fornell-Larcker 판별타당도 분석

	ATT	SN	PAE	NAE	PBC	BA	FSC	CPT	LGB	DES	INT
ATT	.773										
SN	.499	.849									
PAE	.669	.542	.891								
NAE	.192	.179	.151	.887							
PBC	.176	.219	.181	.161	.875						
BA	.557	.496	.559	.216	.067	.818					
FSC	.511	.480	.485	.288	.195	.590	.899				
CPT	.624	.514	.629	.297	.200	.691	.714	.801			
LGB	.292	.307	.264	.272	.314	.269	.377	.449	.847		
DES	.586	.461	.581	.235	.170	.586	.548	.668	.282	.913	
INT	.575	.494	.609	.254	.223	.619	.601	.708	.328	.773	.860

이어서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판별타당도 분석은 판별타당도의 평가기준으로 구성요인들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상관관계의 비율로 구성요인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상관관계는 M-H상관관계(monotrait-heteromethod correlations)와 H-H상관관계(heterotrait-heteromethod correlations trait)로서 이를 통해 확인된 수치가 수용기준에 만족할 경우 해당 구성요인은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HTMT 판별타당도 분석의 수용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은 임계치 0.85를 기준으로 분석결과가 0.85 미만이면 판별타당도가 있고 0.85이상이면 판별타당도가 없다고 보는 기준이 있으며(Kline, 2011), 이어서 중간 기준으로 임계치 0.90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가 0.90미만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하고 그 이상이면 판별타당도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Teo, Srivastava, & Jiang, 2008). 끝으로 가장 자유로운 기준으로 신뢰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보는 기준이 있다(Shaffer, 1995).

본 연구에서는 중간기준을 적용하여 임계치 0.90을 기준으로 구성요인을 판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표 4-8〉은 본 연구의 구성요인에 대하여 HTMT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

다. 임계치 0.90을 기준으로 하여 <표 4-8>을 확인하여 보면 모든 값이 0.90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이 HTMT 분석에 따라 모두 판별타당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8>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판별타당도 분석

	ATT	SN	PAE	NAE	PBC	BA	FSC	CPT	LGB	DES	INT
ATT											
SN	.602										
PAE	.786	.637									
NAE	.217	.208	.161								
PBC	.231	.285	.229	.206							
BA	.702	.633	.689	.266	.089						
FSC	.640	.609	.596	.352	.272	.778					
CPT	.734	.613	.722	.347	.260	.856	.884				
LGB	.360	.380	.315	.335	.418	.341	.480	.548			
DES	.677	.535	.655	.255	.209	.711	.661	.749	.327		
INT	.695	.599	.719	.290	.291	.783	.756	.834	.400	.895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인들은 모두 집중타당성, 내적 일관성 그리고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성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구조모델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

2. 구조모델 적합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모델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구조모델의 적합도 분석을 위하여 구성요인 간의 다중공선성(VIF), 결정계수, 예측적합성, 모델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구조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과정은 구성요인 간의 다중공선

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구성요인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모델적합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구조모델의 내부 VIF값을 확인하여 적합도를 판단하며, 이러한 적합도 판단의 수용기준은 내부 VIF가 5미만인 경우 구성요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요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5를 넘는 항목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구성요인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구성요인 간의 다중공선성(VIF) 분석

Collinearity statistics(VIF) - Inner Model											
	ATT	SN	PAE	NAE	PBC	RPB	BA	FSC	CPT	LGB	DES
DES	2.164	1.683	2.264	1.148	1.170	1.075	2.222	2.217	3.364	1.388	
INT					1.143	1.055	2.13	2.172	3.303	1.355	1.940

이어서 구조모델 평가를 위하여 결정계수(R^2)를 확인하였다. 결정계수는 구조모델에서 독립변수들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결정계수가 0.25이면 약한 설명력, 0.50이면 중간정도의 설명력, 그리고 0.75이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신건권, 2018). 본 연구에서 결정계수는 열망의 경우 0.528로 중간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행동의도의 경우 결정계수가 0.685로 높은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델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구조모델의 예측력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구조모델에 대하여 예측적 적합성이 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Q^2 (construct cross-validated redundancy) 값을 활용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Q^2 값은 0보다 크면 예측적 적합성이 있다고 보고 0과 같거나 0보다 작으면 예측적 적합성이 없다고 판단한다(Hai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열망의 경우 Q^2 이 0.500으로 예측적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행동의도의 경우에도 Q^2 이 0.563으로 예측적 적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모델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지수를 확인하였다. SRMR 지수는 SmartPLS 프로그램에서 모델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제시하는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SRMR이 0.08보다 작을 경우 모델적합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에 대하여 이러한 SRMR 지수는 0.051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시된 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모델적합도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계수, 예측적합성, 모델적합도를 통한 구조모델 적합성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구조모형 적합성 분석

	R ²	adjusted R ²	Q ²	SRMR
DES	.528	.516	.500	.051
INT	.685	.680	.563	

제4절 가설 검정

1. 가설검정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대상으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특히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확장된 추가요인으로 설정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적용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범주의 가설을 세웠으며 다시 구체적으로 17개의 세부가설을 세웠다.

가설 검정에 앞서 측정변수, 구성요인 그리고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 졌으며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와 구성요인은 모두 수용기준에 만족하는 분석결과를 보여 주었고 모델적합도에 있어서도 기준치를 만족하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따른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고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연구 모형을 통해 제시된 총 17개의 세부가설 중 10개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7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표 4-11>과 같으며 이를 3가지 가설 범주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가설 범주인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전통적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가설들이다. 즉 열망과 행동의도의 선행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그리고 과거행동 빈도가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들이다.

가설 검정 결과 이러한 선행요인 중 열망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설정된 선행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그리고 부정적 예상정서 중에서 태도와 긍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선행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부정적 예상정서의 경우 열망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이 설정된 두 가지 선행요인인 지각

된 행동통제와 과거행동 빈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 가지 선행요인 모두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열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선행요인 모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구조모형 가설 검정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가설 검정
H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태도 → 열망	.165	2.660	.008	채택
H1-2	주관적 규범 → 열망	.035	.846	.398	기각
H1-3	긍정적 예상정서 → 열망	.144	2.473	.013	채택
H1-4	부정적 예상정서 → 열망	.039	1.120	.263	기각
H1-5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	.030	.739	.460	기각
H1-6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063	2.143	.032	채택
H1-7	과거행동 빈도 → 열망	-.025	.731	.465	기각
H1-8	과거행동 빈도 → 행동의도	.069	2.542	.011	채택
H2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1	일탈성 → 열망	.145	2.510	.012	채택
H2-1-2	일탈성 → 행동의도	.115	2.659	.008	채택
H2-2-1	매력성 → 열망	.071	1.336	.182	기각
H2-2-2	매력성 → 행동의도	.092	2.015	.044	채택
H2-3-1	적합성 → 열망	.311	4.397	.000	채택
H2-3-2	적합성 → 행동의도	.201	3.590	.000	채택
H2-4-1	이해용이성 → 열망	-.038	.931	.352	기각
H2-4-2	이해용이성 → 행동의도	.006	.176	.860	기각
H3 웰니스관광에 대한 참여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열망 → 행동의도	.500	11.532	.000	채택

검정결과를 영향 받는 요인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열망의 경우는 독립변수 중 태도, 긍정적 예상정서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행동의도의 경우는 독립변수 중 지각된 행동통제와 과거행동 빈도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어서 두 번째 가설 범주인 회복환경지각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확장된 모델에서 추가된 구성요인들에 대한 가설들이다. 즉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인 열망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들이다.

가설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일탈성의 경우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매력성의 경우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열망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웰니스 관광 체험자의 경우 적합성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해용이성의 경우는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다시 확인하면 일탈성과 적합성은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이고 매력성은 행동의도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속성요인이며 이해용이성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속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정결과를 영향 받는 요인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은 추가요인인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에서 일탈성과 적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의도의 경우에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에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 범주인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최종적으로 본 연구모형의 핵심 요소인 열망과 행동의도에 대한 가설이다. 즉 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경우에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열망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이다.

가설 검정 결과를 확인하면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결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은 웰니스관광을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가설의 채택여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설 채택 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설 검정 결과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검정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가설 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가설 검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살펴볼 가설들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이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 중 태도는 가설 H1-1을 통하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 설정이 되었고 실제 가설 검정 결과에서도 태도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태도와 열망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는 Meng & Choi(2016)의 느린 관광에 대한 연구와 Song et al.(2011)의 카지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이러한 가설 채택에 따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태도는 웰니스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열망의 관계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이예진·윤지환, 2017; 김성우, 2017; 장원용·김진국, 2019)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설이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중 하나인 주관적 규범은 태도와 마찬가지로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규범은 행동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의 행동이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을 이러한 주관적 규범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그러나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가설인 H1-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주관적 규범과 관련하여서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한 여러 선행연구(Song et al., 2011; 윤설민, 2014; 김희진·김인신, 2016; 유주·노정희, 2016; 신영송 외, 2018)에서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옥선·양소희(2022)는 나홀로 여행에 대한 연구에서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강한 연구 대상의 경우에 주변 사람들의 의사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은지·현성협(2015)은 연구대상이 주변의 의사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경우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종교관광이라는 특정 관광유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양승탁 외(2018)의 종교관광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경우도 주변사람들의 의사보다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웰니스관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주관적 규범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긍정적 예상정서는 가설 H1-3을 통하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 설정이 되었고 실제 가설 검정 결과에서도 긍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예상정서와 열망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는 Lee et al.(2012)의 신종플루 인식에 대한 연구와 Kim et al.(2016)의 기후변화가 관광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본 연구의 이러한 가설 검정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이러한 가설 채택에 따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긍정적 예상정서는 웰니스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예상정서와 열망의 관계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Meng & Choi, 2016; Song et al., 2011; 김성우, 2017; 최규환·여호근, 2018; 이경중 외, 2021)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긍정적 예상정서와 함께 예상정서의 한 종류인 부정적 예상정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중 하나로서 긍정적 예상정서와 마찬가지로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예상정서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기대 감정을 의미하며 행동 계획에 문제가 생겨 의도에 따라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예상되는 감정이다(양은주, 2014). 이러한 부정적 예상정서도 행동이론에 정서적 요인을 추가하고자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적용된 구성요인이다.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부정적 예상정서는 긍정적 예상정서와 다르게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예상정서와 관련하여서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한 여러 선행연구(Song et al., 2012; 동려민 외, 2013; 윤설민, 2014; 정지심·한희섭, 2015; 유주·노정희, 2016)에서 부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다. 특히 동려민 외(2013)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구대상의 긍정적 예상정서가 부정적 예상정서보다 열망에 더 큰 작용을 하는 요소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긍정적 결과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예상

정서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는 송학준·이충기(2010)와 Song et al.(2012)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경우에도 웰니스관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긍정적인 결과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긍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부정적 예상정서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어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 중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기 용이하고 자기 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수준으로 이해되는 개념이다(Ajzen, 2001).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성요인으로 제시되어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H1-5와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H1-6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지만 반대로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가설 검정 결과는 기존 연구(Song et al., 2011; Lee et al., 2012; Song et al., 2012; 동려민 외, 2013; 윤철민, 2014; Kim et al., 2016; 이승훈·박정숙, 2017; 신영송 외, 20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설 검정 결과로서 다양한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으로서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하여 Song et al.(2012)은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행동의도에만 영향을 주는 가설 검정 결과를 지각된 행동통제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Ajzen & Madden(1986)에 따르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지식 및 계획과 같은 특정 내부 요소와 시간 및 기회와 같은 외부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하여 Park & Petrick(2009)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약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설명하거나 통제와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각된 행동통제는 내부요소에 외부요소까지 함께 포함된 개념적 특성에 따라 열망이 아닌 행동의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에서도 기존 연구와 같은 형태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해석에 따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경우에도 지각된 행동통제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도

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어서 과거행동의 빈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거행동의 빈도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거행동에 대하여 그 빈도는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본 연구에서도 과거행동과 관련하여 과거행동 빈도와 열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H1-7 과 과거행동 빈도와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H1-8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과거행동 빈도는 열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반대로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가설 검정 결과는 기존 연구(Lee et al., 2012; 장원용·김진국, 2019; 신영송 외, 2018; 양승탁 외, 20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설 검정 결과로서 다양한 연구에서 과거행동의 빈도가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행동의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행동과 관련하여 장원용·김진국(2019)은 프로야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거행동 빈도가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검정 결과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열망은 오랜 기간 이루어진 행동이나 습관의 영향이 아닌 태도, 개인의 정서, 규범, 사전지식 등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과거행동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행동 예측을 위한 요인으로서 제시된 점을 고려하여 과거행동 빈도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고려하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경우에도 과거행동의 빈도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경우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에서 과거행동의 빈도가 아닌 태도나 긍정적 예상정서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며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과거행동의 빈도는 열망이 아닌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서 살펴볼 가설들은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이다.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 일탈성은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과 같은 회복환경 내에서 지각하게 되는 감정을 의미한다(Kaplan et al., 1993; Korpela & Hartig, 1996;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이러한 일탈성은 본 연구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추가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모델에서 일탈성과 열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H2-1-1이 설정되었고, 일탈성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H2-1-2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일탈성은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탈성과 관련하여 김송이(2020)는 도보관광객의 회복환경지각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일탈성이 회복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장헌(2019)는 아쿠아리움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탈성이 주관적 웰빙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회복환경지각의 일탈성이 관광객의 만족도 또는 주관적 웰빙,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도 일탈성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성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살펴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 매력성은 회복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긍정적인 감각을 주는 공간에 대한 속성을 의미한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이러한 매력성은 본 연구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추가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모델에서 매력성과 열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H2-2-1이 설정되었고, 매력성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H2-2-2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매력성은 열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반대로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력성과 관련하여 반서연 외(2022)는 자전거 여행객을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회복환경지각 중 매력성이 사회적 치유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김송이(2020) 역시 도보관광객의 회복환경지각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매력성이 회복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Chen(2021)은 중국 산수 실경공연을 관람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이 공연의 몰입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매력성이 공연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러한 몰입이 관광객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매력성이 관광객의 만족도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매력성은 연구대상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도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인으로 매력성은 열망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행동의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력성의 경우 회복환경 공간의 매력성이라는 외부적 요소임을 감안할 때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외부적 요소가 있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와 같은 요인들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경우 회복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긍정적인 감각이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는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외부적 요소가 가미된 속성요인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개인적 동기인 열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 적합성은 회복환경에서 주어진 기회 또는 행동에 대한 제약이 개인의 성향이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의미하는 속성으로서, 회복환경에서 이루고자 하는 회복경험이 회복환경의 조건들과 부합할수록 강화되는 속성이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이러한 적합성은 본 연구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추가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모델에서 적합성과 열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H2-3-1이 설정되었고, 적합성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H2-3-2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적합성은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적합성과 관련하여 반서연 외(2022)는 자전거 여행객을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회복환경지각 중 적합성의 경우에 치유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hen(2021)은 중국 산수 실경공연을 관람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이 공연의 몰입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적합성이 공연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러한 몰입이 관광객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회복환경지각의 적합성이 관광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도 적합성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회복환경이 개인의 성향이나 목적에 접합한지를 확인하는 속성요인인 적합성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복환경지각의 마지막 속성요인인 이해용이성은 회복환경지각의 또 다른 속성요인인 조화성, 넓이감, 규모를 보완하고 있는 속성이다(Kaplan et al, 1993; Kaplan, 1995; Korpela & Hartig, 1996; 이승훈·현명호, 2003; 유윤희 외, 2013; 김송이, 2020). 이러한 이해용이성은 회복환경에서 물리적인 요소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공간의 규모를 쉽게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속성으로서 조화성이나 넓이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회복환경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이해용이성은 조화성이나 규모 넓이감 등으로 대체되어 연구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용이성은 본 연구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열망과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추가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모델에서 이해용이성과 열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H2-4-1이 설정되었고, 이해용이성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H2-4-2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이해용이성은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해용이성과 관련하여 김송이(2020)는 도보관광객의 회복환경지각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이해용이성이 회복경험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장현(2019)은 아쿠아리움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화성을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으로 설정하여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는데, 검정 결과 조화성은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회복환경지각의 이해용이성 또는 조화성이 관광객의 행동의도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이해용이성의 경우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과 같은 다른 속성요인이 모두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과 달리 이해용이성은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해용이성은 물리적 요소로서 공간에 대한 지각을 그 특성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웰니스관광 체험자에게 이러한 물리적 요소로서의 공간에 대한 지각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 또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은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성요인으로서 연구모형에 대한 탐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에 대한 탐색적 요인 확장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연구 목적

에 따른 것이며 가설 검정 결과에 따라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중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요인인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특성으로 이해하는데 본 가설 검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특히 가설 검정 결과에 따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중 이해용이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일탈성, 적합성과 같은 관광객의 심리적 요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웰니스관광이 물리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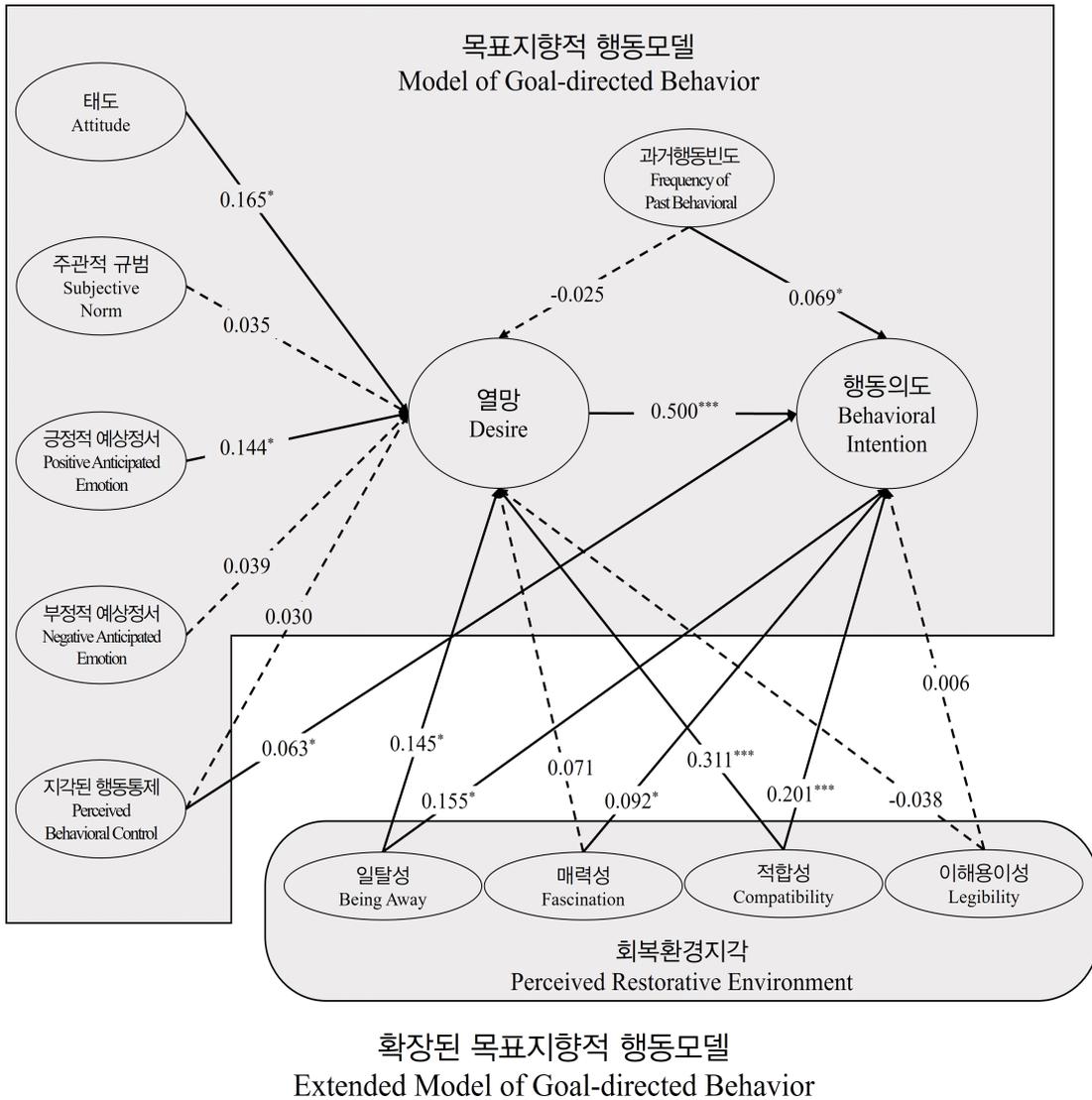
끝으로 살펴볼 가설은 연구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열망과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이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설정된 가설로서 열망이라는 요인을 행동모델의 중심에 제시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핵심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가설 H3을 통하여 이러한 열망과 행동의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열망과 행동의도에 대한 관계는 Song et al.(2012)의 보령머드축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행동연구와 Kim et al.(2016)의 기후변화가 관광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경중 외(2021)의 Covid-19 위협지각이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열망과 행동의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열망과 행동의도의 유의한 영향관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설 채택에 따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과 행동의도의 유의한 영향 관계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Song et al., 2011; Lee et al., 2012; Song et al., 2012; 한을경, 2014; Kim et al., 2016; Meng & Choi, 2016; 유주·노정희, 2016; 김성우, 2017; 이예진·윤지환, 2017; 최규환·여호근, 2018; 장원용·김진국, 2019; 고민환·이충기, 2020; 이경중 외, 202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세부가설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구조모형 가설 검정



주: * $p < .05$, ** $p < .01$, *** $p < .001$

지금까지 검정된 가설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인 태도와 긍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그리고 열망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을 추가하여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웰니스관광 특성을 고려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기

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추가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보다 다양한 요인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연구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연구모형에 있어서 열망의 매개효과와 웰니스관광 체험자에 대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따로 적용했을 경우 두 행동모델의 차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 매개효과 분석

PLS-SEM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비모수를 가정하고 복잡한 모형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인 Sobel test 보다 PLS-SEM에 보다 적합한 매개효과 검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8).

이러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연구모형에서 확인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추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제한한 연구모형으로서 기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핵심요인인 열망이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은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요인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과 행동의도 사이에서도 매개역할의 위치에 있다.

이에 이러한 열망이 실제로 요인들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중에서 열망은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긍정적 예상정서와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에 대하여 열망은 일탈성과 행동의도, 그리고 적합성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매력성과 이해용이성에 대해서는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구조모형 매개효과 분석

경로	표준계수	t값	p값	신뢰구간		매개효과
				2.5%	97.5%	
태도 → 열망 → 행동의도	.108	2.747	.006	-.028	.077	O
태도 → 행동의도	.186	4.373	.000	.107	.273	
주관적 규범 → 열망 → 행동의도	.024	.829	.407	-.032	.079	X
주관적 규범 → 행동의도	.175	5.366	.000	.113	.240	
긍정적 예상정서 → 열망 → 행동의도	.090	2.429	.015	.016	.161	O
긍정적 예상정서 → 행동의도	.241	6.442	.000	.170	.315	
부정적 예상정서 → 열망 → 행동의도	.029	1.086	.277	-.022	.081	X
부정적 예상정서 → 행동의도	.077	2.473	.013	.017	.139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 → 행동의도	.023	.736	.462	-.037	.084	X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094	2.988	.003	.033	.156	
과거행동 빈도 → 열망 → 행동의도	-.019	.726	.468	-.072	.031	X
과거행동 빈도 → 행동의도	.116	4.160	.000	.060	.170	
일탈성 → 열망 → 행동의도	.089	2.504	.012	.021	.161	O
일탈성 → 행동의도	.252	6.455	.000	.179	.331	
매력성 → 열망 → 행동의도	.044	1.314	.189	-.025	.108	X
매력성 → 행동의도	.253	6.298	.000	.176	.333	
적합성 → 열망 → 행동의도	.167	4.239	.000	.089	.243	O
적합성 → 행동의도	.347	8.214	.000	.269	.434	
이해용이성 → 열망 → 행동의도	-.029	.959	.338	-.091	.027	X
이해용이성 → 행동의도	.119	3.478	.001	.052	.187	

이를 종합하면 웰니스관광 체험자는 태도와 긍정적 예상정서가 클 수록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이를 매개로 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의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회복환경지각의 일탈성과 적합성이 클수록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이를 매개로 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의도도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비교

본 연구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주된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하여 가설 검정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을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과 새롭게 추가된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해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하여 요인 추가를 통하여 행동모델을 확장한 연구모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동모델의 확장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추가요인을 통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비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행동모델 확장을 위해 추가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제외한 전통적인 형태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따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모델적합도 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정계수(R^2)와 예측적합성(Q^2), 그리고 SRMR지수를 비교하였다. R^2 을 먼저 확인해 본 결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 열망의 R^2 은 0.434, 행동의도의 R^2 은 0.618로 확인된 반면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 열망의 R^2 이 0.528, 그리고 행동의도의 R^2 이 0.685로 나타났다. 이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비하여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에서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하여 요인추가를 통하여 개발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보다 우수한 설명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다.

이어서 Q^2 을 살펴보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 열망의 Q^2 은 0.414, 행동의도의 Q^2 은 0.427로 확인되었으며,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 열망의 Q^2 은 0.500, 행동의도의 Q^2 은 0.563으로 나타나 두 요인 모두에서 보다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하여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보다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두 행동모델의 SRMR지수를 살펴보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 SRMR지수가 0.05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에는 SRMR지수가 0.051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SRMR지수에서는 두 모델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사한 수준의 SRMR지수를 통해 두 모델 모두 비슷한 정도의 모델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모델적합도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모델적합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4-13>과 같다.

<표 4-13> MGB와 E-MGB에 대한 구조모형 모델적합도 비교

	MGB		E-MGB	
	DES	INT	DES	INT
R^2	.434	.618	.528	.685
adjusted R^2	.426	.616	.516	.680
Q^2	.410	.427	.500	.563
SRMR	.053		.051	

경로모델에 있어서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두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이 차이가 있어서 경로모델 역시 두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경로모델 비교에서는 두 모델의 차이를 확인하기보다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을 각각 이해하는 수준으로 경로모

델 비교를 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여 경로모델을 확인하면 총 9개의 경로 중에서 7개의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확인된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행동통제와 과거행동 빈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열망 역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와 과거행동 빈도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서 가설 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중심으로 차이를 확인해보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추가된 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 중에서 일탈성과 적합성은 새롭게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은 새롭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행동모델 확장을 통하여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새롭게 추가된 반면 기존에 영향을 주었던 구성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로모델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정리하면 <표 4-14>와 같다.

〈표 4-14〉 MGB와 E-MGB에 대한 경로모델

경로	MGB			E-MGB		
	경로계수	t값	p값	경로계수	t값	p값
태도 → 열망	.303	4.921	.000	.165	2.660	.008
주관적 규범 → 열망	.132	2.680	.007	.035	.846	.398
긍정적 예상정서 → 열망	.285	5.042	.000	.144	2.473	.013
부정적 예상정서 → 열망	.107	2.598	.009	.039	1.120	.263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	.018	.396	.692	.030	.739	.460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085	2.755	.006	.063	2.143	.032
과거행동 빈도 → 열망	.013	.334	.738	-.025	.731	.465
과거행동 빈도 → 행동의도	.109	3.954	.000	.069	2.542	.011
일탈성 → 열망				.145	2.510	.012
일탈성 → 행동의도				.115	2.659	.008
매력성 → 열망				.071	1.336	.182
매력성 → 행동의도				.092	2.015	.044
적합성 → 열망				.311	4.397	.000
적합성 → 행동의도				.201	3.590	.000
이해용이성 → 열망				-.038	.931	.352
이해용이성 → 행동의도				.006	.176	.860
열망 → 행동의도	.744	29.929	.000	.500	11.532	.00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Covid-19 이후 더욱 확고해진 관광산업 내에서의 웰니스관광의 위치에 견주어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학문적 체계정립, 그리고 웰니스관광을 체험한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기존 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기존 이론을 통하여 확인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에 대하여 모델 확장을 통해 웰니스관광 고유의 행동 요인과 행동 과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셋째, 생애주기이론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생애주기별 관광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하여 심도 있고 실질적인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이론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행동모델 확장을 통한 웰니스관광 고유의 이론적 특성 확인과 생애주기에 따른 관광객 행동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안을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요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을 ‘웰니스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웰니스 추구 활동’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 활용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열망, 행동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웰니스 관광지에서의 회복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회복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회복환경지각 척도를 활용했으며, 회복환경지각을 ‘웰니스 관광지 환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회복환경’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으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을 추출하였다. 끝으로 생애주기이론에 따라 웰니스 관광객의 생애주기를

20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 자녀가 없는 기혼자,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 그리고 은퇴자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은 크게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과 회복환경지각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로 구분된다. 실증분석 부분을 통하여 검정되는 가설은 우선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로서 '태도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예상정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예상정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행동 빈도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행동 빈도는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회복환경지각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로 '일탈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탈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력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력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합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합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해용이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해용이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제시되었다. 끝으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참여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고 표본의 웰니스관광 참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측정도구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검정하기 위하여 모델적합도분석(model fi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검정에서 열망의 경우는 독립변수 중 태도, 긍정적 예상정서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동의도는 독립변수 중 지각된 행동통제와 과거행동 빈도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가설 범주인 회복환경지각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검정에서 열망은 추가요인인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에서 일탈성과 적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의도의 경우에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에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끝으로 세 번째 가설 범주인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결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은 웰니스관광을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검정에 이어서 연구모형에서 확인되는 매개효과에 대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요인인 열망은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요인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과 행동의도 사이에서도 매개변수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중에서 열망은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긍정적 예상정서와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에 대하여 열망은 일탈성과 행동의도, 그리고 적합성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매력성과 이해용이성에 대해서는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추가요인을 통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비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추가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제외한 전통적인 형태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따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모델적합도 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행동모델의 모델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정계수(R^2)와 예측적합성(Q^2), 그리고 SRMR지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R^2 의 경우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

우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Q^2 의 경우도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SRMR지수의 경우 두 행동모델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행동모델의 경로모델 비교를 통하여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을 각각 이해하면 몇 가지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추가된 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 중에서 일탈성과 적합성은 새롭게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은 새롭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행동모델 확장을 통하여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새롭게 추가된 반면 기존에 영향을 주었던 구성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 시사점

지금까지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접근을 위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추가요인으로 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웰니스관광 체험자에게 적용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가설 검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우선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며, 이러한 행동모델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는 연구 목적의 하나였던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실증분석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인 태도와 긍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그리고 열망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온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라는 행동이론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보다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웰니스관광 특성을 고려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기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추가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보다 다양한 요인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행동모델 보다 높은 설명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를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추가된 구성요인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웰니스관광을 다른 관광과 차별화하는 요소로 판단 할 수 있다. 특히 가설 검정 결과에 따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중 이해용이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일탈성, 적합성과 같은 관광객의 심리적 요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웰니스관광이 물리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확장된 모델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고유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웰니스관광의 특성을 이해하고 차별화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구분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비교를 통하여 다시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증분석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웰니스관광 고유의 특성을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론적 시사점은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제5장 연구 모형의 생애주기별 적용

제1절 생애주기 단계

지금까지 확인한 가설의 내용은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추가요인으로 설정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이었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통하여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 검증을 통하여 연구 목적으로 설정된 웰니스관광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 마련이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통하여 가능함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서 웰니스관광을 이해하고 실용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서 웰니스관광 행동의 주체인 웰니스관광 체험자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생애주기이론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시도하였다. 즉 웰니스관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생애주기가 행동모델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웰니스관광 행동 주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주기이론에 따라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차이검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생애주기에 따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의 차이를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이 각각 어떻게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구체적으로 'H4 웰니스관광 체험자는 생애주기 단계별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고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주기와 관련된 가설 검증을 위해 생애주기이론을 기반으로 생애주기 단계를 구분하고 앞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생애주기 단계를 적용하여 생애주기 단계별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

동모델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와 관련된 선행연구(유영주, 1984; 안중수, 1995; 김민정·이희숙, 2010; 장윤정, 2015; 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박혜련, 2020)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를 5단계로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해외 선행연구보다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이 진행되었다. 이는 생애주기는 가족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형태는 국가별로 문화, 관습, 사회경제적 환경 등과 연계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맞는 생애주기 단계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생애주기 단계구분에 해외 선행연구가 아닌 국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연구내용에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생애주기 구분이 이루어졌다.

생애주기 구분은 보통 5단계에서 많게는 8단계까지 구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의 첫 번째 단계는 독신가구 또는 미혼, 미혼가구가 제시되고 있다(안중수, 1995; 장윤정, 2015; 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박혜련, 2020). 이는 가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시기를 지나 성년이 되고 사회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생애주기의 첫 단계로 설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생애주기의 시작을 20세 이상의 성년인 미혼자로 구체화하고 이를 단계 1로 설정하였다.

생애주기에서 독신 이후에 일어나는 의미 있는 변화는 결혼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결혼을 미혼가구 이후의 생애주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시기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안중수, 1995; 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이러한 생애주기 단계는 연구자에 따라 자녀출산전 부부만의 가정, 신혼기가정, 부부가족, 부부가족기 등으로 칭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미혼자 이후의 단계 구분으로 자녀가 없는 기혼자를 단계 2로 설정하였다.

이어지는 생애주기는 자녀 출산 이후의 단계로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자녀 출산 이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의 학령기 구분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구분할지에 따라 다양한 생애주기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자녀의 학령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장윤정, 2015), 이를 단순화하여 학령전기, 학령기로 단순화하여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이는

자녀 교육이 가족의 중요한 역할이며 관심사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이러한 학령기 구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령기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기준으로 크게 둘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기혼자인 단계 2에 이어 단계 3은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생애주기를 설정하였으며 단계 4는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생애주기 단계를 구분하였다.

끝으로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면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년기 또는 은퇴기를 생애주기의 마지막으로 설정하고 있다(유영주, 1984; 안중수, 1995; 김민정·이희숙, 2010; 황은애·황미진, 2015; 김영두, 201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은퇴자를 생애주기의 마지막 구분인 단계 5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된 생애주기를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웰니스관광 체험자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1〉 생애주기 단계별 구분 세부 내용

구분		생애주기	n
단계 1	Group 1	20세 이상 미혼자	108
단계 2	Group 2	자녀가 없는 기혼자	89
단계 3	Group 3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	66
단계 4	Group 4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	61
단계 5	Group 5	은퇴자	104

제2절 생애주기별 연구 모형 비교분석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5단계의 생애주기로 구분된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각 단계에 따라 개별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5개의 그룹은 범주형 조절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룹간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 MGA)을 실시하였다(배병렬, 2022). 이러한 다중집단분석에는 PLS-MGA와 순열검정(permutation test)이 이용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순열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순열검정은 그룹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로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처럼 5개의 그룹이 있는 경우 <표 5-2>와 같이 경로계수 비교를 10회 실시하여 그룹의 차이를 검정하게 된다(배병렬, 2022). 여기에서 $p^{(n)}$ 은 그룹 n의 경로계수를 의미하며 각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여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게 된다.

<표 5-2> 순열(permutation)을 이용한 5개 집단의 경로계수 비교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1					
집단 2	$p(1) - p(2)$				
집단 3	$p(1) - p(3)$	$p(2) - p(3)$			
집단 4	$p(1) - p(4)$	$p(2) - p(4)$	$p(3) - p(4)$		
집단 5	$p(1) - p(5)$	$p(2) - p(5)$	$p(3) - p(5)$	$p(4) - p(5)$	

출처: 배병렬(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5개 그룹을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로에 대하여 각각 순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순열검정 결과 확인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17개 경로에 대한 5개 그룹 간의 경로계수 차이와 차이의 유의수준을 표로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별 경로계수 차이 분석

경로	G1 - G2	G1 - G3	G1 - G4	G1 - G5	G2 - G3	G2 - G4	G2 - G5	G3 - G4	G3 - G5	G4 - G5
태도 → 열망	-.061	.250	-.072	-.013	.312	-.010	.049	-.322	-.263	.059
주관적 규범 → 열망	.227	.235	.295	.212	.008	.068	-.016	.060	-.023	-.084
긍정적 예상정서 → 열망	.176	-.239	.079	-.172	-.415*	-.096	-.348*	.319	.067	-.252
부정적 예상정서 → 열망	-.123	-.126	.014	-.034	-.003	.138	.089	.140	.092	-.048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	-.061	-.058	-.099	-.038	.003	-.038	.022	-.041	.020	.061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169	.113	.194	.211*	-.055	.025	.043	.081	.098	.017
과거행동 빈도 → 열망	.008	.067	.101	.118	.059	.092	.109	.034	.051	.017
과거행동 빈도 → 행동의도	.076	.002	.138	-.071	-.074	.062	-.147	.136	-.074	-.209
일탈성 → 열망	.029	-.035	-.045	.088	-.064	-.074	.060	-.010	.123	.133
일탈성 → 행동의도	-.004	.076	.110	.182	.080	.114	.186	.034	.106	.072
매력성 → 열망	-.203	-.005	.006	-.077	.197	.209	.126	.012	-.072	-.083
매력성 → 행동의도	.129	-.112	-.146	.078	-.241	-.275	-.051	-.034	.190	.224
적합성 → 열망	-.168	-.230	-.215	-.111	-.063	-.047	.056	.016	.119	.103
적합성 → 행동의도	-.322*	.272	-.214	-.116	.594**	.107	.206	-.487	-.388*	.099
이해용이성 → 열망	.153	.217	.073	.188	.063	-.080	.035	-.143	-.029	.115
이해용이성 → 행동의도	-.066	-.202*	-.121	-.168	-.136	-.055	-.102	.081	.034	-.047
열망 → 행동의도	.180	-.212	.245	-.082	-.392*	.065	-.262	.458*	.131	-.327*

주: * p < .05, ** p < .005, *** p < .000

이러한 순열검정을 통한 다중집단분석결과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경로는 총 5개의 경로이다. 이는 각각 '긍정적 예상 → 열망',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적합성 → 행동의도', '이해용이성 → 행동의도', '열망 → 행동의도'이며 개별 경로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로의 차이는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 차이이다. 해당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그룹은 그룹 2와 그룹 3, 그리고 그룹 2와 그룹 5였다. 여기서 그룹 2의 경로계수는 -0.045이며 그룹 3은 0.370, 그리고 그룹 5는 0.303이었다. 그리고 그룹 2와 그룹 3의 경로계수 차이는 -0.415이며, 그룹 2와 그룹 5의 경로계수 차이는 -0.348로 확인되었다. 이는 <표 5-4>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순열검정 결과는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그룹 2(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그룹 3(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자)과 그리고 그룹 5(은퇴자)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자나 은퇴자의 경우 긍정적 예상정서가 높아질수록 열망도 높아지는 반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긍정적 예상정서의 변화가 열망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표 5-4> 생애주기 단계별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차이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1	.131	-.045	.370	.051	.303
Group 2	.176				
Group 3	-.239	-.415*			
Group 4	.079	-.096	.319		
Group 5	-.172	-.348*	.067	-.252	

주: * p < .05, ** p < .005, *** p < .000

이어서 살펴볼 경로의 차이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의 차이이다. 해당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그룹은 그룹 1과 그룹 5였다. 여기서 그룹 1의 경로계수는 0.186이며 그룹 5는 -0.025였다. 이러한 그룹 1과 그룹 5의 경로계수 차이는 0.211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그룹간의 경로계수 차이는 <표 5-5>에서 보다 자세히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그룹 1(20세 이상 미혼자)이 그룹 5(은퇴자)와의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혼자의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아질수록 행동의도도 상승을 하는데 반하여 은퇴자의 경우 지각된 행동통제의 변화에 행동의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표 5-5〉 생애주기 단계별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차이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186	.017	.073	-.008	-.025
Group 1					
Group 2	.169				
Group 3	.113	-.055			
Group 4	.194	.025	.081		
Group 5	.211*	.043	.098	.017	

주: * $p < .05$, ** $p < .005$, *** $p < .000$

세 번째로 살펴볼 경로의 차이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중 하나인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 차이이다. 해당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그룹은 그룹 1과 그룹 2, 그룹 2와 그룹 3, 그리고 그룹 3과 그룹 5였다. 여기서 그룹 1의 경로계수는 0.117이며 그룹 2는 0.439, 그룹 3은 -0.155, 그리고 그룹 5는 0.233이었다. 그리고 그룹 1과 그룹 2의 경로계수 차이는 -0.322, 그룹 2와 그룹 3의 경로계수 차이는 0.594, 그리고 그룹 3과 그룹 5의 경로계수 차이는 -0.388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그룹간의 경로계수 차이는 〈표 5-6〉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경로차이를 확인해보면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룹 4를 제외한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리고 그룹 5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룹 1(미혼자)과 그룹 2(자녀가 없는 기혼자)를 비교하여 보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적합성 변화에 행동의도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룹 2(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그룹 3(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자)을 비교하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적합성과 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관계가 있는 반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자는 부(-)²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그룹 3(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자)과 그룹 5(은퇴자)를 비교하여 보면 역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자는 부(-)²의 영향관계가 있는데 반하여 은퇴자는 적합성과 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생애주기 단계별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차이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117	.439	-.155	.331	.233
Group 1					
Group 2	-.322*				
Group 3	.272	.594**			
Group 4	-.214	.107	-.487		
Group 5	-.116	.206	-.388*	.099	

주: * p < .05, ** p < .005, *** p < .000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경로의 차이는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 차이이다. 해당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그룹은 그룹 1과 그룹 3이었다. 해당 경로에서 그룹 1의 경로계수는 -0.068이며 그룹 3은 0.135였다. 그리고 그룹 1과 그룹 3의 유의한 경로계수 차이는 -0.202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로계수의 차이와 유의성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5-7〉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순열검정 결과에 따라 그룹 1(미혼자)과 그룹 3(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은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중 하나인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미혼자의 경우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매우 낮은 부(-)²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하여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5-7〉 생애주기 단계별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차이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068	-.002	.134	.053	.100
Group 1					
Group 2	-.066				
Group 3	-.202*	-.136			
Group 4	-.121	-.055	.081		
Group 5	-.168	-.102	.034	-.047	

주: * $p < .05$, ** $p < .005$, *** $p < .000$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로의 차이는 본 행동 모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경로인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 차이이다. 해당 경로에서는 미혼자로 구성된 그룹 1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룹 2와 그룹 3, 그룹 3과 그룹 4, 그리고 그룹 4와 그룹 5가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개별 그룹들의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를 확인해보면 그룹 2는 0.334, 그룹 3은 0.726, 그룹 4는 0.269, 그리고 그룹 5는 0.596이었다. 그리고 그룹 2와 그룹 3의 경로계수 차이는 -0.392이며, 그룹 3과 그룹 4의 경로계수 차이는 0.458로 확인되었으며 그룹 4와 그룹 5의 경로계수 차이는 -0.3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 그룹에 따라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의 차이와 유의성을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이처럼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그룹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애주기 시작 단계인 미혼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 간에 확인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그룹 2(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그룹 3(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에 비하여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로계수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이 커질수록 행동의도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어서 그룹 3(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자)과 그룹 4(중고등학교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경로계수를 보여주었다. 이 역시 앞선 그룹 2와 그룹 3의 비교에서처럼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나이 많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이 행동의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끝으로 그룹 4(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와 그룹 5(은퇴자)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경로계수의 차이에서 은퇴자가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자녀가 있는 기혼자 보다 더 높은 경로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은퇴자가 앞서 언급된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자와 유사하게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이 높을수록 행동의도도 높아짐을 의미하고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은퇴자에 비하여 이러한 영향 관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5-8〉 생애주기 단계별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차이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514	.334	.726	.269	.596
Group 1					
Group 2	.180				
Group 3	-.212	-.392*			
Group 4	.245	.065	.458*		
Group 5	-.082	-.262	.131	-.327*	

주: * $p < .05$, ** $p < .005$, *** $p < .000$

이러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개별 경로에 따른 생애주기 단계의 비교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경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일부 경로에 대하여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가장 핵심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에서 생애주기 단계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로별 생애주기 단계 그룹의 차이 비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애주기 단계 그룹별 경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단 생애주기 단계 그룹별 비교에서는 모든 그룹간의 비교를 다 확인하지 않고 가장 많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 2와 그룹 3의 경우만 세부적

으로 그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는 <표 5-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룹 2와 그룹 3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한 가지 경우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룹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경로들 간의 차이를 해석하기 여의치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많은 경로에서 차이를 보인 그룹 2와 그룹 3을 대상으로 그룹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주기 단계 구분에 따라 그룹 2는 생애주기 2단계를 의미하며 이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룹 3은 생애주기 3단계를 의미하여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자를 의미한다. 편의상 그룹 2와 그룹 3의 비교에서 두 그룹의 차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룹 2는 자녀가 없는 경우로 그룹 3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로 칭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그룹 2와 그룹 3은 개별 경로에 대한 차이분석에서 3가지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와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이다.

그룹 2와 그룹 3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로에 대하여 각각의 경로계수와 경로계수 차이 그리고 유의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표 5-9> 생애주기 2단계와 3단계 차이 분석

경로	경로계수			p값
	Group 2	Group 3	Group 2 - Group 3	
긍정적 예상정서 → 열망	-.045	.370	-.415	.017
적합성 → 행동의도	.439	-.155	.594	.002
열망 → 행동의도	.334	.726	-.392	.008

<표 5-9>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3가지 경로에 대하여 자녀가 없는 경우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매우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는 낮은 수치(부(-)의 관계)가 있지만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웰니스관광에 대한 긍정적 예상정서가 높아질수록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 또한 높아지나, 이와 비교하여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긍정적 예상정서의 변화가 열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적합성의 경우는 앞선 긍정적 예상정서와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적합성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행동의도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반대로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적합성에 대한 지각이 낮아질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경우의 경로계수 차이는 3가지 유의한 경로계수의 차이 중 가장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적합성에 대한 지각과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는 자녀가 없는 경우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끝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본 연구의 행동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과정인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의 경로계수는 0.334인데 반하여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경로계수가 0.726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열망과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두 그룹의 두 배에 가까운 경로계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열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이론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생애주기별 관광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하여 심도 있고 실질적인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애주기이론의 적용을 위하여 생애주기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생애주기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분된 생애주기 단계는 20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인 단계 1, 자녀가 없는 기혼자인 단계 2,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단계 3, 중고등학교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단계 4, 그리고 은퇴자인 단계 5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생애주기 5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연구모형의 적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설정된 가설은 구체적으로 '웰니스관광 체험자는 생애주기 단계별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이며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생애주기별 관광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그룹간의 쌍대비교로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순열검정을 활용하였다. 이는 각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하여 경로별로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순열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로는 총 5개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긍정적 예상 → 열망',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적합성 → 행동의도', '이해용이성 → 행동의도', '열망 → 행동의도' 이었다.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자나 은퇴자의 경우 긍정적 예상정서가 높아질수록 열망도 높아지는 반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긍정적 예상정서의 변화가 열망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혼자의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아질수록 행동의도도 상승을 하

는데 반하여 은퇴자의 경우 지각된 행동통제의 변화에 행동의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 하나인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적합성 변화에 행동의도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적합성과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반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자는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자는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데 반하여 은퇴자는 적합성과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혼자의 경우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매우 낮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하여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많은 그룹들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자녀가 없는 기혼자에 비하여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로계수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경로계수를 보여주었으며, 은퇴자가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자녀가 있는 기혼자 보다 더 높은 경로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경로별 생애주기 단계 그룹의 차이 비교에 이어서 생애주기 단계 그룹별 경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단계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그룹은 그룹 2와 그룹 3이었으며 이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두 그룹은 3가지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와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이다. 우선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는 낮은 수치의 부(-)의 관계가 있지만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적합성의 경우는 앞선 긍정적 예상정서와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적합성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행동의도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반대로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적합성에 대한 지각이 낮아질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본 연구의 행동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과정인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즉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열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위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행동모델의 적용에 이어서 보다 심도 있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 이해를 위하여 생애주기이론을 행동모델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5단계로 구분된 생애주기 적용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우선 경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차이 확인에서 총 5가지 경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생애주기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서 체험자가 어떠한 단계의 생애주기 있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가 모두 동일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을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가장 중요한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애주기 단계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경우 열망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생애주기에 따라 그 정도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이 다른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별 생애주기 단계의 차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를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하는데 생애주기 단계와 경로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또한 단계별 비교에서 가장 많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그룹 2와 그룹 3의 비교를 통하여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의도가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생애주기 구분 5단계 중 가장 많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룹은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자이고 이 두 그룹은 웰니스관광의 선택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두 그룹의 명확한 차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생애주기 단계 중에서 가장 큰 의사

결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애주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웰니스관광에 있어서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차이는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장 큰 행동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자녀의 유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차이를 주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웰니스관광에서 관광객의 자녀 유무에 따라 이해와 접근을 달리 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생애주기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생애주기이론 적용에 따른 시사점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생애주기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이해와 실무적 제언의 밑바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웰니스관광은 Covid-19 이후 관광산업 내에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웰니스관광의 위상과 다르게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학문적 체계정립, 그리고 웰니스관광을 체험한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기존 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기존 이론을 통하여 확인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에 대하여 모델 확장을 통해 웰니스관광 고유의 행동 요인과 행동 과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셋째, 생애주기이론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생애주기별 관광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대하여 심도 있고 실질적인 이해의 기회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이론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행동모델의 확장을 통한 웰니스관광 고유의 이론적 특성 확인과 생애주기에 따른 관광객 행동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안을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요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을 '웰니스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웰니스 추구 활동'이라고 조작적 정의 하였으며, 본 연구에 활용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열망, 행동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웰니스 관광지에서의 회복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회복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회복환경지각 척도를 활용했으며, 회복환경지각을 '웰니스 관광지 환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회

복환경'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으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을 추출하였다. 끝으로 생애주기이론에 따라 웰니스 관광객의 생애주기를 20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 자녀가 없는 기혼자,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 그리고 은퇴자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은 크게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과 회복환경지각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 그리고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가설로 구분된다. 실증분석 부분을 통하여 검정되는 가설은 우선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로서 '태도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예상정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예상정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행동 빈도는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행동 빈도는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회복환경지각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로 '일탈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탈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력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력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합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합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해용이성은 웰니스관광 참여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해용이성은 웰니스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제시되었다. 또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가설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참여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제시되었다. 끝으로 생애주기 5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연구모형의 적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는 생애주기 단계별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고 표본의 웰니스관광 참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측정도구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검정하기 위하여 모델적합도분석(model fi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생애주기별 관광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룹간의 쌍대비교로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정하는 순열검정(permutation test)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검정에서 열망의 경우는 독립변수 중 태도, 긍정적 예상정서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동의도는 독립변수 중 지각된 행동통제와 과거행동 빈도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가설 범주인 회복환경지각의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검정에서 열망은 추가요인인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에서 일탈성과 적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의도의 경우에는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 중에서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끝으로 세 번째 가설 범주인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한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결과,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은 웰니스관광을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검정에 이어서 연구모형에서 확인되는 매개효과에 대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요인인 열망은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요인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위치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과 행동의도 사이에서도 매개변수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행동 빈도 중에서 열망은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긍정적 예상정서와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에 대하여 열망은 일탈성과 행동의도, 그리고 적합성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매력성과 이해용이성에 대해서는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추가요인을 통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비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추가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제외한 전통적인 형태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따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모델적합도 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행동모델의 모델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정계수(R^2)와 예측적합성(Q^2), 그리고 SRMR지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R^2 의 경우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경우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Q^2 의 경우도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SRMR지수의 경우 두 행동모델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행동모델의 경로모델 비교를 통하여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을 각각 이해하면 몇가지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기존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추가된 요인인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 이해용이성 중에서 일탈성과 적합성은 새롭게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일탈성, 매력성, 적합성은 새롭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행동모델 확장을 통하여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새롭게 추가된 반면 기존에 영향을 주었던 구성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어서 생애주기에 따른 행동모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순열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로는 총 5개로 확인되었다. 이는 ‘긍정적 예상 → 열망’,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적합성 → 행동의도’, ‘이해용이성 → 행동의도’, ‘열망 → 행동의도’ 이었으며,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자나 은퇴자의 경우 긍정적 예상정서가 높아질수록 열망도 높아지는 반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긍정적 예상정서의 변화가 열망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혼자의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아질수록 행동의도도 상승을 하는데 반하여 은퇴자의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의 변화에 행동의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중 하나인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적합성 변화에 행동의도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적합성과 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관계가 있는 반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자는 부(-)¹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자는 부(-)¹의 영향관계가 있는데 반하여 은퇴자는 적합성과 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혼자의 경우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매우 낮은 부(-)¹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하여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이해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많은 그룹들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자녀가 없는 기혼자에 비하여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로계수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경로계수를 보여주었으며, 은퇴자가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자녀가 있는 기혼자 보다 더 높은 경로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경로별 생애주기 단계 그룹의 차이 비교에 이어서 생애주기 단계 그룹별 경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단계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그룹은 그룹 2와 그룹 3이었으며 이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두 그룹은 3가지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와 적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이다. 우선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는 낮은 수치의 부(-)¹의 관계가 있지만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정(+)¹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인 적합성의 경우는 앞선 긍정적 예상정서와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적합성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행동의도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반대로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적합성에 대한 지각이 낮아질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본 연구의 행동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과정인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열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과 이해를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하여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에 집중하였고,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실증분석 하는 방법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웰니스관광만의 특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는 행동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문헌 연구와 실증 분석 그리고 다양한 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문헌연구와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 그리고 추가적인 생애주기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다양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웰니스관광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과 주제를 통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수많은 연구자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와 설명이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해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이론의 적용을 위하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온 대표적인 행동이론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행동이론 적용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행동이론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웰니스관광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으로 회복환경지각 개념을 도입하고자 이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러한 행동이론과 회복환경지각, 그리고 생애주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웰니스관광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자 시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웰니스관광 연구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어서 이루어진 실증분석에서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통하여 설명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광객 행동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보다 진일보 시킨 것으로서 웰니스관광이 체계적인 행동이론에 따라 설명 가능한 관광의 한 유형임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통하여 웰니스 관광객의 행동이 보다 더 잘 설명됨을 확인하여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이 웰니스관광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설 검증 결과에 따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중 이해용이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일탈성, 적합성과 같은 관광객의 심리적 요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웰니스관광이 물리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웰니스관광의 특성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차별화된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끝으로 생애주기이론을 적용하여 관광객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웰니스관광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웰니스관광에 있어서 모든 관광객이 동일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의 확인은 웰니스 관광객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 및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문헌 연구 및 실증분석과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항을 통해 자세히 기술 하도록 하겠다.

2.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지금까지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크게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이해 측면에서 시

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행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연구 목적의 하나였던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온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라는 행동이론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보다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웰니스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이론적 기초 마련은 웰니스관광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이를 통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여준다. 다시 말해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이론의 적용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웰니스관광은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웰니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웰니스에 대한 범위와 개념이 넓고 다양하여 웰니스관광만의 특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웰니스관광만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위하여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을 웰니스관광의 특성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특성의 제시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웰니스관광의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정은 행동이론의 적용에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설계와 적용과정에서 제시되고 확인된 것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설 검정 결과에 따라 회복환경지각의 속성요인중 이해용이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일탈성, 적합성과 같은 관광객의 심리적 요인이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웰니스관광이 물리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회복환경지각 속성요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웰니스관광이 다른 유형의 관광과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웰니스관광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의 특성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웰니스관광 고유의 특성을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실무적 시사점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웰니스관광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세분화하여 개별 관광객에 맞는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 관광객을 생애주기이론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웰니스관광의 이론적 적용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웰니스 관광객은 부분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차이는 다른 단계 그룹들 간의 차이보다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몇 가지 실무적이 시사점이 도출될 수가 있다.

우선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웰니스관광의 관광객은 세부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관광객 집단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구분은 생애주기에 기반 하여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개별 그룹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구성이나 웰니스 관광지 개발 시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관광객의 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관광지 구성의 세분화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광지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시와 같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웰니스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자녀가 없는 기혼자 그룹과 아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자 그룹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그룹의 명확한 차이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생애주기 단계 중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애주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웰니스관광에 있어서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차이는 자녀가 있고 없기에 따라서 가장 큰 행동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웰니스관광을 고려하면 웰니스관광을 개발할 때 개발 구상 단계에서부터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개별 집단에 대한 웰니스관광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에 대한 생각은 두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점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 즉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을 동일한 선상에서 고려하면 각각의 웰니스에 대한 행동 의도를 모두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웰니스관광에 대한 생애주기이론의 적용과정에서 확인된 생애주기 단계별 웰니스관광에 대한 차이를 바탕으로 몇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웰니스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 구상이나 관광지 개발이라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는 단계별 차이 확인에 따른 웰니스 관광객의 구분은 웰니스 관광객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니즈를 이해하고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정책적 시사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에 이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어떠한 정책적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이다.

현재까지의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정책은 단순히 관광지 추천에 머물러 있거나 홍보수단 개발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와 같은 추천 관광지 선정을 통한 웰니스관광 홍보는 웰니스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고려나 관광객 구분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책은 일회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웰니스관광에 대한 일반의 관심 정도에 따라 정책이 유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웰니스의 의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단순히 트렌디한 용어로만 존재하는 웰니스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정확한 이해와 해당 지역에 맞는 웰니스 개념 발굴을 통하여 웰니스를 관광객에게 먼저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광객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웰니스관광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본인 스스로 웰니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웰니스관광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웰니스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웰니스관광에 국한된 전문가가 아닌 웰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를 웰니스관광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전문가의 육성과 함께 보다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웰니스관광 관리 운영 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웰니스 관광지를 웰니스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웰니스 관광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개별 웰니스 관광지가 관광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문가 육성과 관리운영체제 마련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다. 즉 이론적 시사점이 학문적인 접근이고, 실무적 시사점이 사업자 측면의 접근이라면,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공공의 영역에서 웰니스관광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결국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며 웰니스관광을 활성화 하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은 그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본 연구를 중심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광 개발 및 활성화 등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러한 시사점이나 관점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종합적이며 유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웰니스의 핵심은 다양한 구성개념의 조화로운 상태이며 웰니스관광은 관광을 통하여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웰니스관광에 대한 접근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조화를 통하여 보다 궁극적인 웰니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체험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접근과 생애주기 구분에 따른 관광객 구분을 시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 세분화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웰니스관광 전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계점은 연구 대상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웰니스관광을 체험한 전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지가 제주도라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대상 선정이었으나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도 웰니스관광에 대한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제주도로 웰니스관광 경험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면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지역별 웰니스관광의 특성을 도출하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도 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애주기 단계의 구분과 적용에도 한계점이 있다. 5단계로 구분된 생애주기 단계는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다 세분화되어 더 많은 수의 단계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세분화된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는 보다 정확한 관광객 집단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5단계 구분은 관광객의 다양한 생애주기 단계를 이해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을 경험하는 관광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생애주기 단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몇 가지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다.

우선 연구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하는 내국인과 국내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국인까지도 연구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내외 관광지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하

여 웰니스관광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생애주기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다양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개별 관광객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행동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세분화된 생애주기 단계의 설정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표본의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의 가구 유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생애주기 구분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수집된 표본은 웰니스 관광객 그룹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처럼 향후 연구 방향을 고려하면 여전히 웰니스관광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할 부분은 많아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다양한 연구는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힐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꾸준히 진행되어온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와 본 연구가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보다 깊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상진·김재홍·이창우(2008).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 강신겸·오한솔·설자연·안기완(2022). 치유관광객의 지각된 회복환경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완도수목원 난대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 『관광연구논총』 34(3): 45-64.
- 강지현·송정명·전익기(2013). 스포츠관광 참가자의 목표지향적 행동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233-248.
- 고재윤·송학준·유은이(2014).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와인구매 의도 예측. 『관광학연구』 38(4): 11-36.
- 고동우(2000). 인사선발 제도로써 인턴십이 직무 태도와 수행에 미치는 영향: 호텔과 여행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5(2): 23-38.
- 고민환·이충기(2020). 코로나19 정보와 여행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하여. 『호텔경영학연구』 29(7): 123-140.
- 곽춘려·이희승(2013). 한국관광의 매력속성이 관광제약이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8(4): 323-346.
- 권선중·김교현(2004). 인터넷 게임 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검증: 계획된 행동이론의 대안모형 탐색. 『學生生活研究』 30: 43-56.
- 권미영(2013). 식도락 관광객의 개인적 특성, 음식관광 활동, 만족도의 경로분석을 통한 사후행동의도 결정요인 연구. 『지역산업연구』 36(1): 143-161.
- 권해운(2020). 뉴실버세대의 필요와 욕구에 기초를 둔 혁신적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 및 포지셔닝 전략 방안 모색. 『관광경영연구』 24(5): 95-117.
- 권현숙·함연경·김혜령·윤희원(2017). 도심 가로정원의 심리적 회복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5(1): 35-51.
- 김무한(2015). 주의회복환경에서 본 형태의 장애 관한 연구: 서울 청계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문식(2014).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자의 휴리스틱 선택행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명소·김금미·한영석(2004).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도덕적 책무의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여성』 9(1): 1-21.

- 김민수·한진욱(2012). 계획행동이론과 스포츠 팀 라이선싱 제품의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1·2차 구조모형의 비교.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7(2): 51-64.
- 김민정·이희숙(201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53-69.
- 김병현(2016). 웰니스 관광의 개념과 활성화 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진흥연구』 4(1): 107-128.
- 김보미·노정희(2012). 확장된 계획적 행동이론을 이용한 경영관련 전공 대학생의 학습의도에 관한 연구 - 학습목표와 취업스트레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5(3): 1,399-1,418.
- 김상운(2019). 강원도형 치유관광의 과제 및 웰니스 상품화 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7): 317-323.
- 김성우(2017). 해양관광 참여의도 영향요인 구조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김성태·김영아·김진욱(2020). 농촌관광 참여자의 웰니스 인식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회복환경지각과 회복경험의 매개효과 검증. 『관광학연구』 44(8): 243-263.
- 김송이(2020). 도보관광객의 회복환경지각이 회복경험, 도보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영두(2018). 소비범주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통한 생애주기별 소비생활 개선 방안. 『소비자학연구』 29(5): 117-143.
- 김은희(2007). 소비자의 재활동 태도 및 행동의 이해: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9(3): 501-525.
- 김재형(2016). 아웃도어스포츠 참여대학생의 회복환경지각과 회복탄력성, 여가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5): 425-436.
- 김정자(2007). 계획적 행동이론에 의한 실버타운 잠재고객의 구매의도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정호·이선영·윤용한(2013). 도시지역내 하천경관이 대학생의 기분개선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청계천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4(1): 169-182.
- 김지혜·최현자·나종연(2018). 확장된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재무상태 비교 및 평가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4): 107-140.

- 김지훈(2020). 웰니스 관광지의 선택속성에 따른 중요도 만족도 연구 : 광주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11): 21-35.
- 김진옥(2018). 도시민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연기반 치유회복환경의 회복경험을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주의회복이론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42(17): 51-70.
- 김진옥 · 김남조 · 한승훈(2016). 치유관광에서 자연을 통한 감정조절과 지각된 회복환경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0(8): 47-60.
- 김진옥 · 김도영(2015). 힐링관광 참여자의 주의회복과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감정이 삶의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4(4): 161-178.
- 김진옥 · 이충기(2017). 한국형 치유관광의 개념모델 정립 및 치유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1(5): 5-21.
- 김진옥 · 조한건(2020). 슬로시티 관광객의 웰니스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재방문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 -. 『관광연구논총』 32(3): 99-119.
- 김해옥(2020). 번아웃,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경험 선호(REP)와 회복 경험 간 영향 관계 - 회복환경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觀光研究論叢』 32(4): 129-152.
- 김현우(2018).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골프장 이용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7(3): 29-44.
- 김희정 · 김시중(2012). 관광지 선택속성과 경험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6(2): 147-159.
- 김희진 · 김인신(2016). 컨벤션 참가자의 참여계약 고찰 및 참여 의사결정과정 분석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적용 -. 『관광학연구』 40(10): 155-169.
- 남민정(2013). 외국인 관광객의 목표지향적 수용의도 예측: 새로운 유형의 한식 퀵서비스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남민정 · 양은주(2016).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통한 외국인관광객의 한식QSR 방문의도 예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171-183.
- 동려민 · 강성규 · 이정자(2013).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퍼블릭골프장 이용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연구』 28(1): 1-17.
- 맹해영(2021). 지역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모델 개발.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31-38.
- 문경호(2010). 생태관광 인식에 따른 동기, 태도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문재홍(2020). 제주지역 웰니스 관광 활동 세분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박은숙·이재섭(2011). 방한일본인 관광객의 의료관광 서비스품질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6(4): 487-502.
- 박재형·이민석·이철원(2019). 등산 활동 참가 액티브 시니어의 등산용품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8(4): 109-121.
- 박진석·박성훈(2012). 도시근로자 가구의 여가수요에 관한연구 - 가구특성별 장기소득탄력성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5(5): 2,999-3,018.
- 박창준(2011). 광고모델을 활용한 패키지디자인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박혜경(1984). 『소비자경제학』 박영사.
- 박혜련(2020). 가족 구성 및 생애주기별 문화예술향유 행태 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희량·한덕용(2006). 한국 여성의 명품 구매행동을 설명하는 통합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7(2): 195-226.
- 반서연·김미성·윤유식(2022). 자전거 여행객의 회복환경지각이 치유효과와 만족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MICE관광연구』 22(3): 191-211.
- 배병렬(2022). 『SmartPLS 3.3에 의한 조절효과,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도서출판 청람.
- 백상열(2022). The analysi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SNS users based on e-health literacy using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손희주·남궁미(2018). 가구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1): 169-196.
- 송완구(2020).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연구. 『호텔관광연구』 22(2): 191-203.
- 송학준·이충기(201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레저연구』 22(5): 341-360.
- 신건권(2018).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 신영송·김효은·송학준(2018). 소셜미디어 외식정보 탐색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중심으로 -. 『관광레저연구』 30(12): 285-306.

- 삼재우·이호병(2017). 생애주기 단계에 있어서 가구 구성별 증권점포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不動産學報』 70: 123-136.
- 안균섭·진은애(2022).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선택이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역별, 생애주기별, 소득별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3(3): 15-28.
- 안상운(202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이용한 국내 저비용항공사 승객의 항공사 선택속성, 열망, 행동의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경영연구』 25(1): 221-246.
- 안종수(1995). 도시가족의 여가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8(2): 199-218.
- 안현균·최대혁(2015).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2): 99-112.
- 양승탁(2018). 종교관광객의 동기와 행동구조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양승탁·이승곤·유진룡(2018).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12): 195-211.
- 양은주(2014). 중국인 미용성형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양은주·남민정(2015).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국내 패키지여행상품 이용자의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30(6): 323-342.
- 양은주·조민호(2015). 중국인 미용성형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9(3): 47-64.
- 오길창·이기중(2009). 여가만족이 Wellbeing태도, Wellbeing지향행동, Wellness 추구성향에 미치는 영향관계. 『觀光研究』 24(1): 205-224.
- 오다빈(2016). 대학생의 불런투어리즘 참여동기가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오선숙(2016). 웰니스를 위한 힐링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명상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8(6): 79-99.
- 오은아·김동훈(2018). 치유개념을 적용한 웰니스를 위한 도심형 리조트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오종철(2007).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감각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오종철·장형섭(2012). 수정된 합리적 행위이론을 적용한 윤리적 소비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학술대회.

- 유근준(2014).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 연구: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유숙희(2018). 웰니스관광 평가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유숙희 · 이훈(2018). 웰니스관광 개념모형 개발 - 헤도닉(Hedonic)과 에우다이모닉(Eudaimonic) 관점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42(7): 183-209.
-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 유윤희 · 연평식 · 신원섭(2013). 도시림의 유형에 따른 회복환경지각척도의 비교.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7(1): 33-45.
- 유주 · 노정희(2016). 중국인 배낭여행객의 중국배낭여행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관광연구저널』 30(8): 5-17.
- 유태규(2019). 국내 주요 웰니스 관광지 구축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 665-675.
- 윤선희 · 신창섭 · 홍종숙 · 정영미(2022). 도시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이 정서적 쉼에 미치는 효과 - 치유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 여가활동만족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6): 386-399.
- 윤설민 · 신창열 · 이충기(2014).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행동의도 분석. 『관광학연구』 38(5): 253-276.
- 윤설민(2010).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통한 모험적 여가활동 추구 관광객의 행동 지속성에 관한 연구: 플로우, 애착도, 과거행동의 역할 탐색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윤설민(2014).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메가 이벤트 방문행동 이해. 『관광연구』 29(4): 269-288.
- 윤준(202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마리나 요트 탑승객의 체험요소, 몰입,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윤혜진 · 박경렬(2021). 웰니스 해양관광의 방문자 특성 및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MICE관광연구』 21(3): 235-252.
- 유효진(2022). COVID-19 위험지각과 건강예방조치가 크루즈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경중 · 이철원 · 김민정(2021).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Covid-19 Pandemic 상황에서의 캠핑 참여의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0(1): 401-413.

- 이다은·서원석(2017). 가족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의 인식 비교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택도시연구』 7(2): 37-53.
- 이선경·윤세남(2014). 전통시장 방문객의 관광동기와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39(2): 87-107.
- 이선아·박명화(2010). 농촌노인의 의료정보문해력과 약물지식 및 약물 오남용 행위. 『한국노년학』 30(2): 485-497.
- 이숙영(2020).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서비스품질 효과 분석 연구. 『인문사회 21』 11(2): 1313-1326.
- 이승곤·양승탁·한지훈(2012).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레저항공축제 참가자의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4(4): 273-291.
- 이승훈·박정숙(201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행동의도 연구: 축제에 대한 지역이미지 및 자아이미지일치 적용. 『관광레저연구』 29(11): 239-256.
- 이승훈·현명호(2003). 한국판 회복환경지각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29-241.
- _____ (2004). 자연환경과 회복환경의 스트레스 완화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609-632.
- 이영진(2009). 해양 레저관광행동 영향요인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예진(2017). 공유숙박 잠재적 이용자의 이용동기와 인지된 위험이 열망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예진·윤지환(2017). 공유숙박 잠재적 이용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 -. 『관광학연구』 41(5): 109-127.
- 이옥선(2018).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통한 나 혼자 여행 행동 의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옥선·양소희(2022).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나 홀로 여행 의도 분석: 나 홀로 여행 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1): 195-214.
- 이윤경(2021).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포럼』 293: 38-54.
- 이은지·현성협(2015).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본 중국인 성형관광객의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7(2): 17-34.
- 이재신·김한나(2008).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동영상 UCC 제작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5): 399-461.

- 이정철(2015). 농어촌지역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방안 - 웰니스/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韓國島嶼研究』 27(1): 75-92.
- 이지연 · 이숙영 · 김봉석(2017). 전시회 참가등록 형태에 따른 참관객 행동에 관한 연구: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8(5): 69-93.
- 이진의 · 김남조(2016). 치유프로그램의 웰니스적 가치가 치유프로그램 만족, 충성도, 주관적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숲 치유프로그램 경험자를 대상으로 -. 『관광학연구』 40(1): 167-183.
- 이충기(2017). 『관광조사통계분석』 대왕사.
- 이충기 · 고성규 · 임성희(2017).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승마체험 행동의도 연구. 『관광연구저널』 31(7): 5-19.
- 이충순 · 이상미(2016). 웰니스(Wellness)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한방의료관광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연구』 39(1): 323-345.
- 이학식 · 김 영(2000).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의 평가와 대안적 견해. 『소비자학연구』 11(4): 21-47.
- 이현송(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30(WIN): 759-777.
- 이혜린(2015).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의 자기결정동기화 모형 구축: 바이오필리아 관점에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혜린 · 이훈(2018).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에서 회복환경과 자기결정동기 관계 분석 - 등산 활동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42(6): 233-251.
- 이후석(2019).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EMGB)을 이용한 축제방문객의 의사결정과정 관련 연구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3(7): 133-147.
- 이후석 · 오민재(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부산국제영화제 방문객의 행동의도 분석. 『관광연구저널』 30(8): 91-104.
- 임재필(2018). 스쿠버다이빙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임재필 · 이충기(2016).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스쿠버다이빙의 행동의도 분석. 『관광연구저널』 30(11): 5-17.
- 임화순 · 남윤섭(2017).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지 이미지가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298-307.
- 장문성(2006). 서비스 구매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장원용·김진국(2019).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 근거한 프로야구 관람의도 분석. 『한국융합 과학회지』 8(1): 48-67.
- 장윤정(2015). 가구생애주기별 여가관광이동 행태 특성분석: 거주지에서 여가관광목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8): 111-123.
- 장윤정·김홍렬(2017). 거주 여가 환경과 여가이동 목적지 선택과의 관계 연구. 『관광연구』 32(5): 261-276.
- 정승훈·양성수(2021).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위기관리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양관광학연구』 14(2): 97-116.
- 정지심·한희섭(2015).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통한 관광객의 명품구매 의사결정과정의 이해. 『관광학연구』 39(6): 163-183.
- 정현규·최용복(2022). 웰니스관광 관련 연구동향에 대한 내용분석: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23(4): 132-157.
- 정희경·윤해진(2016).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델을 이용한 저비용항공사의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8(3): 309-327.
- 조아라(2015).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참여행태와 시사점. 『한국관광정책』 59: 12-17.
- 진경미·이형룡(2015). 심리적 결정과정에 의한 항공사 브랜드앱 이용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9(3): 61-76.
- 채동렬·감지혜(2016). 해양항노화-웰니스 융·복합산업 육성방안.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1-50.
- 최규환·여호근(2009). 관광정보 비대칭성하에서의 관광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1(2): 7-26.
- _____ (2018). 관광분야에 있어 학습과 진로를 연계한 진로준비행동 융합모델 개발 연구. 『관광레저연구』 30(10): 61-77.
- 최서연(201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유진·박진우(2015). 면세점 이용객들의 목표지향적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3(4): 73-81.
- 최일선(2017). 웰니스 관광 트렌드 분석 및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 환경공학회 학술대회.

- 최은정(2010). 식품위해요소 관련 주부 인식과 지식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관성 분석.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 최주철·김영미(2020). 코로나19가 관광레저활동에 미치는 인식 차이 분석. 『관광레저연구』 32(7): 159-177.
- 최홍철(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하경희(2019). 리조트 방문객의 웰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행복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87: 559-585.
- 한덕웅·이민규(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41-158.
- 한을경(2014). 레스토랑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하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한장현(2019). 블루스페이스 회복환경지각이 주관적 웰빙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한지숙(2013). 웰니스 프로그램 효과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8(4): 133-141.
- 허향진·홍성화(2018). 웰니스인식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2018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축제 방문객을 중심으로. 『이벤트 컨벤션 연구』 14(4): 47-65.
- 황은애·황미진(2015).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I. 『정책연구보고서』 1-151.
- 후츨(2016).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중국인의 한국음식 관광행동의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Chen, Xiaohua(2021). 회복환경지각이 공연 작품성 평가, 몰입,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Adams, T., Bezner, J., Garner, L., and Woodruff, S.(1998). Construct validation of the perceived wellness survey.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4(4): 212.
- Ajzen, I.(1991).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_____ (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27-58.
- _____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ien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cation SosioPsychology*. 4: 665-683.
- Ajzen, I., and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Hall.
- Ajzen, I., and Madden, T. J.(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5): 453-474.
- Allport, G. W., Clark, K., and Pettigrew, T.(1954). *The nature of prejudice*.
- Ardell, D. B.(1977). *High-level wellness: An alternative to doctors, drugs, and disease*. Union Institute and University.
- Armitage, C. J., and Conner, M.(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 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Bagozzi, R. P.(1992). The self-regulation of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78-204.
- Bagozzi, R. P., Baumgartner, H., and Yi, Y.(1992).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 application to coupon us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4): 505-518.
- Bagozzi, R. P., Gurhan-Chnli, Z. and Priester, J. R.(2002). *The Social Psychology of Consumer Behavior*. Open University Press.
- Bagozzi, R. P. and Dholakia, U. M.(2006). Antecedents and purchase consequences of customer participation in small group brand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3: 45-61.
- Bagozzi, R. P., and Lee, K. H.(1999). Consumer resistance to, and acceptance of, innovatio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6: 218-225.

- Bell, P. A., Greene, T. C., Fisher, J. D., and Baum, A.(2001). *High density and crowding. Environmental psychology*. 5th edition. Belmont. CA:Thomson Wadsworth.
- Berto, R.(2005). Exposure to restorative environments helps restore attentional capac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 249-259.
- Bertsch, G., and Ostermann, H.(2011). The effect of wellness brand awareness on expected and perceived service quality. *Tourismos*, 6(2): 103-120.
- Bigelow, H. F.(1942). Money and marriage. *Marriage and the Family*, eds. Howard Becker and Reuben Hill, Boston: Heath and Company.
- Bigne, J. E., Sanchez, M. I., and Sanchez, J.(2001). Tourism image, evaluation variables and after purchase behaviour: inter-relationship. *Tourism management*, 22(6): 607-616.
- Boulding. W., Kalra, A., Staelin. R., and Zeithaml. V. A.(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Fro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1): 7-27.
- Bowler, D. E., Buyung-Ali, L. M., Knight, T. M., and Pullin, A. S.(2010).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for the added benefits to health of exposure to natural environments. *BMC Public Health*, 10(1): 456-466
- Bristor, J. M., and Qualls, W. J.(1984). The household life cycle: implications for family decision making. *Marketing to the Changing Household*. Cambridge: L. MA Ballinger.
- Bushell, R., and Sheldon, P. J.(2009). Wellness tourism and the future. *Wellness and Tourism: Mind, body, spirit, place*, 218-230.
- Carrera, P. M., and Bridges, J. F.(2006). Globalization and healthcare: understanding health and medical tourism. *Expert Review of Pharmacoeconomics & Outcomes Research*, 6(4): 447-454.
- Carrus, G., Passafaro, P., and Bonnes, M.(2008). Emotions, habits and rational choices in ecological behaviours: The case of recycling and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1): 51-62.

- Chen, J. S., Prebensen, N., and Huan, T. C.(2008). Determining the motivation of wellness travelers. *Anatolia*, 19(1): 103-115.
- Cheng, S., Lam, T., and Hsu, C. H.(2006). Negative word-of-mouth communication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0(1): 95-116.
- Chhabra, D.(2020). Transformational wellness tourism system model in the pandemic era.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Management and Tourism*, 5(2): 76-101.
- Choi, Y. J., and Park, J. W.(2017).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duty-free shop users using a goal directed behavior model: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31: 152-162.
- Cimprich, B.(1992). Attentional fatigue following breast cancer surger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5(3): 199-207.
- _____ (1998). Age and extent of surgery affect attention in women treated for breast cancer.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1(3): 229-238.
- Cohen, M., and Bodeker, G.(Eds.). (2008). *Understanding the global spa industry: Spa management*. Amsterdam: Butterworth-Heinemann.
- Conner, M., and Armitage, C. J.(1998).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and avenues for further reseac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 1429-1464
- Corbin, C. B., and Pangrazi, R. P.(2001). Toward a uniform definition of wellness: A commentary. *President's council on physical fitness and sports research digest*.
- Davis, W. A.(1984). The two sense of desire. *Philosophical Studies*, 45: 181-195
- Deesilatham, S.(2018). *Wellness tourism: Determinants of incremental enhancement in tourists? Quality of lif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Devereux, C., and Carnegie, E.(2006). Pilgrimage: Journeying beyond self.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1(1): 47-56.
- Dillette, A. K., Douglas, A. C., and Andrzejewski, C.(2021). Dimensions of holistic wellness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wellness tourism experiences. *Current Issues in Tourism*, 24(6): 794-810.

- Dunn, H. L.(1959). High-level wellness for man and socie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the Nations Health*, 49(6): 786-792.
- Dunn, K. L., Mohr, P., Wilson, C. J. and Wittern, G. A.(2011). Determinants of fast-food consump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etite*, 57: 349-357.
- Duvall, E. M.(1971).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 B. B. Lip icott Co.
- East, R.(1993). Investment Decision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2): 337-350.
- Engel, J. E., Blackwell, R. D. and Miniard, P. W.(2000). *Consumer Behavior*(8th edition). New York: Dryden
- Erfurt-Cooper, P., and Cooper, M.(2009). *Health and wellness tourism: Spas and hot springs*. Channel View Publications.
- Eriksson, N. T., and Wiklund-Gustin, L.(2014). Blessed alienation: The Christian monastery as a caring and restorative environment.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4(2): 172-182.
- Farag, S., and Lyons, G.(2007). *Conceptualising barriers to travel information use*.
- Frew, E. and Ali Knight, J.(2009), Independent theatres and the creation of a fringe atmospher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3): 211-227.
- Fishbein, M.(196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16(3): 233-239.
- Fishbein, M., and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Fornell, C., and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umkin, H.(2001). Beyond toxicity: human health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3): 234-240.

- Georgiev, G., and Vasileva, M. T.(2010). Conceptual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balneo, SPA and wellness establishments in Bulgaria. *UTMS Journal of Economics*, 1(2): 37-44.
- Gilly, M. C., and Enis, B. M.(1982), Recycling the Family Life Cycle: A Proposal for Redefini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9(1): 271-276.
- Glick, P. C.(1947), The Family Cyc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 164-174.
- _____ (1977), Updat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5-13.
- Glick, P. C., and Parke, R. Jr.(1965), New Approaches in Study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Demography*, 2: 187-202.
- Global Wellness Institute(2018). *Global wellness tourism economy*. Miami, FL: Global Wellness Institute.
- _____ (2021). *The Global Wellness Economy: Looking Beyond COVID*. Miami, FL: Global Wellness Institute.
- Hagger, M. S., and Chatzisarantis, N. L. D.(2005). First-and higher-order models of attitudes, normative influence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513-535
- Hair, J. F., Ringle, C. M., and Sarstedt, M.(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ir, J. F., Sarstedt, M., Matthews, L. M., and Ringle, C. M.(2016). Identifying and treating unobserved heterogeneity with FIMIX-PLS: part I - method. *European Business Review*.
- Hall, C.(1992). Review. Adventure, health and sports tourism, in Weiler, B. and Hall, C.M. (Eds), *Special Interest Tourism*, Belhaven Press, London, pp. 141-158.
- Han, H., Hsu, L. T. J., and Sheu, C.(201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green hotel choice: Tes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riendly activities. *Tourism Management*, 31(3): 325-334.
- Han, H., Kim, W., and Lee, S.(2018). Stimulating visitors' goal-directed behavior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museums: Testing the role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8: 290-300.

- Han, H., Lee, S., and Lee, C. K.(2011).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Visa exemptions and the traveller decision-making process. *Tourism Geographies*, 13(1): 45-74.
- Hartig, T.(2004). Restorative Environments.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3: 273-279.
- Hartig, T., Evans, G. W., Jamner, L. D., Davis, D. S., and Gärling, T.(2003). Tracking restoration in natural and urban field sett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109-123.
- Herzog, T. R., Black, A. M., Fountaine, K. A., and Knotts, D. J.(1997). Reflection and attentional recovery as distinctive benefits of restorative environ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7: 165-170.
- Hettler, B.(1980). Wellness promotion on a university campus. *Family & Community Health*. 3(1): 77-95.
- Hey, W. T., Calderon, K. S., and Carroll, H.(2006). Use of body - mind - spirit dimens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wellness behavior and characteristic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 *Health Promotion Practice*, 7(1): 125 - 133.
- Hritz, N. M., Sidman, C. L., and D'Abundo, M.(2014). Segmenting the college educated generation Y health and wellness traveler.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1(1): 132-145.
- Hwang, J. and Ok, C.(2012).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consumer attitudes toward restaurant brand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asual and fine dining restau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2: 121-131.
- Ivarsson, C. T., and Hagerhall, C. M.(2008). The perceived restorativeness of gardens: Assessing the restorativeness of a mixed built and natural scene type. *Urban Forestry and Urban Greening*. 7(2): 107-118.
- James, W., Burkhardt, F., Bowers, F., and Skrupskelis, I. K.(1982). Essays in religion and morality (Vol. 9). Harvard University Press.

- Jung, S. E., Santella, M., Hermann, J., and Lawrence, J.(2018). Understanding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consume fruits and vegetables: an application of the Model of Goal Direct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56(4-5): 211-225.
- Kaplan, R., and Kaplan, S.(1989). *The Experience of Natur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plan, R., Kaplan, S., and Ryan, R. L.(1998). *With people in mind. Design and management of everyday nature*. Washington, DC: Island Press.
- Kaplan, S.(1992). The restorative environment: Nature and human experience. In D. Relf(Ed.), *The role of horticulture in human well-being and social development*(134-142). Portland, OR: Timber.
- _____ (1995). The restorative benefits of nature: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5: 169-182.
- Kaplan, S., Bardwell, L. V., and Slakter, D. B.(1993). The museum as a restorative environ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25(6): 725-742.
- Kelly, C.(2012). Wellness tourism: retreat visitor motivations and experienc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7(3): 205-213.
- Kim, J. H., Yoon, M. H., and Kim, J. S.(2012). Customer complaining as a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20(4): 1-22.
- Kim, J. O., Hart, R. J., Lee, J. E., and Kim, N. H.(2016).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otential tourists using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0(4): 33-43.
- Kirkpatrick, E. L., Cowles, M., and Tough, R.(1934), The Life Cycle of the Farm Family in Relation to Its Standard of Living, *Research Bulletin No. 121*.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Kline, R. B.(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SAGE Publications.

- Korpela, K. M., Borodulin, K., Neuvonen, M., Paronen, O., and Tyrväinen, L.(2014). Analyzing the mediators between nature-based outdoor recre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7: 1-7.
- Korpela, K. M., Ylén, M., Tyrväinen, L., and Silvennoinen, H.(2008). Determinants of restorative experiences in everyday favorite places. *Health & Place*. 14(4): 636-652.
-
- _____ (2010). Favorite green, waterside and urban environments, restorative experiences and perceived health in Finland.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5(2): 200-209.
- Korpela, K. M., and Hartig, T.(1996). Restorative qualities of favorite pla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21-233
- Korpela, K. M., and Ylén, M. P.(2009). Effectiveness of favorite-place prescriptions: A field experimen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6(5): 435-438.
- Kulczycki, C., and Lück, M.(2009). Outdoor adventure tourism, wellness, and place attachment. *Wellness and tourism: Mind, body, spirit, place*. 165-176.
- Kuther, T. L.(2002). Rational decision perspectives on alcohol consumption by youth: Revi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ddictive Behavior*. 27(1): 35-47.
- Lam, T., and Hsu, C. H.(2004).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tential travelers from China.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28(4): 463-482.
-
- _____ (2006).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choosing a travel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27(4): 589-599.
- Lansing, J. B., and Kish, L.(1957). Family life cyc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5): 512-519.
- Lansing, J. B., and Morgan, J. N.(1955). Consumer finances over the life cycle. *Consumer behavior*. 2(4): 36-50.
- Laumann, K., Gärling, T., and Stormark, K. M.(2001). Rating scale measures of restorative components of environ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31-44.
- Lean, G. L.(2009). Transformative travel: Inspiring sustainability. *Wellness and tourism: Mind, body, spirit, place*. 191-205.

- Lee, C. K., Song, H. J., Bendle, L. J., Kim, M. J., and Han, H.(2012). The impact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for 2009 H1N1 influenza on travel intentions: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33: 89-99.
- Lee, M. J.(2005). *Effects of attitude and destination image on association members' meeting participation intentions: Development of meeting participa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Lee, M. J., Lee, J. Y., Han, U. L., Park, J. H., and Lee, C. W.(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afety perception on the visit intention of Haeundae beach tourists: Focused on the extended goal-directed behavioral model. *Journal of Coastal Research*. 91(1): 211-215.
- Lee, S., Bruwer, J., and Song, H.(2017). Experiential and involvement effects on the Korean wine tourist's decision-making process. *Current Issues in Tourism*. 20(12): 1215-1231.
- Leone, L., Perugini, M., and Ercolani, A.(2004). Studying, practicing, and mastering: a test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MGB) in the software learning domai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9): 1945-1973.
- Lehto, X. Y., Brown, S., Chen, Y., and Morrison, A. M.(2006). Yoga tourism as a niche within the wellness tourism market.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1(1): 25 - 36.
- Lim, J. P., Lee, C. K., Lee, H. M., and Lee, J.(2014), Examining decision making process of scuba diving tourists by using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6(2): 1-19.
- Longo, Y., Coyne, I., and Joseph, S.(2017). The scales of general well-being (SGWB).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9: 148-159.
- Lounsbury, J. W., and Hoopes, L. L.(1986). A vacation from work: Changes in work and nonwork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3): 392.
- Marselle, M. R., Irvine, K. N., and Warber, S. L.(2013). Walking for well-being: are group walks in certain types of natural environments better for well-being than group walks in urban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0(11): 5,603-5,628.

- Martens, D., Gutscher, H., and Bauer, N.(2011). Walking in “wild” and “tended” urban forests: Th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1): 36-44.
- Meera, S., and Vinodan, A.(2019). Attitude towards alternative medicinal practices in wellness tourism market.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Insights*. 2(3): 278-295
- Meng, B., and Choi, K.(2016). The role of authenticity in forming slow tourists’ intentions: Developing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57: 397-410.
- Miller, G., and Foster, L. T.(2010). *Critical synthesis of wellness literature*. University of Victoria.
- Miller, J.(2005). Wellness: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a concept. *Spektrum Freizeit*. 27: 84-106.
- Monecke, A., and Leisch, F.(2012). semP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partial least square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3): 1 - 32.
- Moore, R. C., and Cosco, N. G.(2007). What makes a park inclusive and universally designed?. PC a. T. Ward Thompson(Ed.), *Open spaces people space*. 85-110.
- Mowen, J. C., and Minor, M.(1998). *Consumer behavior*. New Jersey: Prentice-Hall.
- Mueller, H., and Kaufmann, E. L.(2001). Wellness tourism: Market analysis of a special health tourism segment and implications for the hotel industry.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7(1): 5-17.
- Murphy, P. E., and Staples, W. A.(1979). A modernized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1): 12-22.
- Myers, I. B., McCaulley, M. H., Quenk, N. L., and Hammer, A. L.(1998). *MBTI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3r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yers, J. E., Sweeney, T. J., and Witmer, J. M.(2000). The wheel of wellness counseling for wellness: A holistic model for treatment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251-266.

- Myers, J. E., and Sweeney, T. J.(2004). The indivisible self: An evidence-based model of wellnes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0: 234-244.
- Nasco, S. A., Toledo, E. G., and Mykytyn Jr, P. P.(2008). Predicting electronic commerce adoption in Chilean SM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1(6): 697-705.
- National Wellness Institute.(1983). *Lifestyle Assessment Questionnaire*. Stevens Point, WI: National Wellness Institute.
- Neulinger, A., and Radó, M.(2017). The impact of household life-cycle stages on subjective well-being: Considering the effect of household expenditures in Hunga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2(1): 16-26.
- Nordh, H., Evensen, K. H., and Skar, M.(2017). A peaceful place in the city: A qualitative study of restorative components of the cemeter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67: 108-117.
- Norman, P., and Smith, L.(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exercise: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rior behaviour, behavioural intentions and attitude vari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4): 403-415.
- Norton, A. J.(1974). The Family-Life Cycle Updated: Components and Uses.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eds. Robert F. Winch and Graham B. Spanie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62-167.
- Nunnally, B., and Bernstein, I. R.(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 Oatley, K., and Johnson-Laird, P. N.(1987). Towards a cognitive theory of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1): 29-50.
- Oh, H., and Hsu, C. H. C.(2001). Volitional degree of gambling behavi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3): 618-637.
- Olson, J. M., and Zanna, M. P.(1993).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17.
- Ouellette, P., Kaplan, R., and Kaplan, S.(2005). The monastery as a restorative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2): 175-188.

- Park, E., Lee, S., and Peters, D. J.(2017). Iowa wetlands outdoor recreation visitors' decision-making process: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17: 64-76.
- Park, S. Y., and Petrick, J. F.(2009). Examining current non-customers: A cruise vacation case.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5(3): 275-293.
- Pasini, M., Berto, R., Brondino, M., Hall, R., and Ortner.(2014). How to measure the restorative quality of environments: The PRS-11.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9: 293-297.
- Pernecky, T., and Johnston, C.(2006). Voyage through numinous space: Applying the specialization concept to new age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1(1): 37-46.
- Perugini, M. and Bagozzi, R. P.(2001).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1): 73-98.
- _____ (2004). The distinction between desires and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1): 69-84.
- Perugini, M., and Conner, M.(2000).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behavioral volitions: The interplay between goals and behavio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5): 705-731.
- Pierro, A., Mannetti, L., and Livi, S.(2003). Self-identi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health behavior and leisure activity. *Self and Identity*. 2(1): 47-60.
- Pligt, J. V. D., and De Vries, N. K.(1998). Expectancy-value models of health behaviour: The role of salience and anticipated affect. *Psychology and Health*. 13(2): 289-305.
- Preacher, K. J., and Hayes, A. F.(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Prideaux, B., Berbigier, D., and Thompson, M.(2014). Wellness tourism and destination competitiveness. *Wellness tourism: A destination perspective*. 45-58.
- Purcell, T., Peron, E., and Berto, R.(2001). Why do preferences differ between scene types?. *Environment and Behavior*. 33: 93-106.
- Ratcliffe, E., Gatersleben, B., and Sowden, P. T.(2013). Bird sounds and their contributions to perceived attention restoration and stress recover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6: 221-228.
- Richardson, E. A., Pearce, J., Mitchell, R., and Kingham, S.(2013). Role of physical ac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green space and health. *Public Health*. 127(4): 318-324.
- Rodgers, R.(1960). Proposed modifications of Duvall's family life cycle stages. In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 New York.
- Rosenbaum, M. S.(2009). Restorative servicescapes: Restoring directed attention in third place.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0(2): 173-191
- Rowntree, B. S.(1903).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 Shaffer, J. P.(1995). Multiple hypothesis test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1): 561-584.
- Sheeran, P.(2002).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36.
- Sheldon, P. J., and Bushell, R.(2009). Introduction to wellness and tourism. *Wellness and tourism: Mind, body, spirit*, place. 3-18.
- Sheppard, B. H., Hartwick, J., and Warshaw, P. R.(1988).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 meta-analysis of past research with recommendations for modifications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3): 325-343.
- Shin, D. and Kim, W.(2008). Apply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flow theory to Cyworld user behavio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1(4): 12-20.

- Shiu, E. M. K., Hassan, L. M., Thomson, J. A., and Shaw, D.(2008).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ur: Assessing the role of behavioural desir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8: 66-71.
- Smith, M. K., and Diekmann, A.(2017). Tourism and wellbe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66: 1-13.
- Smith, M. K., and Kelly, C.(2006). Wellness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1(1): 1-4.
- Smith, M. K., and Puczko, L.(2008). *Health and Wellness Tourism*. London: Routledge.
- Song, H. J., Lee, C. K., Kang, S., K., and Boo, S. J.(2012). The effec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erceptions on festival visitors'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33: 1417-1428.
- Song, H. J., Lee, C. K., Norman, W. C., and Han, H.(2011). The role of responsible gambling strategy in forming behavior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Travel Research*. 5(4): 512-523.
- Song, H. J., Lee, C. K., Reisinger, Y., and Xu, H. L.(2017). The role of visa exemption in Chinese tourists' decision-making: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4(5): 666-679.
- Song, H. J., You, G. J., Reisinger, Y., Lee, C. K., and Lee, S. K.(2014). Behavioral intention of visitors to an Oriental medicine festival: An extended model of goal direct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42: 101-113.
- Song, H. J., and Lee, C. K.(2010).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s for visitors to integrated resort casino using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urism & Leisure Research*. 22(5): 341-360.
- Sonuç, N.(2020). Wellness tourism management: well-being as a sustainability concern for wellness tourism management. In *Industrial and Managerial Solutions for Tourism Enterprises*(110-127). IGI Global.
- Sorokin, P. A., Zimmerman, C. C., and Galpin, C. J.(1931), A Systematic Source book in Rural Sociology, Vol. 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teiner, C. J., and Reisinger, Y.(2006). Ringing the fourfold: A philosophical framework for thinking about wellness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1(1): 5-14.
- Sukoco, B. M.(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participations of a brand community: A validation of the goal-directed behavior model. *The South East Asian Journal of Management*. 5(2): 119-134.
- Taylor, S. A.(2007). The addition of anticipated regret to attitudinally based, goal directed models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ur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risk.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4): 739-768.
- Taylor, S. A., Ishida, C., and Wallace, W.(2009). Intention to engage in digital piracy: A conceptual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11(3): 246-262.
- Taylor, S. A., and Todd, P. A.(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 Research*. 6(2): 144-176.
- Taylor, S. D., Bagozzi, R. P., and Gaither, C. A.(2005). Decision making and effort in the self regulation of hypertension: Testing two competing theorie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4): 505-530.
- Teo, T. S., Srivastava, S. C., and Jiang, L. I.(2008). Trust and electronic government success: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5(3): 99-132.
- Terry, D. J., and O'Leary, J. E.(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effects of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and self efficac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2): 199-220.
- Thompson, C. W., and Travlou, P.(Eds.). (2007). *Open space: people space*. Taylor & Francis.
- Trafimow, D, Sheeran, P., Conner, M., and Finlay, K. A.(2002). Evidence that perceived control i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perceived control and perceived difficul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101-121.
- Travis, J. W.(1984). *The relationship of wellness education and holistic health*. *Mind, Body and Health*. New York.

- Travis, J. W., and Ryan, R. S.(2004). *Wellness workbook: How to achieve enduring health and vitality*. Random House Digital, Inc..
- Triandis, H. C.(1977). *Interpersonal Behavior*. Monterey, CA: Brooks/Cole.
- _____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
- Trost, J.(1974), This Family Life Cycle-An Impossible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7-47.
- Ulrich, R. S.(1983). Aesthetic and affective response to natural environment. In *Behavior and the natural environment*. Springer, Boston, MA.
- _____ (1984).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420.
- Ulrich, R. S., Simons, R. F., Losito B. D., Fiorito, E., Miles, M. A., and Zelson, M.(1991). Stress recovery during exposure to natural and urban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1(3): 201-230.
- UNWTO(2019).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19 edition. World Tourism.
- _____ (2020).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20 edition. UNWTO.
- _____ (2022).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and Statistical Annex*, July 2022. UNWTO.
- Verlegh, P. W., and Candel, M. J.(1999). The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s: reference groups and eating situation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0(6): 457-464.
- Voigt, C., Brown, G., and Howat, G.(2011). Wellness tourists: In search of transformation. *Tourism Review*. 66(1/2): 16-30.
- Voigt, C., Howat, G., and Brown, G.(2010). Hedonic and eudaimonic experiences among wellness tourists: An exploratory enquiry. *Annals of Leisure Research*. 13(3): 541-562.
- Wang, C. Y., and Hsu, M. K.(2010). The relationships of destination imag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An intergrated model.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7(8): 829-843.

- Wells, W. C., and Gubar, G.(1966), Life Cycle Concept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 355-363.
- Wepfer, A. G., Brauchli, R., Jenny, G. J., Hämmig, O., and Bauer, G. F.(2015). The experience of work-life balance across family-life stages in Switzerland: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based study. *BMC Public Health*. 15(1): 1-11.
- White, M., Smith, A., Humphryes, K., Pahl, S., Snelling, D., and Depledge, M.(2010). Blue space: The importance of water for preference, affect, and restorativeness ratings of natural and built scen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482-493.
- Windhager, S., Atzwanger, K., Bookstein, F. L., and Schaefer, K.(2011). Fish in a mall aquarium—An ethological investigation of biophili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9(1): 23-30.
- Wood. S. L. and Moreau, C. P.(2006). From fear to loathing? How emotion influences the evaluations and early use of innovations. *Journal of Marketing*. 70: 44-57.
- Wray, M., Laing, J., and Voigt, C.(2010). Byron Bay: An alternate health and wellness destinatio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17(1): 158-166.
- Yang, K., and Jolly, L. D.(2009). The effects of consumer perceived value and subjective norm on mobile data service adoption between American and Korean consumer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6(6): 502-508.
- Zeithaml, V. A.(2000). Service quality, profitability, and the economic worth of customers: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learn.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1): 67-85.
- Zeithaml, V. A., Berry, L. B., and Parasuraman, A.(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2): 31-46.
- Zint, M.(2002). Comparing three attitude-behavior theories for predicting science teacher's intention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9(9): 819-844.

설문지

설문지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도 내에서 웰니스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심리상태와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마련된 설문지이며, 이는 학위논문 작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모든 설문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통계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더불어 설문지의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의 생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 08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용복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정현규

※ 설문조사 응답 전에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웰니스관광이란 '웰빙을 유지 또는 향상 시키고자 하는 여행'을 의미하며 건강한 삶, 회복과 휴식, 참된 경험, 질병예방/관리 등을 추구하는 여행입니다.¹⁾

제주도에서 웰니스 관광지는 제주의 자연 자원과 문화, 마을 주민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이자 편안한 분위기에서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지를 말합니다.²⁾

※ 제주관광공사 선정 2021 제주 웰니스 관광지 예시

- i) 자연·숲 치유 분야
: 머체왓숲길, 서귀포치유의숲, 파파빌레, 환상숲꽃자왓공원
- ii) 힐링·명상 분야
: 제주901, 제주힐링명상센터, 취다선리조트
- iii) 뷰티·스파 분야
: WE호텔 웰니스센터
- iv) 만남·즐거움 치유 분야
: 가뒀물, 신흥2리동백마을, 풀개협동조합

1) Global Wellness Institute, The Global Wellness Economy: Country Rankings, February 2022.

2) 제주관광공사, 2021 제주 웰니스 관광지 선정, 2021.08.10.

1. 다음은 웰니스관광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웰니스관광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웰니스관광은 누구와 함께하십니까?

- ① 혼자 ② 가족/친척 ③ 연인 ④ 친구/동료 ⑤ 모임(동호회, 종교 등) ⑥ 기타

1-2. 귀하를 포함하여 웰니스관광은 총 몇 명이 함께 하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1-3. 지난 1년간 웰니스관광을 총 몇 회 하십니까(제주도 지역 이외도 모두 포함)?

- ① 0회(지난 1년간은 한적 없음) ② 1회~2회 ③ 3회~4회 ④ 5회 ~ 6회 ⑤ 7회 이상

2. 다음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웰니스관광은 기분 좋다.	①	②	③	④	⑤
2-2	웰니스관광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3	웰니스관광은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4	웰니스관광은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웰니스관광에 대해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주변의 의견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내가 웰니스관광을 가면 주변에서 나를 이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가 웰니스관광을 계획할 때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주변사람들은 나를 위해 나에게 웰니스관광을 권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웰니스관광에 대하여 예상되는 기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웰니스관광을 하면 기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웰니스관광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3	웰니스관광을 하면 만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웰니스관광을 못하면 슬플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웰니스관광을 못하면 불행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6	웰니스관광을 못하면 실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웰니스관광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웰니스관광을 할지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언제든 웰니스관광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5-3	웰니스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4	웰니스관광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열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가까운 미래에 웰니스관광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2	가까운 미래에 웰니스관광 하는 것을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6-3	가까운 미래에 웰니스관광 하는 것을 매우 열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의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웰니스관광을 다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2	계속적으로 웰니스관광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3	주변사람에게 웰니스관광을 긍정적으로 말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웰니스관광지에서 느끼는 회복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웰니스관광지에 있으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2	웰니스관광지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잊고 어디론가 떠난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3	웰니스관광지는 일상에서 지친 머리를 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8-4	웰니스관광지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8-5	웰니스관광지는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8-6	웰니스관광지는 탐색하고 발견하고 싶은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7	웰니스관광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8	웰니스관광지에 있는 것은 내 성격이나 취향에 맞다.	①	②	③	④	⑤
8-9	웰니스관광지에 있으면 이곳과 하나가 되는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8-10	웰니스관광지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11	웰니스관광지에서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12	웰니스관광지는 길 찾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8-13	웰니스관광지는 구성이 알기 쉽게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8-14	웰니스관광지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9-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9-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재학/졸업 ③ 대학교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졸업

9-4. 귀하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학생 ② 구직중 ③ 은퇴 ④ 주부 ⑤ 농·수산업 ⑥ 사무직 ⑦ 생산/기술직
⑧ 판매/서비스직 ⑨ 교육/연구직 ⑩ 전문직 ⑪ 사업자(자영업 포함)

9-5. 귀하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자녀 유무는 가장 큰 자녀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미혼 ② 기혼_자녀 없음 ③ 기혼_자녀 있음(미취학 아동) ④ 기혼_자녀 있음(초등학생)
⑤ 기혼_자녀 있음(중고등학생) ⑥ 기혼_자녀 있음(20세 이상 성인)

9-6. 귀하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해당하는 구성원 모두 체크)?

- ① 1인 가구 ② 형제자매 ③ 배우자 ④ 부모(부 또는 모 1인인 경우 포함)
⑤ 자녀 ⑥ 친인척

9-7.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400만원 미만 ③ 400만원~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800만원 미만 ⑤ 800만원~1000만원 미만 ⑥ 10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n Wellness Tourists' Behavioral Intention by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during the Life Cycle Stages : Focused on the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Heonkyu Jeong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theoretical approach to wellness tourism, the establishment of an academic system, and the understanding behavior of tourists who experienced wellness tour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present a theoretical basis for the behavioral process of wellness tourists through an academic approach to wellness tourism and the application of existing behavioral theories, 2) to confirm the behavioral factors and behavioral processes specific to wellness tourism through model expansion, 3) to confirm the differences in tourism behavior by life cycle of wellness touris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life cycle theory, 4) to analyze the wellness tourism polic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proceeded with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major concepts and theori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wellness tourism, wellness tourism was operationally defined as 'wellness-pursuing activities in wellness tourist destinations based on personal perception of wellness'. And attitude, subjective

norm,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requency of past behavior, desire, and behavioral intention were confirmed as components of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MGB) to be used in this study. In addition, a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developed based on the attention recovery theory was used to identify the restorative environment in the wellness tourist destination, and the restorative environment perception was operationally defined as 'the restorative environment that can be felt through the wellness tourist destination environment'. Along with this, being away, fascination, compatibility, and legibility were extracted as attribute factors of the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Finally,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heory, the life cycle of wellness tourists was divided into adult unmarried over 20 years old, married without children, married with children in preschool or elementary school, married with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or adult children, and retirees.

Through these theoretical considerations,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for empirical analysis were establish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sed for hypothesis testing, and permutation tests were performed to test differences in path coefficients through pairwise comparison between groups to confirm differences in tourism behavior by life cycle of wellness tourist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wellness tourists' desire was influenced by attitude and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and that behavioral intention was influenced by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frequency of past behavior. And in relation to the attribute factors of the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the wellness tourists' desire was influenced by being away and compatibilit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behavioral intention was influenced by being away, fascination, and compatibil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wellness tourists' desi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behavioral intention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E-MGB and MGB, it

was confirmed that the case of E-MGB showed higher explanatory power than MGB in the case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And in the case of predictive adequacy (Q^2), it was confirmed that E-MGB showed higher predictive power than MGB.

Subsequently, as a result of permutation test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the behavior model according to the life cycle, a total of 5 pathway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These were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 desir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behavioral intention', 'compatibility → behavioral intention', 'legibility → behavioral intention', and 'desire → behavioral intention'. In particular, the groups that showed the greatest difference by stage were married without children and married with preschoolers 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se two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the effect of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on desire, the effect of compatibility on behavioral intention, and the effect of desire on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wellness tourists can be explained through E-MGB. This is meaningful in confirming that wellness tourism is a type of tourism that can be explained according to systematic behavioral theor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wellness tourists' behavior was better explained through the attribute factors of the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This is a result showing that the attribution factor of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can be understood as a characteristic of wellness tourism. In particular, among the attribute factors of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being away and compatibility were identified as factors explaining the behavioral intentions of wellness tourists, rather than physical factors such as legi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ed several implications. First of all, as a theoretical implication, this study theoretically explained the behavior

of tourists for wellness tourism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s theoretical explanation provided a theoretical basis for wellness tourism, which can be seen as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hich was to present a theoretical basis for the behavioral process of wellness tourists. This explains the behavioral intention of wellness tourists, which has been studied in various ways, with a behavioral theory called E-MGB. This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differentiate from the type of tourism.

Next,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wellness tourists are a group of tourists who need to be subdivided. These subdivisions can be classified based on life cycle, and through this classification, an approach tailored to each group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lassification of tourists according to these life cycles when organizing wellness tourism programs or developing wellness tourist destinations. In addition, in tourism promotion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satisfy the needs of wellness tourists in more diverse ways such as presenting customized program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ubdivided tourists.

Finally, the policy direction for wellness tourism needs to focus on the meaning of wellness. It is necessary to first fully understand wellness to tourists through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wellness in terms of policies and discovery of wellness concepts suitable for the region. Through this process, the wellness tourism policy should be presented in the direction in which the tourist can choose the wellness tourism that suits him/herself and realize wellness by himself/herself.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nurture wellness experts through policy. It is necessary to nurture experts who have overall expertise in wellness, not just experts who are limited to wellness tourism. And these experts should be allowed to act naturally in the field of wellness tourism.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examined so far are difficult to judge, and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centered in this study. Therefore, when considering all matters related to wellness tourism, such as the promotion of understanding of wellness tourism and the development and vitalization of tourism,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se implications or perspectives from a comprehensive and organic perspective rather than simply reviewing them individually. The core of wellness is a harmonious state of various constructs, and wellness tourism is to realize this harmonious state through tourism. Even in the approach to wellness tourism, it will be possible to approach the ultimate wellness through the harmony of these various perspectives.

Several limitations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and serious discussion about these limitations is needed. The most basic limitation that can be considered is the limitation of the research subject. This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tourists from all over the country who experienced wellness tourism in Jeju Island. This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judgment that the most representative wellness tourist destination in Korea is Jeju Island, but it is true that wellness tourism is continuously being revitalized in major tourist destinations in Korea except Jeju Island. Considering these points,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derive more generalized research results if a wider range of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across the country rather than simply limiting the places for experiencing wellness tourism in Jeju Island.

In addition,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lassification and application of life cycle stages. The life cycle stage divided into 5 stages is more subdivided and can be divided into a larger number of stages, as can be seen i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previous studies. And, especially in modern society where household types a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consideration of these subdivided life cycles enables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ourist groups. In this regard, it is true that the five-stage classification used in this study is insufficient in understanding the various life cycle stages of touris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detailed life cycle stages for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ourists experiencing wellness tourism.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ere are still many parts to be understood about wellness tourism. However, based on previous studies, various studies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will continue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wellness tourism. An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and the research on wellness tourism, which has steadily progressed through preceding studies, can contribute to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wellness tourism.